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가이드북

#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김 지 윤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이 영상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AKS-2021-KDA-1250006)

## 강의계획서

- 강의명: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권역형)
- 강사명: 김지윤
- 구성: 총 10차시
- 분과: 고전문학
- 수준(난이도): 초급
- 특징: 권역형
- 수업방식: 강의형

### - 강의 목표

본 강의는 한국 고전 서사문학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장르 또는 주제별로 묶어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품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와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베트남·일본 애정 서사와 한국 애정 서사를 비교하여 사랑의 문학적 형상화에 나타난 동아시아적 보편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동시에 한국 애정 서사의 특징적 면모에 대해 고찰해본다.

### -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1	역사 속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삼국시대의 사랑 1 - 왕과 왕비의 사랑 ③ 삼국시대의 사랑 2 - 여왕과 평민의 사랑 ④ 삼국시대의 사랑 3 - 평민 부부의 사랑 ⑤ 요약 및 정리
2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죽음을 초월한 사랑 1 - 「수삽석남」 ③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1 ④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2 ⑤ 귀신과의 사랑 - 「만복사저포기」 ⑥ 요약 및 정리
3	한국의 애정전기 1 : 이생규장전	① 강의 개관 ② 애정전기란 무엇인가 ③ 작가 김시습과 『금오신화』 ④ 「이생규장전」 1 - 이생과 최씨의 사랑 ⑤ 「이생규장전」 2 - 이생과 최씨의 이별 ⑥ 요약 및 정리
4	한국의 애정전기 2 : 운영전	① 강의 개관 ② 안평대군과 수성궁 ③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④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악인 특(特) ⑤ 사랑의 비극 ⑥ 요약 및 정리

5	한국의 애정전기 3 : 주생전	① 강의 개관 ② 「주생전」의 창작 배경 ③ 주생과 배도의 사랑 ④ 주생과 선화의 사랑 ⑤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 ⑥ 요약 및 정리
6	사랑과 자유 - 기생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평양 기생의 사랑 - 「소를 탄 여자」 ③ 황진이이의 사랑 ④ 기생의 사랑 노래 ⑤ 요약 및 정리
7	춘향전 - 사랑, 인간의 권리	① 강의 개관 ② 『춘향전』의 역사 ③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④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⑤ 춘향의 저항과 사랑의 완성 ⑥ 춘향 사랑의 의미 ⑦ 요약 및 정리
8	야담 속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환처」 - 내시 아내의 사랑 ③ 「청상」 - 청상과부의 사랑 ④ 「천변녀」 - 평민 소녀의 사랑 ⑤ 요약 및 정리
9	동아시아 속의 한국 애정서사	① 강의 개관 ② 베트남의 전기소설 ③ 죽음보다 깊은 사랑 - 「여랑전」 ④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⑤ 주인과 하인의 비극적 사랑 -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⑥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 「아오야 모노가타리」
10	시와 산문으로 읽는 부부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조선시대의 결혼 ③ 신혼의 사랑 ④ 해로의 기쁨과 슬픔 ⑤ 사별 뒤의 그리움 ⑥ 요약 및 정리

-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강좌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1차시> 역사 속의 사랑

### ■ 학습목표

1.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부부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수이전』에 실려 있는 지귀의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열정적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도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의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삼국시대의 사랑 1 - 왕과 왕비의 사랑
3. 삼국시대의 사랑 2 - 여왕과 평민의 사랑
4. 삼국시대의 사랑 3 - 평민 부부의 사랑
5.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저는 앞으로 10주 동안 여러분께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이라는 강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고전문학 가운데서 사랑, 그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한국 고전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 어떤 장르의 문학에서 사랑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시습(金時習)이라는 작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시습이 쓴 소설 중에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생규장전>은 한국 고전소설에서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춘향전>(春香傳)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향전>은 소설 형식으로도 전해지고, 판소리 <춘향가>의 형식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춘향과 이몽룡(李夢龍)의 사랑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이렇게 고전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

그 밖에 역사책에도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같은 역사책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동화로 읽어보았을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원래 역사서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 외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다른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또 조선시대 평민의 사랑 이야기와 기녀(妓女)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실제 부부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부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가 한국인은 물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강자들을 위해 준비된 강의인만큼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와 동아시아 다른 나라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비교해 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시면서 남녀 주인공이 어떤 개성을 가진 인물인지, 이들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또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하는 점 등을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사람이 60억 명이 있다면 최소한 이 세상에는 60억 개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했고, 사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들이 꿈꾸었던 사랑은 어떠한지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역사 속의 사랑인데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남쪽에는 가야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통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에 주몽(朱蒙)이 세운 나라입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뒤에는 동명왕(東明王)이 됩니다. 2006년에 방영되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당시에 시청률이 아주 높았고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수출이 되어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압록강 유역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유명한 왕으로는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과 장수왕(長壽王) 이런 분들이 있지요.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고구려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는 7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서기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백제는 기원전 1세기에 온조(溫祚)가 세운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서울, 그러니까 한강 유역에 건국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의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 전라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백제의 수도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에 있었습니다. 백제도 700년 정도 유지되다가 66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백제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령왕릉(武寧王陵)이 유명하죠. 무령왕(武寧王)이라고 하는 왕의 무덤이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최근까지 남아 있어서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에 가시면 무령왕릉을 보실 수 있고요. 왕릉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 왕릉의 내부를 복원한 모형은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라(新羅) 역시 기원전 1세기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박혁거세(朴赫居世)가 한반도의 동남부,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세운 나라고요. 신라의 수도는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였습니다. 경주에 가시면 신라 유적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왕릉은 물론이고, 불국사(佛國寺)나 석굴암(石窟庵) 같은 불교 관련 유적도 보실 수 있고요. 첨성대(瞻星臺)라는 천문 관측 기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세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통일한 이후의 신라는 통일신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통일신라는 935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신라는 이렇게 한반도에 천 년 동안 있었던 나라입니다. 역사가 아주 길지요.

이렇게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함께 있었던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9, 10세기까지 정도가 되겠네요.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두 편 있는데요. 하나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三國遺事)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사랑 이야기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몇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옛날에는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2. 삼국시대의 사랑 1 - 왕과 왕비의 사랑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랑 이야기는 삼국시대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의 사랑 이야기는 대부분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 이야기보다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가 주로 실려 있습니다. 역사서에 실린 사랑 이야기 중에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수로왕(首露王)과 허왕후(許王后)>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로왕은 금관가야(金官伽倻)를 건국한 김수로왕을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삼국시대에 한반도에는 가야(伽倻)라는 작은 나라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가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신라 유리왕(儒理王) 19년인 서기 42년, 그러니까 신라가 건국된 뒤에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이나 경상남도 함안, 김해 같은 지역에서 가야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세워진 작은 나라이고요. 대가야(大伽倻)나 금관가야 처럼 가야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작은 나라들의 연맹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바로 옆에는 신라라는 큰 나라가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562년에 가야는 신라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 500년 정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을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로왕은 가야에 속한 여러 나라들 중에 금관가야를 세운 사람입니다.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건국할 때의 이야기와 수로왕이 왕비를 맞아들인 이야기는 모두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 드려야겠지요?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삼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한반도에는 고려(高麗)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고려의 승려인 일연(一然)이 편찬을 했습니다. 삼국의 역사에 대해

쓰여있는 기록들을 모아서 <삼국유사>라는 책을 엮은 것이죠. 이 <삼국유사>라는 책 속에는 가야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국기>(駕洛國記)가 바로 가야의 역사입니다. 가야를 옛날에는 ‘가락국’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야’라는 한국어 발음을 한자를 빌려 ‘가락’(駕洛)으로 표기한 것이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깐요. 모든 글자를 한자, 한문으로 표기했습니다.

<삼국유사> 속의 <가락국기>에는 가야를 세운 김수로와 그의 아내 허황옥(許黃玉)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김수로가 왕이 된 뒤에 허황옥을 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제목을 <수로왕과 허왕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로왕이 어떻게 허황옥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왕비로 삼게 되었는지 작품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수로왕이 42년에 금관가야를 건국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때 수로왕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수로왕은 보통의 평범한 남성이 아니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가야라는 나라에 왕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의 왕조 국가에서 왕비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가야의 신하들이 수로왕께 왕비를 얻으시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 일은 서기 4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품의 해당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왕께서 강림(降臨)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아직 얻지 못하셨습니다. 신들이 기른 처녀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궁중에 뽑아 들여 왕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말했다.

“내가 이곳에 내려옴은 하늘의 명령이다. 내게 왕후로 삼게 할 배필 또한 하늘이 명령할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라.”

신하들은 수로왕에게 신하들의 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서 왕비를 삼으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 귀족 여성을 왕비로 삼으라고 권하는 거죠. 그런데 수로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왕비도 하늘에서 점지해 주실 것이라구요. 수로왕이 좀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로왕의 혼인에 대한 기록이 실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고 믿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에는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요. 수로왕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았던 것일까요? 신하를 보내서 한 여성을 맞이하게 합니다. 수로왕은 신하에게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주어서 망산도(望山島)로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남쪽 바다 저 멀리서 배가 한 척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빛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가야 영토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수로왕의 신하들은 이 배를 향해서 횡발을 올렸습니다. 배에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배는 결국 가야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대궐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본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경솔하게 따라가겠느냐?”

이 여성,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차게 말하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자존감이 높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환영한다고 해서 처음보는 사람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죠? 이것은 이 여성이 신중한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배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수로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 말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왕은 직접 여성을 만나러 갑니다. 대궐의 서남쪽에 장막을 쳐서 임시 궁전을 설치한 다음, 수로왕은 임시 궁전에서 여성을 기다립니다.

여성은 나루터에 배를 매어두고 육지에 있는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여인은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또 진귀한 비단과 보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요? 수로왕은 직접 나와서 여성을 맞이하여, 임시 궁전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수로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올 5월에 부왕(父王)과 모후(母后)께서 제게 ‘우리 내외가 어젯밤 꿈에 함께 하늘의 상제(上帝)를 뵈었는데, 상제께서 가락국왕(駕洛國王) 수로(首露)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신성한 분이고, 새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느니라. 꿈에서 깬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부모와 작별하고 가락국을 향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허황옥(許黃玉)이고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아유타국은 지금의 인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인도는 아주 멀죠. 그래서 이 아유타국이 진짜 인도에 있었던 아유타국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점을 계속해서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허황옥이라는 여인이 가야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황옥의 부모님, 다시 말해서 아유타국의 왕과 왕비죠. 허황옥의 부모님은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수로는 하늘의 명을 받아 가야를 건국한 신성한 사람인데 아직 아내가 없다, 아유타국의 공주를 가야로 보내서 수로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아유타국의 왕과 왕비는 자기 딸인 허황옥을 가야로 보냅니다. 가서 수로왕의 아내가 되라고 딸을 가야로 보낸 겁니다. 이런 계시를 받고 허황옥은 가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수로왕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신하들이 왕비를 맞이하라고 권했을 때, 수로왕은 나의 배필은 하늘이 명령해줄 것이다라고 했었죠? 수로왕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수로왕의 아내를 정해 준 것입니다. 수로왕은 허황옥, 즉 아유타국의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하여 공주가 먼 곳에서 올 것을 미리 알았기에, 신하들이 왕비를 맞이하자고 청하였지만 굳이 듣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으니 나로서는 다행한 일ियो.”

역시 수로왕은 하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생각을 직접 알 수 있는 신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정해준 때를 기다려서 하늘이 정해준 여인인 허황옥을 아내로 맞게 됩니다. 이렇게 수로왕과 허황옥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신성한 결혼을 합니다. 이제 허황옥은 가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수로왕은 혼인을 한 뒤에 국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는 작은 나라였지만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춘 나라가 된 것이죠. 바로 옆에 있던 큰 나라인 신라라든가, 당시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한(漢) 나라의 제도를 도입해서, 금관가야를 떼떽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수로왕은 허황후와 혼인한 뒤에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수로왕이 결혼한 뒤에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일부러 엄하게 하지 않아도 왕의 위엄이 서고, 정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수로왕과 허황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 왕후와 함께하는 삶을 비유하면 하늘에 대해 땅이 있고, 해에 대해 달이 있고, 양(陽)에 대해 음(陰)이 있음과 같으랴!

수로왕과 허황후는 하늘과 땅이나 해와 달, 양과 음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해와 달, 양과 음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죠. 하늘과 땅, 해와 달처럼 수로왕과 허황후는 결혼을 해서 함께 있음으로써 완전해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서 완벽을 만든 부부라니, 참으로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허황후의 내조에 대해 말합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이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이 있죠. 바로 우(禹) 임금과 순(舜) 임금인 데요. 허황후는 우임금과 순임금의 아내처럼 수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또 허황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낳아서 왕권을 안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허황후를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허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땅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했다고 합니다. 허황후는 하늘이 가야의 왕비로 정해준 사람인 만큼, 가야국 왕비로서의 역할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모(國母)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수로왕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왕비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수로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합니다. 수로왕과 허황후의 무덤은 지금 경상남도 김해시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왕과 허황후는 가야라는 나라의 체제를 함께 정비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새로 세워진 나라를 진정한 국가로 만들어간 왕과 왕비인 것이죠. 수로왕과 허황후의 사랑은 일단 왕과 왕비의 사랑이고, 이들의 사랑에는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신성성(神聖性)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부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요. 이들의 사랑은 동반자적 부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부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3. 삼국시대의 사랑 2 - 여왕과 평민의 사랑

삼국시대의 사랑 이야기 중에는 왕족과 평민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족과 평민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작품은 <선덕여왕(善德女王)>을 사랑한 지귀(志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수이전>(殊異傳)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수이전>은 신라 시대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책인데요. 지금 <수이전>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라는 천 년 전에 멸망한 나라죠.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옛날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이전>이라는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요. <수이전>에 수록되어 있던 이야기 중에 몇 편이 후대의 책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볼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이라는 책에 실려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은 일종의 백과사전입니다. 조선 후기에 권문해(權文海)라는 사람이 편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은 한반도에 1392년에 건국되어서 1910년까지 지속된 나라입니다. 권문해는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가 원래 <수이전>에 실려 있었다고 밝혀두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에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심화요탑'(心火繞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 속의 불길(心火)이 탑을 두르다'라는 뜻입니다. 대체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랑 이야기이기에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귀(志鬼)라는 남성과 선덕여왕이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덕여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선덕여왕의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진 적도 있는데요. 2009년에 방영되었고, 이 드라마도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덕여왕은 신라의 27번째 왕입니다. 신라의 26대 왕인 진평왕(眞平王)의 딸이죠. 아버지인 진평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맏딸인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서기 632년에서 647년까지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여왕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여왕은 참 드물지요. 신라 시대에만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을 주인공으로 한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이제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귀(志鬼)는 신라 활리역(活里驛) 사람이다. 지귀는 선덕여왕의 미모에 반해서 근심하며 우느라 모습이 초췌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이 절에 행차하여 향을 사르려 했는데, 마침 지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지귀를 오게 하였다.

지귀는 활리역 사람이라고 했지요. 활리역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중심부에 있었던 역인데요. 경주의 중심부에는 신라의 왕궁인 월성(月城)도 있었죠. 지귀는 선덕여왕의 미모에 반했다고 했는데요. 지귀가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중심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덕여왕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선덕여왕의 미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겠죠. 어쨌든 지귀는 선덕여왕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귀의 사랑은 아주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지귀는 근심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귀는 선덕여왕을 사랑하죠. 그런데 선덕여왕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선덕여왕을 마음대로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선덕여왕은 왕인데, 평민 남성이 어떻게 선덕여왕에게 사랑의 마음을 직접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랑이죠.

그렇지만 선덕여왕은 지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거겠죠. 지귀라는 남성이 여왕님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선덕여왕은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절에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라는 불교국가입니다. 특히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중국 수(隋) 나라와 당(唐) 나라를 거쳐서 신라에까지 전파되었는데요. 불교가 신라의 토착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진평왕은 불교를 신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진평왕의 딸인 선덕여왕도 아버지를 따라서 신라에 불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선덕여왕 재위 중에 영묘사(靈妙寺)라는 절이 지어졌는데요. 영묘사는 경주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영묘사에 가서 향을 사르고 불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지귀를 영묘사로 오게 한 겁니다.

지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귀는 선덕여왕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혼자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귀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귀는 절에 가 탑 아래에서 여왕을 기다리다가 문득 깊은 잠에 빠졌다. 여왕은 팔찌를 벗어 잠든 지귀의 가슴 위에 두고 궁궐로 돌아갔다.

얼마 뒤 지귀가 잠에서 깨어났다. 지귀는 여왕이 이미 다녀갔음을 알고 혼절했다. 이윽고 마음에서 불길이 활활 일어나 탑을 다 태우더니 그만 불귀신이 되고 말았다.

지귀는 영묘사로 가서 선덕여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일까요?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지귀는 선덕여왕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지귀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선덕여왕은 지귀가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귀를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귀의 가슴에 팔찌를 올려두고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차고 있던 팔찌를 벗어서 지귀에게 준 것을 보면 선덕여왕도 지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요? 지귀를 깨우지 않고 다만 팔찌를 올려두고 돌아갔다는 서술을 보면, 선덕여왕의 사랑에는 여운이 남습니다. 애뜻함 같은 감정도 조금 느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귀입니다. 지귀는 잠에서 깨어 선덕여왕이 이미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애태우며 기다리던 여왕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가 잠이 들어서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지귀는 혼절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이렇게 걱정적인 지귀의 마음은 불이 되었습니다. 지귀의 마음에서 불길이 활활 일어나 탑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운부군옥>의 편찬자인 권문해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심화요탑’, 즉 ‘마음속의 불길이 탑을 돌렸다’라고 붙인 것입니다.

선덕여왕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지귀의 마음에는 거센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은 탑을 다 태웠고요. 지귀는 결국 불귀신이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불이 자기 몸을 다 태우고 만 것이죠. 지귀의 사랑은 이렇게 보면 열정적인 것을 넘어서 걱정적인 것 같습니다. 불로 변해버릴 만큼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여왕은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술사를 시켜서 주문을 짓게 했습니다. 그 주문은 이렇습니다.

“지귀 마음속의 불길이 / 불귀신으로 만들었네 / 먼바다 밖으로 가 / 보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

선덕여왕은 불귀신을 쫓아버리는 주문을 짓게 했네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결국 불귀신이 된 지귀는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이 주문을 벽에 붙여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 격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과 평민의 사랑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여성과 평범한 남성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만들어 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귀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는 짧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인 신라 시대에 창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많이 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귀라는 남성이 실존 인물인가 하는 점도 우선 의문이고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선덕여왕이 왜 지귀를 영모사로 오게 했을까? 여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평범한 남자를 한 번 보기 위해서 불렀을까? 여왕은 왜 평범한 남성의 사랑을 받아주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선덕여왕의 지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한 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 4. 삼국시대의 사랑 3 - 평민 부부의 사랑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랑 이야기는 백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도미(都彌)라는 남성과 그 아내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이 강의에서는 <도미 부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시대에 김부식(金富軾)이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멸망한 뒤에 한반도에 건국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려의 임금인 인종(仁宗)이 신하 김부식에게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쓰라고 명을 내렸는데요. 김부식을 비롯해서 모두 11명의 신하들이 여러 문헌을 참고해서 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145년입니다. 똑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삼국유사>가 일연이라는 승려 개인이 쓴 책인 반면에, <삼국사기>는 고려라는 국가의 주도하에 편찬된 책입니다. 두 역사서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미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시작 부분을 읽어볼까요?

도미(都彌)는 백제 사람으로, 평민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다.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절개가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도미는 남성의 이름입니다. 평민이었다고 하지요.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니다. 도미는 평민이지만 의리를 알았다고 합니다. 의리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았다는 말이겠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도미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서는 이어서 도미의 아내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데 절개도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는 말이죠. 도미의 아내는 아름다

웠지만 다른 남성에게 한눈팔지 않고 남편만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읽은 두 문장은 간략하지만 남녀 주인공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의 성격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작품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루왕(蓋婁王)이 그 소문을 듣고 도미를 불러 말했다.

“부인의 덕(德)은 굳은 정조와 깨끗한 행실을 최고로 친다. 하지만 그런 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으스스한 곳에서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드문 법이다.”

도미는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만, 제 아내라면 죽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개루왕은 백제의 제4대 왕입니다. 128년부터 166년까지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또 행실이 바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개루왕은 백제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죠. 평민 여성을 유혹하는 일을 아주 쉬운 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왕조 시대에 평민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개루왕은 도미를 불러 놓고 ‘내가 네 아내를 유혹할 것이다, 아무리 남편에 대해 의리가 있고 행실이 바른 여성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권력자가 좋은 말로 유혹을 하면 넘어오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도미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제 아내는 죽어도 임금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도미는 자기 아내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은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깊어야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도 생겨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미는 자기 아내가 유혹에 넘어갈 리 없다고 말했지만, 개루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도미의 아내를 유혹해 보기로 합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시험해 보려고 도미를 다른 일로 궁궐에 머물러 있게 했다. 그러고는 측근인 신하를 왕으로 꾸몄다. 신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시종을 따르게 하여 밤에 도미의 집으로 가게 했다. 도미의 집에는 사람을 미리 보내 왕이 온다고 알려지게 했다.

어떻습니까? 개루왕의 계획이 치밀하죠? 개루왕은 우선 도미의 아내가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하를 왕으로 분장시켜서 도미의 아내를 유혹해 보게 한 거죠. 도미가 이런 계획을 알면 방해가 될까봐, 개루왕은 도미를 궁궐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다고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개루왕으로 분장을 한 신하는 도미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도미의 아내는 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으로 꾸민 신하는 도미의 아내에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네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네 남편과 내기를 해서 너를 얻었다. 내일 너를

궁궐로 들어 궁녀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네 몸은 내 것이니 그리 알라.”

마침내 도미의 아내를 유린하려 하자 도미의 아내는 말했다.

“국왕께서 허튼 말씀을 하실 리 없으니 제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드십시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물러나와 여종에게 치장을 하게 하여 잠자리에 들여보냈다.

왕으로 분장한 신하는 도미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남편, 즉 도미와 내기를 해서 내가 이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차지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또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궁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궁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궁궐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여성을 말하죠. 궁녀는 원칙적으로 모두 왕의 여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요. 왕 이외의 남성과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루왕은 신하에게 도미의 아내를 겁탈하라고 명을 내린 것 같습니다. 도미 아내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잠자리를 함께할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권력을 가진 남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신분이 낮은 여성을 힘으로 겁탈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도미 아내는 권력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분장한 신하가 자신을 유린하려 하자, 일단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한 것이죠. 도미 아내는 왕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으니,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다음에 여종을 변장시켜서 자기 대신 들여보냅니다. 왕도 신하를 분장시켜서 도미 아내를 속이려고 했는데, 도미 아내도 여종을 분장시켜서 왕을 속였네요. 서사적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담긴 의미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도미 아내는 자신을 겁탈하려고 한 남성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도 겁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 꾀를 내서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대담한 여성이죠. 그렇다면 도미 아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미의 아내는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가 유혹을 해도, 권력을 바탕으로 엄포를 놓아도 흔들리지 않죠.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왕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개루왕은 도미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덕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개루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루왕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격노했다. 개루왕은 도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도미의 두 눈을 뽑았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도미를 끌고 가서 작은 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 보내게 했다.

어떻습니까. 참혹하지요. 개루왕은 자신이 속은 것에 분노해서 도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미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도미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거의 2천 년 전, 너무나 오랜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의 사건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삼국사기> 외에 다른 기

록에서 도미 이야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권력자의 횡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천 년 전의 왕은 아마도 절대 권력자였을 겁니다. 누구도 왕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미의 아내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왕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남편인 도미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도미나 도미의 아내는 별로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도미에게 벌을 주고 나서도 개루왕은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붙잡아 옵니다. 작품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개루왕이 도미의 아내를 붙잡아 와 강제로 능욕하려 하자, 도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 잃은 홀몸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처지에 어찌 감히 대왕의 궁녀가 되는 것을 거스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월경 중이라 몸이 깨끗하지 않으니 며칠 뒤로 미뤄 주시면 향기로운 물에 목욕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개루왕은 그 말을 듣고 허락했다.

도미는 이제 참혹한 형벌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죠. 개루왕은 욕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미 아내를 잡아와서 궁녀로 만들고 능욕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미의 아내는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지금 자신의 몸이 깨끗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이 상황을 모면한 겁니다. 도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곧바로 달아나 강어귀에 이르렀지만,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그때 문득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흘러오는 것이 보였다. 도미의 아내가 올라타자 배는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렀다. 그곳에 남편이 있었다. 도미는 풀뿌리를 캐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땅인 산산(蒜山) 아래에 도착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도미 부부를 애처롭게 여겨 옷과 음식을 주었다. 두 사람은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며 살다가 객지에서 생을 마쳤다.

도미 아내는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능욕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도망칠 결심을 한 거겠죠. 도미 아내는 도망쳐 나와서 강가에 이르렀는데요.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도미 아내는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강가에 있다가는 개루왕에게 다시 잡혀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배 한 척이 흘러왔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일단 배에 올라탔습니다. 가능한 멀리,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야했으니까요.

배에 올라탄 도미의 아내는 천성도(泉城島)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도미가 있었던 겁니다. 참혹한 형벌을 받아서 두 눈을 잃은 도미는 천성도에서 풀뿌리를 캐 먹으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신기한 이야기지요. 어떻게 때마침 강가에 배가 흘러온 건지, 어떻게 그 배가 도미 아내를 도미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준 건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2천 년 전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작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도미와 도미의 아내가 다시 만났죠. 정말 갖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는 다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두 사람은 고구려 땅에 도착했는데요. 백제 사람인 이들이 왜 고구려 땅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백제의 개루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 고구려로 간 것 같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지만, 백제 왕의 횡포를 피해서 고구려로 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는 고구려 땅인 산산(蒜山)에 이르렀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도미 부부를 애처롭게 여겨서 옷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도와주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도미 부부의 삶이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미 부부는 근근이 목숨을 이어갔다고 하지요. 그리고 결국 백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백제 왕의 횡포를 피해서 고구려로 갔지만, 이들의 삶은 피난 후에도 고단했습니다. 이 점이 더 여운을 남기는데요.

도미 부부는 권력자의 횡포를 이겨내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작품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로 피난을 갔지만 평민이었던 도미 부부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도 도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정절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을 겁니다. 도미의 아내는 왕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삼국시대 평민의 삶을 일깨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권력이 없는 평민의 삶은 고단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도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 5. 요약 및 정리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역사 속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세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작품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수로왕과 허왕후>였습니다. 금관가야를 건국한 수로왕과 그의 아내인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왕비가 된 허왕옥이라는 여성이 아주 당차고 신중한 여성으로 묘사되었지요? 저는 이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로왕과 허왕후는 가야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국가를 함께 통치하는 왕과 왕비로 그려졌는데요. 이 부부는 동반자로서의 면모가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작품은 <수이전>에 실려 있는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였습니다. 이 작품은 신라의 여왕과 평민 남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지귀의 격정적인 사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이 되어 자신의 몸을 태우고 결국 불귀신이 된 지귀 이야기였는데요. 선덕여왕의 지귀에 대한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작품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도미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도미 부부는 백제의 평민이었죠. 백제 왕은 도미의 아내를 탐했는데요. 권력자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을 지킨 도미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단한 평민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

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여러 편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로 알고 있는 이야기도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요. 고구려의 공주와 평민 남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공주가 별로 보잘것없는 평민 남성인 온달에게 시집을 가서, 온달을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오늘 강의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삼국시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 이야기 두 편과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세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수로왕과 허왕후> 이야기에서 수로왕은 아유타국 공주를 왕비로 삼았다. (O/X)

정답: O

2.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는 <수이전>(殊異傳)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었다.  
(O/X)

정답: O

3. <도미 부부>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O/X)

정답: X

4. <도미 부부> 이야기에서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 밤에 도미 집으로 갔다.  
(O/X)

정답: X

5. 세 이야기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들이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수로왕과 허왕후> 이야기에서 두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로왕은 망산도(望山島)에서 신하들과 함께 허황옥이 타고 온 배를 맞이하였다.
- ② 수로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한 사람이므로 배필을 맞이할 때를 알고 기다렸다.
- ③ 허황옥은 꿈을 통해 하늘의 계시를 받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가락국으로 향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에서 두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귀는 영묘사에 향을 사르러 가던 선덕여왕을 우연히 보고 여왕의 미모에 반했다.
- ② 선덕여왕은 탑 아래에서 잠든 지귀의 가슴 위에 자신의 팔찌를 올려두고 돌아갔다.
- ③ 선덕여왕과 직접 만날 기회를 놓친 지귀는 결국 탑을 다 태우고 불귀신이 되었다.

정답: ①

3. 다음 중 <도미 부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으로 분장한 신하는 도미 아내를 유혹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② 개루왕은 도미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미의 두 눈을 뽑았다.
- ③ 도미 아내는 천성도(泉城島)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남편과 재회하여 함께 도망쳤다.

정답: ③

4. 다음 중 세 이야기 나오는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로왕과 허왕후는 혼인 후 함께 금관가야를 건국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② 선덕여왕은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술사를 시켜서 주문을 짓게 했다.
- ③ 도미는 자신의 아내가 개루왕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정답: ①

5. 다음 중 세 이야기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은 동반자로서의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 ② 불귀신이 되어도 지귀의 열정적인 사랑은 신라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
- ③ <도미 부부> 이야기는 삼국시대 평민의 삶을 일깨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답: ②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삼국유사> 속의 <○○○○>라는 역사기록에 가야를 세운 김수로와 허황옥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정답: 가락국기

2. <대동운부군옥>에는 선덕여왕과 지귀의 사랑 이야기의 제목이 '○○○○'이라고 되어 있다.

정답: 심화요탑

3. 도미 부부는 ○○ 왕의 횡포를 피해서 ○○○로 간 후에도 고단한 삶을 보냈다.

정답: 백제 - 고구려

### 나. 토의 (30분)

1. <수로왕과 허왕후>,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도미 부부>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2. 사랑의 결말에 따라 세 이야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다. 과제 (60분)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와 <도미 부부> 이야기에는 평민 인물을 대하는 권력자 인물의 태도가 상반되게 그려지고 있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두 이야기 중 한 편을 골라, 각 이야기에 나타난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본인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 참고자료

박희병·정길수 편역,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돌베개, 2013.

이대형 편역, 『수이전』, 소명출판, 2013.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 솔, 1997.

『삼국유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삼국사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김해 수로왕릉 ([문화재청 소개 보기](#))

KBS 스페셜 - 가야의 역사에서 신비롭게 여겨지는 ‘김수로 혼인 설화’ ([영상 보기](#))

## <2차시>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

### ■ 학습목표

1. 이승의 인간과 저승의 귀신 사이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감상한다.
2. <수삽석남>, <하생기우전>, <만복사저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3. <수삽석남>, <하생기우전>, <만복사저포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죽음을 초월한 사랑 1 - <수삽석남>
3.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1
4.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2
5. 귀신과의 사랑 - <만복사저포기>
6.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사랑, 그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승에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문학작품 속에서 사랑은 꼭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개봉되었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봉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되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영화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남자 주인공이 영혼이 되어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 곁을 맴돈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의 영혼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은 너무나도 절절하게 그려지는데요. 이러한 애절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이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 이야기,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한국 고전문학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두 편과 귀신과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는 <수삽석남>(首插石柙)과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이라는 소설이고요.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국 고전 서사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세 작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읽고, 이 작품들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작품들이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죽음을 초월한 사랑 1 - <수삽석남>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작품은 <수삽석남>(首插石柙)입니다. <수삽석남>이라는 제목은 “머리에 꽂은 석남 꽃가지”라는 뜻입니다. <수삽석남>은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이라는 책에 실려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은 일종의 백과사전입니다. 조선 후기에 권문해(權文海)라는 사람이 편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은 한반도에 1392년에 건국되어서 1910년까지 지속된 나라입니다. 권문해는 <수삽석남> 이야기가 원래 <수이전>(殊異傳)에 실려 있었다고 밝혀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이전>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소설집(小說集)입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기원후 935년까지 천 년 정도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인데요.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수이전>을 소설집이 아니라 설화집(說話集)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이전>이라는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이전>에 실려있었던 작품 중에 몇 작품만이 <대동운부군옥> 같은 후대의 책에 흩어져서 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책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이전>을 누가 지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동운부군옥>의 편찬자 권문해의 말을 통해서 <수삽석남> 이야기가 본래 <수이전>에 실려있었던 이야기라는 점과, 신라 시대부터 전해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수삽석남>은 분량이 짧고 내용이 상당히 간략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삽석남>을 연구자에 따라서 소설로 분류하기도 하고 설화(說話)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삽석남>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사람 최항은 자(字)가 석남(石柙)이다. 최항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가 금지하여 몇 달 동안 만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항이 갑자기 죽었다.

<수삽석남>의 주인공은 최항이라는 남성입니다. 신라 시대 사람이고요. 최항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항의 부모가 아들의 사랑을 반대합니다. 무슨 이유로 사랑을 반대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항은 부모의 반대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별의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갑자기 죽고 말았다니, 슬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수삽석남>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지 8일 후 최항이 밤중에 여인을 찾아갔다. 여인은 최항이 죽은 줄 모르고 뭇 듯이 기뻐하며 맞이했다. 최항은 머리에 꽂고 있던 석남 꽃가지를 여인에게 나눠 주며 말했다.

“부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사는 걸 허락해 주셔서 왔소.”

최항은 여인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최항이 먼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 밤이 새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최항은 이미 죽었는데, 8일 뒤에 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항의 연인은 최항이 죽은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찾아간 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최항의 모습으로 나타난 남성은 여인에게 석남 꽃가지를 나누어 줍니다. 석남은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흰색이나 자주색, 또는 비취색의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꽃송이가 모란처럼 크고 예쁘다고 합니다.

석남 꽃가지는 아마도 사랑의 증표였던 것 같습니다. 최항의 모습으로 나타난 남성은 부모님이 우리가 함께 사는 걸 허락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요. 최항의 모습을 한 남성은 집안으로 들어간 뒤에 밤새도록 나오지 않습니다. 연인을 집 밖에 홀로 두고 나와보지 않았다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최항 집안의 사람이 나와서 여인을 보고는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다. 여인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집안사람이 말했다.

“항이 죽은 지 8일이 되어 오늘 장례를 지내려 하는데 무슨 괴이한 말인가?”

“낭군께서 머리에 꽂고 있던 석남 꽃가지를 제게 나눠주셨으니, 이게 증거가 될 겁니다.”

최항 집안의 사람이 집 밖에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미 최항이 8일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인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지난 밤에 최항이 자신을 찾아와서 석남 꽃가지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인이 본 최항은 귀신이었던 걸까요? 여인은 최항이 준 석남 꽃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꽃이 최항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관을 열어 보니 시신의 머리에 석남 꽃가지가 꽂혀 있고, 옷은 이슬에 젖었으며, 발에는 신발이 신겨 있었다. 여인은 최항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다가 혼절하려 했는데 그때 최항이 다시 살아났다. 그 뒤 두 사람은 20년 동안 해로하고 생을 마쳤다.

집안 사람은 여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최항의 관을 열어봅니다. 죽은 최항이 나타나서 석남 꽃가지를 주었다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관을 열어 보니 시신의 머리에도 석남 꽃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최항의 시신을 관에 넣을 때는 없었던 꽃가지입니다. 그리고 최항의 시신에 입혔던 옷이 젖어 있었고, 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항이 다시 살아나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옷에 밤이슬을 묻혀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최항은 살아나서 움직였던 겁니다. 최항은 다시 살아나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생전에는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살아난 최항은 여인과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항과 여인은 죽는 날까지 사랑하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수삽석남> 이야기는 기이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진실한 사랑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최항은 부모의 반대로 사

랑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최항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을 사랑하는 최항의 마음은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최항을 다시 살게 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결국 죽음을 초월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수삽석남>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 3.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1

다음으로 감상해 볼 작품은 신광한(申光漢)의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입니다. 우선 이 소설의 작가 신광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광한은 조선 초기의 양반사대부입니다. 호가 기재(企齋)이고요. 1484년에 태어나서 1555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숙주(申叔舟)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참여했던 신하 신숙주 말입니다. 신광한은 바로 신숙주의 손자입니다. 신광한은 이렇게 조선 초기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신광한은 한시를 잘 지어서 중국에서 온 사신과 시를 주고받는 관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났던 신광한은 <기재기이>(企齋記異)라는 소설집을 창작했는데요. <기재기이>에는 모두 4편의 소설이 실려있지만, 오늘은 그중의 한 편인 <하생기우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생기우전>이라는 제목은 “하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의 기이한 만남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인데요. 하생이 어떤 기이한 만남을 가졌는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이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생기우전>의 시작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하생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작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려 때 하생(何生)이란 사람이 평원(平原)에 살았다. 대대로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지냈다. 혼인하고 싶었지만 딸을 주려는 집이 없었고, 가난해서 혼자 먹고살기도 버거웠다. 그러나 하생은 풍채가 대단히 좋고 재주가 빼어나서 마을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칭찬이 자자했다. 고을 사또는 하생의 명성을 듣고 태학(太學) 학생으로 추천하였다.

<하생기우전>은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에 세워졌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남자 주인공 하생은 평원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원은 지금의 북한 평안남도에 속한 고을입니다. 평양에서 가까운 곳이지요. 하생의 집안은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한미한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무척 가난했습니다. 한미한 집안 출신에 부모도 안 계시고, 가난하기까지 한 하생을 사위로 삼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생이 이런 조건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생은 인물이 좋고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생은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하생의 글재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원 사또가 하생을 태학(太學)의 학생으로 추천했겠죠. 태학은 고려의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발된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하생은 고향을 떠나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가서 태학에 다니게 됩니다. 태학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글재주를 겨루어보니 자신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생의 글재주가 아주 대단했

던 것이죠. 하생은 당연히 과거에 급제해서 부귀와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서 인재 등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담한 하생은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갑니다. 점술가는 하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는 분명히 누리시게 되어 있군요. 다만 오늘 운이 몹시 불길합니다. 명이(明夷)가 가인(家人)으로 가는 점괘예요. ‘명이’라는 것은 밝은 빛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象)이고, ‘가인’이라는 것은 정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는 상입니다. 어서 도성 남문으로 나가서 해가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액땜을 할 뿐 아니라 좋은 배필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점술가의 말은 하생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점술가의 점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이 점괘에 들어 있습니다. 하생은 점술가의 말대로 도성을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환하게 뜬 밤에 하생은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산속에서 집을 한 채 발견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집 안에는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미녀가 앉아 있었는데요. 이 미녀는 한숨을 쉬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읊습니다. 하생은 이 여인을 몰래 지켜봅니다.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 여인은 어젯밤에 멋진 선비를 만나게 되리라는 꿈을 꾸었는데, 그 멋진 선비가 오신 것일까라고 말합니다. 하생은 여인의 말을 듣고 점술가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어두운 밤에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입니다.

하생은 여인에게 하룻밤 재워줄 것을 청합니다. 여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하생을 맞아줍니다. 하생은 여인의 집에 이르게 된 사정을 자세히 말하는데요. 하생이 점술가의 말을 듣고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하자, 여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점술가의 말을 믿고 액운을 피해 이리로 왔으니 오늘의 만남은 참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인도 점술가의 말에 따라 이곳에 왔다고 말하다니,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생과 여인의 기이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점술가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하생과 여인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합니다. 한국 고전소설, 그중에서도 한문으로 창작된 애정소설에는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 애정 소설에서 한시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생기우전>을 소개하면서 하생의 글재주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었지요? 하생은 글재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시를 지어 여인에게 보냅니다. 하생의 시에는 여인과 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생은 “밤새 애간장 끊으며 외로이 잠드나니, 양대(陽臺)로 가는 길 없음을 슬퍼하노라”라는 시를 썼는데요. 여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애가 끊어질 듯이 슬퍼하다가 외로이 잠들 것이라고 썼습니다.

‘양대’라는 말은 한국 고전문학을 읽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관련된 고사(故事)가 있는 말입니다.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옛날 중국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양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꿈에 무산(巫山)의 여신을 만나 남녀 간의 정을 나누었는데요. 이후로 양대는 남녀 간의 애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생은

시에서 양대로 가는 길이 없어 슬퍼한다라고 썼는데요. 회왕과 무산 여신이 양대에서 사랑을 나누었듯이, 자신도 여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여인은 “달을 기다려 밤늦도록 창문을 열어두었거늘”이라는 시 구절을 하생에게 보내 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다는 말은 바로 지금, 늦은 밤에 열린 창문을 통해 나를 찾아오세요 라는 의미죠. 하생에게 자신을 찾아오라는 내용의 시를 보낸 것입니다.

하생은 여인의 방을 찾아갑니다. 여인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미 인연이 닿았으니 피할 수 없군요”라고 말하면서 하생과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함께 잠자리에 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남녀가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함께 한 뒤, 새벽에 여인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侍中)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사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어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좋은 벼슬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에게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이 몹시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는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 혼자 아버지 곁에 남아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금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 여인은 사실 귀신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죽은 여인의 혼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귀신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왔던 점술가의 예언이 꼭 들어맞았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점술가는 하생에게 명이가 가인으로 가는 점괘가 나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명이’는 밝은 빛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이고, ‘가인’은 정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는 상이라고 말해주었는데요. 하생이 밝은 인간 세상에서 어두운 땅속의 귀신 세상으로 가서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을 만났으니까 점괘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여인이 죽음에 이른 사정을 살펴봅시다. 여인은 시중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시중은 고려시대에 가장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首相), 또는 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여인의 아버지는 고려의 높은 벼슬을 역임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들에 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권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겠지요. 이런 죄를 지은 여인의 아버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바로 자식들이 모두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형벌이고 고통입니다.

하생이 만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일찍 죽은 여인의 혼령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이승으로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절하고 물러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여인은 믿기 어려운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바로 옥황상제가 자신에게 환생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인의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 없이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해준 일도 있었기에 옥황상제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로 합니다. 사흘 전에 죽은 여인을 다시 살려주기로 한 것이죠. 여인은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산속에 있는 이 집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하생을 만나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 4.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2

<하생기우전>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은 하생과의 만남, 그리고 사랑을 운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주신 환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하생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은 하생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생 역시, 여인과의 사랑을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생은 여인의 말을 믿고 여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생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사랑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여인은 환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하생에게 금척(金尺), 즉 금으로 만든 자를 주면서 큰길에 나가 이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생은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이 장면을 <하생기우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생이 문 밖으로 몇 걸음을 나가 뒤돌아보니 갓 만든 무덤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하생은 서글피 눈물을 닦으며 걸었다.

하생이 그 집의 문을 나와 뒤돌아보니 집은 없고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중의 딸을 묻은 무덤이었습니다. 하생은 귀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인간 세계로 돌아온 하생은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길로 나가 금척을 꺼냅니다. 큰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금척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어서야 금척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금척은 사실 시중의 딸을 장사지낼 때 무덤에 함께 묻은 물건이었습니다. 시중 집안의 사람이 금척을 알아보고, 수상하게 생각해서 하생을 끌고 갑니다. 하생이 시중 딸의 무덤을 파헤쳐 금척을 훔쳤다고 오해한 것이죠. 시중의 집으로 끌려간 하생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시중은 하생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딸의 무덤으로 갑니다. 시중이 하생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죽어서 장사지낸 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딸의 무덤에 도착한 시중은 무덤을 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의 딸은 살아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에 온기도 조금 있었구요. 시중은 딸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질 무렵에 딸이 깨어났습니다. 옥황상제가 약

속을 지켜 시중의 딸을 환생하게 해 준 것입니다. 시중의 딸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시중은 잔치를 열어 하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시중의 딸은 부모에게 하생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합니다. 하생에 대한 사랑을 부모에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시중은 하생의 집안이 한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니, 이 일을 이유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 같소. 그래서 나는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고 끝냈으면 하오.”

하생과 시중의 딸은 죽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운명으로 여기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은 딸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도 넘어서 사랑은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인의 아버지, 시중이 만든 장애였습니다. 시중은 딸의 마음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소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생의 집안이 고귀한 자신의 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근대 시기에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가문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생의 집안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시중은 자신의 딸을 하생에게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아들 다섯이 일찍 죽는 별을 받을 만큼 시중이 부정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딸은 아버지가 하생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중의 행동은 하생의 은혜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생이 아니었다면 시중의 딸이 환생할 수 있었을까요? 하생이 여인에게서 금척을 받아 이승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도굴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가면서 여인의 사정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행동은 모두 하생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딸의 목숨을 다시 살려준 하생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집안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하생과 딸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된 여인은 당장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간곡하게 표현한 시를 지어 부모님께 올립니다. 이 시의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밝은 달 떠오른 밤 / 사랑하는 님을 만나 / 사랑의 맹세 굳게 맺고 / 평생을 약속했답니  
다 / 서로의 마음 허락하여 / 한 몸으로 생사를 함께하자 했지요.”

시중의 딸은 자신과 하생이 굳게 사랑을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또 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시여 / 지금부터 이제 /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 자식을 편안하게 해 주세요  
요 / 어찌 운명을 거역하시며 / 제 마음을 몰라 주시나요.”

시중의 딸은 부모님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신과 하생의 사랑, 그리고 하생 덕분에 자신이 환생한 것은 모두 운명인데, 운명을 거역하면서 자신과 하생의 사랑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지요. 시중의 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습니다.

“이리될 줄 알았다면 / 살아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 공강(共姜)의 혼령 있으리니 / 그 손잡고 함께 갈까 해요.”

시중의 딸은 이 시를 통해 결연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생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환생하지 말고, 그대로 죽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강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백주>(柏舟)라는 시를 지은 중국 춘추시대의 여성인데요. 남편이 죽은 뒤에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수절하려고 했습니다. 공강이 수절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백주>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딸은 공강이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수절했던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하생과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공강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는 말은, 이미 죽은 공강의 혼령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곧 자결하겠다는 말이죠. 여인은 하생과 혼인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딸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된 시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생과 딸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딸과 하생의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혼인하게 된 하생과 여인은 너무도 기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과 하생이 전생(前生)에도 부부였고 현생(現生)에도 부부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죽어 혼령이었을 때를 전생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미 전생에서도 사랑을 이룬 것이 됩니다. 여인이 환생해서 현생에 다시 태어난 뒤에도 사랑을 이루었으니, 여인의 말대로 전생과 현생에서 모두 사랑을 이룬 셈이 됩니다.

혼인한 뒤에 하생 부부는 서로를 지극히 공경하고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다음 해에 하생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게 됩니다. 하생과 시중의 딸은 40여 년을 함께 살면서 아들 둘을 두었고, 아들들은 모두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생기우전>에서는 하생과 여인의 사랑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생이 산속의 집에서 귀신이었던 여인을 만난 일, 하생과 여인이 사랑에 빠진 일, 여인이 하생의 도움으로 환생한 일, 또 아버지의 반대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혼인하게 된 일, 이 모두가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생기우전>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생기우전>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생은 여인과 정혼하던 날 예전의 그 점술가를 찾아가 보았으나, 점술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점집을 옮긴 뒤였다고 한다.

하생은 여인과의 혼인이 결정되었던 날, 예전의 그 점술가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려준 점술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던 것일까요? 어쨌든 <하생기우전>은 점술가가 예언했던 하생의 운명이 현실이 되는 것으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귀신과의 사랑을 이루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 <하생기우전> 잘 감상해보셨나

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는 작가 신광한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하생은 재주와 실력이 뛰어났지만, 태학의 학생으로 있을 때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인재 등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멋대로 정치를 했던 것이죠.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의 딸은 아버지가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그 별로 요절하게 된 것입니다.

시중은 딸이 환생해서 돌아온 뒤에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생 덕분에 딸이 환생했지만 시중이 그 은혜를 갚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죠? 하생의 가문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딸과 하생의 결혼을 반대한 것이 그 사건입니다. 아마도 시중은 딸을 다른 권력자의 가문에 시집보내서, 즉 정략결혼을 시켜서 자기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중은 당시의 권력자들이 가졌던 부도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생은 능력이 있지만 가문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권력자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세하지 못했던 젊은 선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광한은 당시의 정치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또 권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생기우전>이라는 소설을 통해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허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환생시켜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 즉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인 <하생기우전>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 5. 귀신과의 사랑 - <만복사저포기>

다음으로는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소설인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의 문인인 김시습(金時習)이 지었습니다. 김시습은 1435년에 태어나서 14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시습은 <금오신화>(金鰲新話)라는 소설집을 창작했는데요. <금오신화>에는 모두 다섯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시습은 한국 고전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김시습과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사저포기>라는 제목은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樗蒲) 놀이를 한 일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제목의 뜻을 알고 나니 만복사는 어디에 있는 절인지, 저포 놀이란 무엇인지, 왜 저포 놀이를 한 일을 기록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 의문들을 하나씩 해소해 보겠습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원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아직 미혼인 채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니 가련도 하지 /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양생은 양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생은 남원에 있는 만복사라는 절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사는 전라북도 남원시 기린산에 있었던 절입니다. 고려시대에 문종(文宗)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복사는 매우 큰 규모의 절이었지만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의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만복사 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다행히 보시는 대로 오층석탑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만복사저포기>는 바로 이 만복사라는 절을 배경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공 양생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사는 고독한 남성입니다.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연인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생은 봄날 밤에 자신의 고독함을 시로 읊조립니다. 봄은 원래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특징이 있죠. 한국어에 ‘봄을 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으로 인해서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기분이 들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젊은 남녀들은 봄이 되면 들뜬 마음에 괜히 더 연애가 하고 싶어진다고 하지 않나요?

봄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옛날 어느 때에 살았던 양생도 봄이 되자 외로움을 더욱 격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이 환하게 뜬 봄날 밤에 혼자 창가에 누워 고운 님의 피리 소리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의 시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양생은 내 인연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며 바둑알로 점을 쳐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생은 외로운 남성입니다.

그리고 양생이 시를 읊고 났을 때, 공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양생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양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봅시다. 바로 만복사 옆이었지요. 양생이 시를 읊자 대답을 해 준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양생은 만복사 불상(佛像)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樗蒲)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지해 주셔서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하옵니다.”

양생은 참으로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과 내기를 해서라도 연인을 얻고 싶어 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만복사 터에 남아있는 석조(石造) 불상의 사진입니다. 한국의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양생이 이 불상을 향해서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의하면 만복사에는 금동으로 만든 아주 커다란 불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금동 불상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복사 불상 사진을 보시면서 양생의 행동을 한 번 상상해 보시죠.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합니다. 저포 놀이가 정확하게 어떤 놀이였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 놀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포 놀이는 윷놀이와 비슷한 놀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윷놀이는 일종의 보드게임이지요. 저포는 윷놀이처럼 나무로 만든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말을 옮겨가며 승부를 다투는 놀이였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선 말기의 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그린 풍속화인데요. 윷놀이 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포 놀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해서 이깁니

다. 그리고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서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그때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은 하늘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불상에 절을 한 다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당하였습니다. (….)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閨房)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했습니다.”

여인은 왜구가 침략해서 전쟁이 났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던 집은 불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은 가진 것을 전부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폭력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인은 그때 전란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정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지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인은 성폭력이라는 무도한 재앙을 피해 정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합니다. (….) 바라옵나니 부처님이 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도 알고 보니 부처님께 소원을 빌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왜구의 위협으로부터 정절을 지켰다고 말했었지요. 여인의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옳게 여겨서 외진 풀밭에 여인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귀한 딸의 거처를 외진 풀밭에 만들어주었다니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외떨어진 집에서 3년이나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혼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헛되이 흘러가는 세월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인연을 점지해 기쁨을 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여인도 실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어 있던 양생은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양생에게 사랑의 열정이 솟구칩니다. 양생은 이 여인이 바로 부처님이 점지해 준 연인임을 알아했습니다. 양생은 여인에게 말을 걸고, 양생과 여인은 결국 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인 또한 양생과 인연을 맺은 뒤에, “부처님이 도우셔서 좋은 님을 만나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인 또한 양생을 부처님이 점지해 준 연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양생과 여인은 이렇게 사랑을 맺습니다. 양생은 여인이 대접한 술이 인간 세계의 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인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양생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지만, 양생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생과 여인은 개녕동(開寧洞)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양생은 개녕동에 있는 여인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무는데요. 여인은 양생을 돌려보내기에 앞서, 개녕동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양생에게 소개합니다. 이웃들은 모두 여인의 친척 여성들입니다. 전부 성품이 온화하고 자태가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척 여성들과 양생은 모두 한시를 한 편씩 짓습니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사대부와 같은 식자층(識字層)들은 누군가를 전송할 때 한시를 써 주곤 했습니다. 이런 시를 전별시(餞別詩)라고 하지요. 네 명의 친척 여인들은 각자 한시를 한 편씩 짓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들은 혼자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나 님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친척의 시에는 “젊은 나이에 박명(薄命)해 눈물이 글썽”이라는 구절도 들어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이별하면서 양생에게 은그릇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이 보련사(寶蓮寺)에서 제게 밥을 주실 거예요.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인의 부모님은 왜 보련사라는 절에 가서 여인에게 밥을 주는 것일까요? 작품을 계속 읽어보지요. 양생은 다음날 여인이 준 그릇을 들고 길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상(大祥)을 지내러 보련사로 향하는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상이란 사람이 죽은 지 2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대상을 지내러 가던 일행은 양생이 들고 있던 은그릇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상을 지내러 가던 일행은 바로 여인의 부모였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양생에게 왜 이 은그릇을 들고 있는지 묻습니다. 양생이 여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자 여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외동딸이 노락질하던 왜구의 손에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임시로 개녕사(開寧寺) 골짜기에 매장했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르게 되었소이다. 오늘이 벌써 세상을 뜬 지 2년이 되는 날이라 절에서 재(齋)를 베풀어 저승가는 길을 배움하려는 참이러오. 청컨대 딸아이와 약속했던 대로 여기서 기다렸다가 함께 절로 와 주었으면 하오.”

여인의 부모가 한 말 잘 들으셨지요? 여인은 바로 2년 전에 죽은 귀신이었습니다. 왜구가 침략해서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여인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려다가 여인은 죽고 만 것입니다. 여인이 부처님 앞에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여자는 함부로 집을 나설 수 없다는 여성 규범을 지키기 위해 여인은 왜구를 피해 도망가지 못하고 집 안에 숨어 있다가 죽음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여인의 부모는 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임시로 개녕사 골짜기에 매장했다고 했지요. 여인이 양생을 데리고 갔던 개녕동은 바로 여인이 매장되어 있던 외진 산골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개녕동에서 양생이 만났던 친척 여인들 또한 왜구의 침략 와중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의 혼령이었던 거죠.

이제 양생은 여인이 2년 전에 죽었다는 것, 자신이 만난 여인은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양생은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양생에게 여인은 다만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생은 여인이 오기를 기다려서, 여인의 손을 잡고 보련사로 갑니다. 물론 보련사에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양생의 눈에만 보일 뿐입니다. 그날 밤 여인은 양생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며칠 전 절에서 소원을 빌고 불전(佛殿)에 향을 사르며 제 기구한 일생을 한탄하던 중에 문득 삼세의 인연을 이루게 되었어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나무 비녀를 꽂고 백 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음식 시중과 옷시중을 들며 평생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넘을 수 없군요. 기쁨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슬픈 이별이 눈앞에 이르렀어요. (….) 지금 이별하고 나면 다시 만나긴 어렵겠지요. 이별할 때가 되니 너무도 서글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황량한 들판에 버려진 채 살다가, 우연히 양생을 만나 끌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생에 대한 사랑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인의 양생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오직 양생만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양생의 아내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에 죽은 여인의 혼령이 양생을 사랑했던 겁니다.

전근대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만 2년 동안 죽은 사람에 대한 상례를 행했습니다. 좀 전에 오늘이 여인의 대상(大祥) 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오늘은 여인의 상례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여인의 혼령은 더 이상 이승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인의 혼령은 이제 저승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양생은 슬픈 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인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결국 울면서 이승을 떠났습니다.

양생은 이제야 여인이 귀신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양생은 여인과 함께 지내던 개녕동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과연 임시로 만들었던 여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양생은 여인의 무덤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문(祭文)을 지어 읽으면서 여인의 혼령을 위로했습니다. 양생이 지은 제문에는 여인의 삶과 사랑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따뜻하고 고왔으며, 자라서는 맑고도 순수하였소. 그대의 모습은 서시(西施)처럼 아름다웠고, 글 짓는 재주는 주숙진(朱淑眞)보다 뛰어났소.

규방(閨房)을 나서지 않고 부모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며 살다가, 전란 속에 몸을 보존하던 중 왜구를 만나 스러지고 말아, 쑥대밭에 홀로 던져져 꽃과 달을 보며 상심하였소.”

양생은 여인이 중국 월(越)나라의 미녀인 서시만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 송나라 때의 여성 문인인 주숙진보다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행실 또한 훌륭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여성 규범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여인이 전쟁 중에 정절을 지키려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생은 자신과 여인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룻밤 만남으로 우리 두 사람 마음의 실이 얽히게 되었소.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알면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함께 즐기기를 다하였소. 백년해로하자 했건만 하루 아침에 슬픔과 고통이 닥칠 줄 어찌 알았겠소? (….)

집에 들어와서는 말없이 망연자실할 뿐이요, 밖에 나가서는 멍하니 갈 곳을 모르겠소. 그대 영혼 앞에 서니 흐르는 눈물 감출 수 없고, 술 한 잔 따르자니 더욱 아프오.”

양생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알았지만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인과 양생의 사랑은 가벼운 우연 같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실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이별한 뒤 양생은 그 상실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망연자실하고 멍하게 있을 뿐입니다. 양생은 또 무덤 앞에 서 있으니 여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여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여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양생은 이제 여인의 혼령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여인을 위해 여러 번 제사를 지내서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혼령을 달래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의 정성을 입어 다른 나라에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방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 없군요.”

여인은 양생이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준 덕에 윤회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또 여인이 생전에 훌륭한 삶을 살았기에 그 보답으로 윤회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양생의 사랑은 여인의 윤회를 가능하게 할 만큼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 윤회를 했지만, 이승에 남겨진 양생의 삶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만복사저포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양생은 이후 혼인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는데, 그 뒤에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다.

양생은 처음부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양생은 이러한 처지 때문에 혼인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아에게 딸을 시집보내려는 부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생은 부처님께 연인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귀신이었지만, 양생에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한 단 한 사람이 바로 그 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생에게 귀신 여인은 단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생은 여인의 혼령이 저승으로 완전히 떠나버린 뒤에도, 다른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양생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면서 혼자 쓸쓸히 살았습니다. 양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이렇게 쓸쓸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 6. 요약 및 정리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두 번째 시간에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주제로 한 한국 고전문학 작품 세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어 본 세 작품은 신라 시대의 소설집인 <수이전>에 실려 있었다고 전해지는 <수삽석남>, 조선 초기에 신광한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 <하생기우전>, 역시 조선 초기에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 <만복사저포기>입니다.

먼저 <수삽석남>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수삽석남>이라는 제목은 “머리에 꽃은 석남 꽃가지”라는 뜻입니다. 남자 주인공 최항이 부모의 반대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죽은 뒤에 환생을 하여 연인과 다시 사랑을 이루고,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의 이

야기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석남 꽃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환생한 최항이 관을 빠져나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전해 주고 온 것이 바로 석남 꽃가지였습니다. 여인은 석남 꽃가지를 증거로 결국 최항이 환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되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삽석남>은 죽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생기우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생이라는 남성의 기이한 만남에 관한 소설입니다. <하생기우전>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여성이 환생을 하여, 자신의 환생을 도와준 하생과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하생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여인의 환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생이 처음 만난 여인은 죽은 지 며칠 지난 귀신이었지만, 하생의 진실한 사랑이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생과 환생한 여인은 혼인하여 오래도록 함께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생기우전>의 남녀 주인공은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을 이루고 해피엔딩을 맞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복사저포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선 남자 주인공 양생이 부처님과 내기를 한다는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저포 놀이에서 진 부처님이 외로운 양생에게 연인을 점지해준다는 설정이 재미있지요. 그러나 양생이 사랑하게 된 여인은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양생은 정절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혼령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삽석남>이나 <하생기우전>은 죽었던 연인이 환생을 하여, 결국 이승에서 사랑을 완성한다는 설정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만복사저포기>에서 환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자 여자의 혼령은 결국 저승으로 떠납니다. 고아였던 양생은 여인의 혼령이 저승으로 떠난 뒤에 다시 또 혼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로운 양생입니다. 양생은 귀신과 사랑에 빠지며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영원히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인과의 짧았던 만남은 행복했지만, 그 뒤에는 기나긴 이별만이 남았습니다. 양생의 사랑은 아주 절실했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수삽석남>(首插石柵)의 주인공 최항은 생전에는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살아나 결국 사랑을 이룬다. (O/X)

정답: O

2.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의 주인공 하생은 인물이 좋고 재주가 있으며 명문가 출신이다. (O/X)

정답: X

3.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는 권력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O/X)

정답: O

4.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서 여인이 양생에게 준 은그릇은 양생이 진실을 알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O/X)

정답: O

5.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속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수삽석남>(首插石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삽석남(首插石柵)’이라는 제목은 ‘머리에 꽂은 석남 꽃가지’라는 뜻이다.
- ② 작품 속에서 석남 꽃가지는 최항과 여인 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 ③ 본래 <수이전>(殊異傳)에 실려 있던 이야기로, 조선후기 권문해(權文海)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2. 다음 중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생과 여인은 점술가의 말로 인해 첫 만남을 이루게 된다.
- ② 여인은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해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일찍 죽었다가, 옥황상제의 용서를 받아 이승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는다.
- ③ 여인의 아버지는 여인이 살아나자 하생에게 고마워하며 혼인을 허락한다.

정답: ③

3. 다음 중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 양생은 부처님과 그의 저포 놀이에서 이긴 대가로 연인을 접지 받는다.
  - ② 양생과 사랑을 나눈 여인은 2년 전 왜구가 침략해 겁탈하려 했을 때 정절을 지키려다가 죽은 귀신이였다.
  - ③ 양생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귀신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놀라고 실망한다.
-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의 작가는 조선 초기의 양반사대부로 신숙주(申叔舟)의 손자인 ○○○이다.

정답: 신광한(申光漢)

2. ○○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그곳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에 무산(巫山)의 여신을 만나 남녀 간의 정을 나누었다고 하여, 남녀 간의 애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정답: 양대(陽臺)

3.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는 한국 고전문학의 대표적 작가 김시습(金時習)의 소설집인 <○○○○> 가운데 한 편이다.

정답: 금오신화(金鰲新話)

**나. 토의 (45분)**

1) <수삽석남>(首插石柙),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세 작품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그려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2)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 담긴 다양한 비판의식이 신광한(申光漢)이라는 작가와 가지는 관련성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3)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의 결말이 어떤 여운을 주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 (45분)**

<수삽석남>(首插石柙),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는 모두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이러한 공통점 속에서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해 보십시오.

■ 참고자료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수이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신광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기재기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 3차시 <한국의 애정전기 1: 이생규장전>

#### ■ 학습목표

1.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을 살펴본다.
2. 한국 고전문학의 대표적 작가 김시습에 대해 알아본다.
3. <이생규장전>에 형상화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강의 목차

- (1) 강의 개관
- (2) 애정전기란 무엇인가
- (3) 작가 김시습과 <금오신화>
- (4) <이생규장전> 1 - 이생과 최씨의 사랑
- (5) <이생규장전> 2 - 이생과 최씨의 이별
- (6)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애정전기(愛情傳奇)에 대한 첫 번째 강의이고요. 총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정전기소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전기소설은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문학에만 있는 장르는 아니고요. 동아시아 문학이 공유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漢文)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애정전기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기원은 중국 문학에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부터 3회에 걸쳐서 한국의 대표적인 애정전기소설을 깊이 있게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정전기소설은 본래 한문으로 창작된 소설이지만, 이미 현대 한국어로 모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작품들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아주 문학적인 성취가 높은 작품들로 인정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번역본도 여러 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애정전기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인 만큼, 애정전기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이자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을 감상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은 조선 초기의 문인 김시습(金時習)이 쓴 소설입니다. 김시습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함께 읽었던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의 작가이기도 하지요.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는 모두 김시습이 창작한 소설집인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려 있는 소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작가 김시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작가 김시습과 김시습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2. 애정전기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정전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전기는 애정전기소설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애정전기는 소설에 속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정전기는 한국 문학에만 있는 장르는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학이 공유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근대시기에 한문(漢文)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했던 중국, 한국, 베트남 등에서 애정전기가 활발하게 지어졌습니다.

애정전기라는 장르의 기원은 중국 문학에 있습니다. 애정전기는 소설 중에서도 ‘전기소설’(傳奇小說)에 속합니다. 애정전기에 대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전기소설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먼저 ‘전기’라는 한자어를 살펴봅시다. 전할 전(傳)자와 기이할 기(奇)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기라는 말은 ‘기이한 것을 전한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중국 당나라 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성행을 해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고, 전기소설이라는 장르가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글을 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전파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전기소설이 창작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전기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기원후 935년까지 천 년 정도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고려는 신라가 멸망할 무렵인 918년에 한반도에 세워진 나라의 이름이고요. 중국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되어서 907년까지 지속되었으니, 신라와 당나라는 같은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다고 하고, 신라의 문인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당나라에서 발생한 전기가 자연스럽게 신라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고려의 문인들도 전기소설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들이 별로 없어서 소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조선시대에 전기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어서 1910년까지 지속되었는데요. 조선 초기인 15세기부터 조선 후기인 19세기까지, 조선 시대 내내 전기소설이 창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던 <하생기우전>과 <만복사저포기>도 모두 장르적으로는 전기소설에 속하는 작품들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통해서 조선 시대에 창작된 전기소설을 여러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라는 말이 ‘기이한 것을 전한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전기소설은 이러한 명칭에 걸맞게 초현실성(超現實性), 환상성, 낭만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생기우전>과 <만복사저포기>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생기우전>과 <만복사저포기>에는 이승에 살아있는 남자 주인공이 죽은 여인의 혼령과 사랑에 빠집니다. 심지어 <하생기우전>의 여자 주인공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환생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소설에 초현실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소설의 환상성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하생기우전>의 주인공 하생은 여인의 혼령을 만난 뒤에 인간 세계가 아닌 곳을 방문하여 사랑을 나눕니다.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 양생도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서 인간 세계가 아닌 귀신의 세계를 방문했었지요. 그리고 하생과 양생은 모두 현실 세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두 작품의 이러한 면모는 전기소설이 가진 환상성을 보여줍니다.

전기소설에는 낭만성도 있습니다. <하생기우전>의 하생과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사랑에 빠질 때는 상대가 귀신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난 뒤에야 상대 여성이 혼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생이나 양생은 사랑하게 된 상대가 귀신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가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만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전기소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전기소설에는 대부분 한시가 여러 편 삽입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녀 주인공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한시를 통해 표현하곤 합니다. 또 남녀 주인공은 한시를 지어 주고받으면서 상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 역시 <하생기우전>과 <만복사저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전기소설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초현실적인 사랑, 또 비극적인 사랑을 주요한 모티프로 삼은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기소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에게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남녀 주인공 모두 젊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년기, 청춘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재능이 많고, 여자 주인공은 아름답습니다. 재능, 그중에서도 특히 글재주가 뛰어난 남성을 재자(才子)라고 하고요. 아름다운 여성을佳人(佳人)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을 보통 재자가인형(才子佳人型)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기소설의 주인공을 ‘전기적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전기적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하생기우전>의 하생과 <만복사저포기>의 양생 또한 고독했습니다. 하생과 양생 모두 부모님을 일찍 여윈 고아였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외로운 남성들이었습니다.

전기소설의 여성 주인공은 대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소설에서 애정을 주도하는 인물은 여성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애정전기소설에서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은 바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소설, 그리고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만복사저포기>,

<하생기우전>,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함께 읽어볼 <이생규장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생규장전>은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을 읽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전형적 작품과는 조금 다른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애정전기소설 몇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3. 작가 김시습과 <금오신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인 <이생규장전>을 읽기에 앞서서, <이생규장전>의 작가 김시습과 김시습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시습은 조선 초기인 1435년에 태어났고 1493년에 사망했습니다. 매월당(梅月堂) 또는 동봉(東峰)이라는 호를 썼고요. 문집으로 <매월당집>(梅月堂集)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상화 속의 인물이 바로 김시습입니다. 김시습 초상은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무량사(無量寺)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김시습은 세종대왕이 조선의 임금이었을 때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글을 잘 짓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시습은 다섯 살 때 세종대왕으로부터 글재주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은 오세(五歲)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시습의 신분은 물론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입니다만, 김시습 집안이 그리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무관(武官), 요즘으로 치면 군인 장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김시습의 조상이 고위 관직을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시습이 워낙 신동(神童)이라고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김시습은 당시의 훌륭한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시습의 생애는 별로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강릉에 있는 외가에 가서 잠시 살았다고 합니다. 스무 살 때에 무관 집안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또 김시습은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인정해 주었던 세종대왕은 김시습이 15세 되던 해인 1450년에 승하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김시습의 일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계유정난(癸酉靖難)입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면 계유정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유정난을 소재로 해서 <관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수양대군(首陽大君) 역할을 맡은 배우가 관상가(觀相家)에게 “내가 왕이 될 상(相)인가”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가 왕이 될 상(相)인가”라는 대사는 계유정난의 핵심이 담겨 있는 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장면을 한 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유정난은 계유년인 1453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세종대왕의 손자인 단종(端宗)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뒤에 세종의 아들 문종(文宗)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문종이 병에 걸려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승하합니다. 그래서 1452년에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열두 살의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요. 그러다 보니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1453년에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단종과 가까운 신하들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결국 1455년에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2년 뒤인 1457년에 유배지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일은 당시의 조선을 뒤흔든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유정난은 김시습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시습이 스물한 살 때에 계유정난이 일어났는데요.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김시습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통곡하다가 읽던 책을 모두 태우고 종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가 스님이 된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였기 때문에 스님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시습은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종이 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김시습은 종이 된 뒤에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썼습니다. 10년 정도 전국 각지를 떠돌다가 31세 때부터 7년 동안은 경주 금오산(金鰲山)에 머물렀습니다. 금오산은 지금 경주 남산이라고 불립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경주 금오산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에 살 때 용장사(葺長寺)라는 절에 거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시습이 7년 내내 용장사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용장사라는 절도 지금은 없어져서 절터와 석탑만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용장사 터의 모습입니다. 김시습은 경주 금오산 어딘가에 머물면서 소설집 <금오신화>를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이 서른세 살 되던 해인 1468년에 김시습의 인생을 뒤흔든 인물인 세조가 승하합니다. 김시습은 38세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는 세상에 순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습은 계유정난 이후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과 김시습은 불화를 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 김시습은 평생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김시습은 59세에 충남 부여에 있는 무량사에서 생을 마칩니다. 지금도 부여 무량사에는 김시습 부도(浮屠)가 남아있습니다. 김시습이 스님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김시습이 사망한 뒤에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처하던 곳이 절이기도 했고요. 김시습의 시신을 화장(火葬)한 뒤에 유골 등을 모아서 부도에 모셔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김시습 부도입니다. 부도 앞에 세워진 비석에 '오세 김시습의 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시습의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습은 양반사대부로 태어났지만 사대부로서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수양대군과 수양대군을 따르는 권력자들이 멋대로 다스리는 세상을 벗어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김시습은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 고독한 삶을 살았던 지식인입니다.

김시습은 세상과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을 문학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김시습의 삶과 마음이 반영된 문학 작품이 바로 <금오신화>(金鰲新話)입니다. 좀 전에 김시습이 30대에 경주 금오산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금오신화>는 이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시습이 몇 살 때 <금오신화>를 창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오신화>라는 제목은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에서 <금오신화>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금오신화>는 소설 모음집입니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소설들은 모두 전기소설입니다. <금오신화>에는 다섯 편의 소설이 실려있는데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이 그 다섯 편의 제목입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지난 강의에서 함께 읽어보았고, <이생규장전>은 오늘 강의에서 함께 읽어볼 것이니까요. 나머지 세 편의 소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유부벽정기>는 홍생(洪生)이라는 남성이 평양(平壤) 부벽루(浮碧樓)에서 기씨(箕氏) 여인

의 혼령을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 역시 살아있는 남성과 여성 귀신 사이의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남염부주지>는 박생(朴生)이라는 남성이 꿈속에서 저승에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박생은 꿈에서 저승사자의 부름을 받고 염라국(閻羅國), 바로 저승에 가게 되는데요. 저승에 간 박생은 염라국의 왕과 토론을 하고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설정의 소설입니다.

<용궁부연록>은 한생(韓生)이라는 남성이 꿈속에서 용궁에 다녀온 일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한생은 글재주가 뛰어났는데요. 어느 날 용왕의 초대로 용궁에 가서 글을 지어주고 진귀한 선물을 받아오는 꿈을 꾸니다. 꿈에서 깬 한생이 문득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춘다는 것이 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죠. 전기소설의 특징이 초현실성과 환상성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금오신화>에 실린 소설들은 이런 전기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함과 현실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을 초현실적인 소설을 통해 풀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생규장전>의 작가 김시습과 김시습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 4. <이생규장전> 1 - 이생과 최씨의 사랑

지금부터는 김시습이 지은 또 한 편의 애정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이라는 제목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생은 이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은 이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송도(松都)에 이생(李生)이라는 사람이 낙타교(駱駝橋) 옆에 살았다. 나이가 열여덟이었는데, 신선처럼 맑은 생김새에 빼어난 자질을 타고났다. 국학(國學)에 가면서 늘 길에서도 책을 읽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송도, 바로 지금의 북한 개성입니다. 이생이라는 젊은 선비는 개성에 있는 다리인 낙타교 옆에 살았습니다. 나이가 열여덟 살이라고 했으니, 푸릇푸릇한 청년입니다. 게다가 이생은 외모가 빼어났습니다. 신선처럼 맑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준수한 외모의 남성에게 대한 칭찬입니다. 또한 이생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글을 잘 짓는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생이 국학에 다닌다고 했는데요. 국학은 고려 시대의 국립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을 말합니다. 이 점을 통해서 <이생규장전>의 시간적 배경이 고려 시대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에 세워졌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고려의 국학은 글을 잘 짓고 공부를 잘하는 젊은 선비들이 가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던 곳입니다. 이생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에 해당하는 국학에 가면서도 길에서도 책을 읽었다고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생은 외모가 준수한 데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글을 짓는 재주가 있는 젊은 남성입니다. 이생이 바로 ‘재자’(才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생규장전>의 여자 주인공 최씨(崔氏)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생규장전>

은 최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죽리(善竹里)에는 명문가의 처녀 최씨가 살았다. 나이는 열대여섯에, 아리따고 자수를 잘 했으며 시 짓는 데에도 뛰어났다.”

최씨는 개성의 선죽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죽리는 선죽교(善竹橋) 부근에 있던 마을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속의 사진이 선죽교를 찍은 사진입니다. 선죽교라고 적힌 비석 사진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선죽교 주변이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 주변 어딘가에 최씨의 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이생규장전>을 계속 감상해 보겠습니다.

최씨는 명문가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열대여섯이라고 했으니 이생보다 두어 살 어립니다. 이생과 최씨 모두 청춘 남녀입니다. 최씨는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수를 잘 놓았다고 합니다. 솜씨가 좋은 여성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씨와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씨는 시를 잘 지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최씨는 당연히 한문으로 시를 지었을 겁니다. 최씨는 한시를 잘 짓는 여성이었던 거지요. 최씨는 젊고 아름다웠으니까佳人(佳人)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능까지 있었으니, 정말 최고의 여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생규장전>의 남녀 주인공은 이렇게 재자와佳人으로 설정이 됩니다. 애정전기소설이 재자와佳人을 주인공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생과 최씨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생이 국학으로 가는 길에 최씨의 집이 있습니다. 이생은 어느 날 국학에 가다가 최씨 집 담장 안을 넘겨다봅니다. 바로 <이생규장전>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생은 담장 안쪽에서 수를 놓고 있던 여성을 발견합니다. 이 여성이 바로 최씨인데요. 최씨는 수를 놓다가 시를 두 편 읊습니다.

“홀로 비단 창에 기대어 수놓기도 지루한데 / 꽃송이마다 피꼬리 지저귀네 / 괜히 봄바람 원망하다가 / 말없이 수놓던 바늘 멈추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네.”

“길 가는 말끔한 선비, 어느 댁 분이신지 / 파란 옷깃 넓은 띠 버드나무 사이로 어른거리네 / 내가 제비가 될 수 있다면 / 주름 헤치고 나가 담장을 넘으리.”

첫 번째 시에서 최씨는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최씨는 수를 잘 놓는다고 했었죠? 최씨는 늘 창가에 홀로 앉아서 수를 놓았던 모양입니다. 최씨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최씨의 마음을 동요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계절이 봄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어에 ‘봄을 탄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봄이 와서 사람의 기분이 들뜬다는 뜻인데요. 최씨는 봄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와서 들뜬 최씨의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를 놓다가 말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최씨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밝혀집니다. 그는 바로 최씨 집 담장 밖을 걸어가는 얼굴이 말끔한 선비입니다. 얼굴이 말끔하다는 말은 얼굴빛이 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파란 옷깃이 달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바로 국학에 다니는 젊은 선비의 복장입니다. 최씨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생이었습니다. 이생이 늘 최씨 집을 지나 국학에

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생은 종종 최씨 집 담장 밖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아마도 자기 집 앞을 지나 국학에 가는 선비 이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말끔한 용모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씨가 지은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씨는 제비가 되어서 담을 넘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씨는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생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마음대로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 이외의 남성을 만나는 일도 여성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최씨는 언제나 집 안에서 수를 놓으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최씨가 이생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새가 되어 담을 넘어서 사랑하는 이생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최씨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최씨는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대담하게 드러낼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생은 담장 밖에서 최씨가 지은 시를 모두 듣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시를 지어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남성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생은 바로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최씨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최씨의 집이 명문가라서 그 집의 담장 또한 아주 높았기 때문이죠. 대신 이생은 시를 지어서 최씨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시를 적은 종이를 기와 조각에 묶어 최씨 집 담장 안으로 던진 것입니다. 최씨는 이생이 보낸 시를 읽고 담장을 보냅니다. 최씨 또한 작은 쪽지에 몇 글자를 적어 담장 밖으로 던집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쪽지를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글을 주고받는다니 낭만적이지요?

그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씨가 던진 쪽지에는 “의심 마시고 밤에 이리로 오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은 쪽지에 적힌 말대로 밤에 최씨 집 담장 아래로 갑니다. 그랬더니 담장에 밧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 담을 넘어서 드디어 최씨를 만납니다. 이생과 최씨가 만남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도 낭만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소설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그 아름다움이 더욱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간 이생은 최씨를 만났습니다. 최씨는 이미 꽃밭 안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이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생은 최씨와의 만남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을 합니다. 이 만남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이생과 최씨는 부모님 몰래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생은 “훗날 우리의 사랑 누설되어서 무정한 비바람 맞을 테니 가련하여라”라는 시를 읊습니다. 이생은 만일 우리의 사랑이 부모님께 들려서 비바람을 맞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신다면 슬퍼서 어쩌나 하는 내용의 시를 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들은 최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최씨는 왜 굳은 표정을 지었을까요? 최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모시며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하고자 하건만, 서방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자인 저도 마음을 태연히 먹고 있거늘, 대장부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훗날 이곳에서의 일이 발각되어 부모님의 질책을 받게 된다 한들 제가 감당하겠어요.”

최씨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멋지지 않으신가요? 최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생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씨는 이생을 평생 사랑할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생은 이런 최씨의 마음도 모르고, 만약 우리가 몰래 시작한 사랑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최씨는 이생에게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씨는 내가 선택한 사랑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들켜서 질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겠다고, 내 사랑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연한 모습을 최씨는 보여줍니다. 최씨는 이생보다 두어 살 어리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더욱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생규장전>의 최씨는 사랑에 적극적이고 사랑을 주도하는 멋진 여성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최씨는 지금 있는 장소가 어머니가 계신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이어서, 어머니가 이 정원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없다고 이생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생에게 술을 권하죠. 이생과 최씨는 또 시를 주고받으며 오늘의 아름다운 만남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최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생을 정원 안에 있는 정자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오늘 만남은 작은 인연이 아닐 겁니다. 정을 남김없이 나누시려거든 제 뒤를 따라 오세요.”

최씨는 다시 한번 이생과의 만남이 작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을 남김없이 나누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생과 최씨가 시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은 애정을 나누는 사이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생규장전>에서는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도 여성 주인공인 최씨입니다.

최씨는 이생을 정원에 있는 정자로 인도합니다. 이 정자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자의 벽에는 유명한 그림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여러 편 걸려있었습니다. 최씨가 고려 명문가의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게다가 최씨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부유한 명문가의 부모가 외동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최씨가 머무는 정자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생과 최씨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이생과 최씨는 정자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동침을 합니다. 사랑이 극에 달한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이상 깊어질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생은 최씨의 집에 사흘 동안 머물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실 이생은 부모님께 며칠 어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고 집을 나와서 사흘이나 외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생은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최씨의 집을 찾아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생이 밤마다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으니, 이 일이 부모님께 들키지 않을 리 없겠지요? 어느 날 이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건 무슨 일 때문이나? 내 생각엔 필시 경박한 녀석들처럼 남의 집 처녀를 넘보기 위해서인 듯하다. 나중에 모든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이 모두 내가 자식 교육을 엄하게 시키지 못했다고 욕할 거다. 게다가 만일 그 처녀가 훌륭한 가문의 여성이라면 너 때문에 자기 가문이 더럽혀졌다고 여기지 않겠느냐! 남의 가문에 죄를 짓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이 연애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이 밤마다 외출을 하는 것이 어떤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여성을 만나 연애하는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전근대 한국에서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가 거의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유로운 연애는 꿈꿀 수

없었지요. 결혼 전에는 이성을 만나지 않고, 부모님이 정해준 이성과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람과 평생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생의 아버지 또한 이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태학에 다니는 사대부인 아들이 늦은 밤에 나가서 남몰래 여성을 만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겠지요. 당시의 관점에서 이생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만일 이생이 남몰래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고 이생의 아버지를 비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이생과 연애를 한 여성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혼의 여성이 함부로 연애를 하는 것은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울산으로 보내버립니다. 울산은 지금 한국의 경상도에 속해있습니다. 이생이 살던 개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로운 연애를 막기 위해서 아들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최씨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최씨는 매일 밤 이생을 기다렸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도 이생이 오지 않자, 최씨는 여종을 시켜서 이생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여종은 최씨에게 이생이 아버지께 별을 받아 울산으로 쫓겨 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최씨와 이생의 사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자유로운 연애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이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부모에 의한 이별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씨는 이별의 충격으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병이 들어 버립니다. 최씨의 부모는 최씨에게 왜 병이 났는지 묻습니다. 최씨의 부모님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지요. 옛그제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내던 외동딸이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으니 애가 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최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최씨의 부모가 상자 속에서 이생이 지은 시를 발견합니다. 이생의 존재를 부모에게 들킨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최씨는 입을 엽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길러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숨길 수가 없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녀가 만나는 데는 정이 가장 소중한데요. (···) 스스로 낭군을 찾고자 위당(渭塘)의 처녀처럼 좋지 못한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차고 넘치며 집안까지 치욕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마음을 훔치고서 일생의 원한을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외롭고 약한 제가 홀로 근심을 견뎌 보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날로 깊어가고 병은 날로 악화되어, 이제 거의 죽어서 귀신이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소원을 들어 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저승에서 그이와 다시 만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으렵니다.”

최씨의 말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씨는 남녀가 만나는 데는 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녀 사이의 만남에서는 정, 바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한국에서는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연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남녀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혼인 밖에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씨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요. 부모님이 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준 상대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씨는 갖고 있었습니다.

최씨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이자 남편이 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최씨는 당시의

관습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사랑을 찾았습니다. 최씨는 아주 대담하고 용감한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용감한 여성이 바로 최씨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씨가 사랑에 빠진 남성이 바로 이생이었죠? 최씨는 이미 이생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최씨의 이생에 대한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씨는 사랑하는 이생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남성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요. 이렇게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에게 사랑은 단 하나뿐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의 사랑이 있습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에게 사랑은 평생 변하지 않는 신의(信義)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씨는 비로소 평생을 사랑할 남성을 찾았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생 아버지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결국 최씨입니다. 최씨는 부모님께 이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최씨는 이생을 사랑할 수 없다면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부모님께 말하는데요. 부모님 앞에서도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씨입니다.

최씨의 부모님은 최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나뿐인 딸이 이생과 혼인하지 못하면 죽겠다고 하는데, 딸의 목숨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씨의 부모는 이생 집에 매파(媒婆)를 보내 혼인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의 집안이 대단한 명문가라는 것을 알고 혼인을 허락해도 될는지 고민을 합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사대부이기는 했지만 벼슬을 하지 못했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생은 가난한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최씨 집에서는 혼례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생의 아버지도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지요. 결국 최씨와 이생은 혼인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여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최씨와 이생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공경했습니다. <이생규장전>은 “양홍(梁鴻)과 맹광(孟光) 부부도 이생과 최씨의 절개와 의리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양홍과 맹광 부부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이자 서로 공경하는 부부로 동아시아의 고전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부부입니다. 부부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작가 김시습은 양홍과 맹광 부부보다 이생과 최씨 부부가 서로에 대해 더 신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씨와 이생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생규장전>에 그려진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5. <이생규장전> 2 - 이생과 최씨의 이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씨는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문제를 잘 극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혼인한 다음 해에 과거에도 합격해서 좋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생과 최씨에게는 이렇게 행복만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요. 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홍건적(紅巾賊)의 침략입니다.

홍건적에 대해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건적은 중국 원나라 말기인 1355년에 허베이성(河北省) 일대에서 일어난 반란군입니다.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홍건적이 원나라의 진압에 쫓기게 되자 고려를 침략

합니다. 특히 1361년에 침략한 홍건적이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홍건적은 지금 한국의 북한 지역을 함락시키고, 고려의 수도인 개성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고려의 임금이 개성을 떠나 피란을 갈 정도였으니 홍건적의 위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홍건적의 침략이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적은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생 부부와 친척들 또한 위험을 피할 길이 없어 이리저리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다.

이생은 가축을 이끌고 깊은 산에 들어가 숨으려 했다. 이때 홍건적 하나가 나타나 칼을 뽑아 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있는 힘껏 달려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결국 홍건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홍건적이 최씨를 겁탈하려 하자 최씨는 큰소리로 꾸짖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나를 죽여라! 죽어서 승냥이의 밥이 될지언정 내 어찌 개돼지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홍건적은 노하여 최씨를 죽이고 난도질하였다.

홍건적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고려를 침략한 홍건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전부 죽였습니다. 가축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홍건적이 침략한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홍건적의 위협이 닥쳐오자 이생의 가족은 당연히 피난을 가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최씨가 홍건적의 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무도한 홍건적은 최씨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씨는 절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곳곳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씨는 홍건적에게 저항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홍건적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한 것입니다. 최씨는 이생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할 만큼, 이생에 대한 신의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생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최씨는 저항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홍건적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최씨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지요? 결국 최씨는 홍건적의 칼에 찔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씨의 죽음은 너무 슬픉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강의에서 함께 읽었던 <만복사저포기>의 여자 주인공도 침략한 왜구의 손에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만복사저포기>의 여자 주인공도 왜구가 성폭력을 가하려고 했을 때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만복사저포기>의 여인과 <이생규장전>의 최씨는 모두 아무 잘못도 없이 죽었습니다. 예상치 않게 일어난 전쟁은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폭력적입니다.

더구나 <이생규장전>의 이생과 최씨는 전쟁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씨가 죽었으니 영원한 이별을 한 것이죠. 이생의 슬픉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생은 발길을 돌려 최씨의 집으로 갔다. 황량한 집에 쥐가 짹짹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슬픉을 가눌 수 없어 작은 정자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날이 저물도록 이생은 덩그러니 홀로 앉아 있었다. 멍하니 예전에 최씨와 함께 즐겁게 지낸 시간들을 회상하노라니 한바탕 꿈을 꾸 듯싶었다.

이생은 피난을 떠나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숨어 있다가 홍건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

고 개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성의 집은 이미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최씨의 흔적도, 다른 가족들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흥건적의 침략이 남긴 것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생은 아마도 이때 짐작을 했겠지요. 최씨가 죽었다는 것어요.

그리고 나서 이생은 최씨의 집에 가 보았습니다. 최씨의 집도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생은 정자에 올라가 봅니다. 최씨 집의 정자는 어떤 장소였지요? 바로 최씨와 이생이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최씨와 이생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씨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생이 최씨를 그리워하며 최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이생은 최씨의 추억이 한바탕 꿈 같다고 느꼈습니다. 최씨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생규장전>의 다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밤 10시 무렵이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보를 비추었다. 문득 행랑 아래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다. 최씨였다. 이생은 최씨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

지금까지 <이생규장전>이라는 소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흥건적의 침략이라는 실제의 사건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이제부터는 초현실적인 면모, 환상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전기소설의 특징이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생규장전>의 초현실성은 죽은 최씨가 혼령이 되어 나타나는 데서 드러납니다.

최씨는 이미 흥건적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씨의 집에서 최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는 이생 앞에 최씨가 나타납니다. 이생은 최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최씨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눈앞에 보이는 혼령을 최씨라고 믿었습니다. 혼령이 아니라 최씨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씨의 혼령에게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라고 묻는 것입니다. 최씨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오히려 회피하는 이생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생이 최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으면 진실을 외면하는 데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씨의 혼령은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사대부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놓고 옷 짓는 일을 열심히 익혔고, 시 짓기며 글씨 쓰기며 인의(仁義)의 도리도 배웠어요. 하지만 오직 규방 여성의 일이나 알 뿐 바깥세상의 일이야 아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던 터에 어쩌다 붉은 살구가 있는 담장을 넘겨다보고는 그만 제가 먼저 마음을 바치고 말았고, 꽃 앞에서 한 번 웃음 짓고는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어 백 년의 정을 쌓았습니다. 처음 만나던 시절을 얘기하다 보니 슬픔을 견딜 수 없군요.

백년해로할 것을 약속하고 함께 살았지만, 도중에 일이 어그러져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끝내 승냥이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저 스스로 모래 구덩이에서 살

을 찢기는 길을 택했지요. 이는 하늘의 이치로 보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깊은 산에서 우리 부부가 헤어진 뒤 결국 서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 새와 같이 영영 떨어지게 되었으니,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에요.”

최씨의 말 속에는 최씨의 삶, 이생과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일에 대한 원한도 담겨 있습니다. 최씨가 어떤 연유로 이생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최씨는 자신이 흥건적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스스로 살이 찢겨 죽임을 당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비록 이치로 따져 보았을 때는 옳은 일이지만, 더이상은 살아서 이생을 사랑할 수 없기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최씨는 깊은 산에서 이생과 헤어진 뒤,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영영 떨어지게 되었으니 한스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고 들판에 널브러져 있다고도 말합니다. 최씨의 마음에 맺힌 원한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씨는 이생에게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합니다. 최씨는 죽었지만, 억울하게 죽어서 원한이 너무 깊게 맺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생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혼령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생은 최씨의 말을 듣고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혼령이지만 최씨와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생과 최씨는 기쁨에 겨워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헤어져 있던 동안에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하지 못한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최씨와 이생은 최씨가 살아있을 때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최씨와 이생이 다시 만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생규장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최씨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 이생은 이제 세상사에 관심을 두지 않아 친척이나 어른들의 경조사에도 가지 않았다. 집 안에 틀어박혀서 언제나 최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주고받을 뿐이었다. 이렇게 부부가 금실 좋게 지내는 동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씨의 혼령과 다시 만난 이생은 최씨에게만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벼슬도 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최씨와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최씨가 살아있을 때처럼, 이생과 최씨 부부는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이생의 세계에는 오로지 최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씨는 갑자기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저를 다시 내려보내신 것은 서방님과 저의 연분(緣分)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제가 죄 없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게 인간의 형체를 빌려주셔서, 잠시 이별의 아픔을 누그러뜨리게 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오래도록 인간 세상에 머물러서 산 사람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최씨는 옥황상제의 명으로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 이승에 온 것이었습니다. 최씨가 살아있을 때 이생과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억울하게 죽은 최씨를 잠시 이생 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

처 다 누리지 못한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 끝이 정해진 사랑이었습니다. 옥황상제가 허락해 준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혼령이기에 인간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옥황상제가 정한 운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자신도 최씨를 따라 저승으로 가겠다고, 최씨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합니다. 또 최씨에게 인간 세상에 더 머물러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씨는 저승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의 수명은 아직 수십 년이 더 남아 있어요.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제 시신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바람과 햇빛에 나뒹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해요.”

최씨의 마지막 부탁이 저는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슬픕니다. 최씨는 이 말을 남기고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이생은 최씨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었고요. 최씨가 사라진 뒤 이생이 느꼈을 쓸쓸함을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씨의 장례를 끝낸 뒤에, 이생은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어 두 달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생에게는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생 또한 최씨를 따라서 저승으로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을 통해 영원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생규장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 6.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애정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생규장전>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전기소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부른다는 점,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재자가인으로 설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에서 <이생규장전>의 작가인 김시습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고요. 김시습의 전기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애정전기소설 중에 전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생규장전>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생과 최씨의 사랑은 단 하나뿐인 사랑이지요. 이들에게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최씨가 먼저 죽었지만, 이들의 사랑은 초현실적으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애정전기소설이 보여주는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을 <이생규장전>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으로 이생과 최씨의 사랑은 비극적이지요? 이 두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어갔고 사랑이 영원해졌습니다.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나타나는 비극성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생규장전>에 이러한 비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작가 김시습의 경험과 연관

짓기도 합니다.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김시습은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충격으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나 세계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비극적인 인식이 <이생규장전>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최씨와 이생은 상대방에 대한 절의(節義), 즉 절개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이것도 인간은 모름지기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작가 김시습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조선시대에는 전기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O/X)

정답: O

2. 한국 애정전기소설은 한글로 창작된 낭만적인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 (O/X)

정답: X

3.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려 있다. (O/X)

정답: O

4.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소설은 모두 다 살아있는 남성과 여성 귀신 사이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다. (O/X)

정답: X

5. 이생은 명문가 출신으로 국학에 다니는 젊은 선비이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이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생은 최씨에게 먼저 시를 주고 자기의 호감을 표현했다.
- ② 이생은 최씨 집 담장 밖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곤 했다.
- ③ 이생은 최씨와의 사랑을 부모님께 들켜서 질책을 받을까봐 걱정했다.

정답: ①

2. 다음 중 최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씨는 사랑에 적극적이고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주인공이다.
- ② 최씨는 흥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했다.
- ③ 죽은 최씨는 저승에서 이생을 만날 수 있었다.

정답: ③

3. 다음 중 <이생규장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생규장전>의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 ② 이생의 부모는 최씨 집에 매파(媒婆)를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 ③ 이생과 최씨는 전쟁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었다.

정답: ③

4. 다음 중 <이생규장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생은 최씨와의 관계를 부친에게 들키자 사랑의 의지를 굽혀서 울산으로 갔다.
- ② 이생과 최씨는 모두 다 사랑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았다.
- ③ 죽은 최씨는 혼령이 되어 이생과 함께 몇 년간 살았다.

정답: ①

5. 다음 중 <이생규장전>이 갖고 있는 한국 애정전기소설로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남녀 주인공이 한시 교환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다.
- ② 변함없는 사랑을 위해 현실적인 장애문제를 다 해결하여 행복을 누린다.
- ③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잘 나타난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 1. <이생규장전>의 제목은 '이생이 ○○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답: 담장

- 2. 김시습은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의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중이 되었다.

정답: 계유정난

- 3. 애정전기소설은 ○○와 ○○을 주인공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정답: 재자 - 가인

**나. 토의(30분)**

- 1)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통해 작가 김시습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2) 작품 속에서 이생과 최씨가 서로 한시를 주고받는 장면이 많다. 전기소설에 삽입된 한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 과제(60분)**

<이생규장전>은 한국 애정전기소설 중에서도 전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은 만큼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하여 글을 써 봅시다.

## ■ 참고자료

박희병,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김시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금오신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KBS 역사스페셜 - 조선 역사 뒤바꾼 계유정난, 세조는 승리했나 ([영상 보기](#))

## <4차시> 한국의 애정전기 2 - 운영전

### ■ 학습목표

1. <운영전>의 시공간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2. <운영전>에 등장한 안평대군, 자란, 특의 인물 형상에 주목한다.
3.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비극성을 띠게 된 원인을 알아본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안평대군과 수성궁
3.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4.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악인 특(特)
5. 사랑의 비극
6.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을 계속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전기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기소설’(傳奇小說)은 ‘기이한 것을 전하는 소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하는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전기소설은 중국 당나라 때 쓰이기 시작했고, 한문으로 문학을 창작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된 소설 장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소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이 대개 재자가인(才子佳人)으로 설정된다는 점, 그리고 애정전기소설에는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나타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알려진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생규장전> 이후에 등장한 애정전기소설인 <운영전>(雲英傳)을 읽어볼 텐데요. <운영전>과 <이생규장전>이 어떤 점이 같고, 반대로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생규장전>과 마찬가지로 <운영전>

도 원래 한문으로 쓰인 소설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운영전>도 한국 고전문학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 2. 안평대군과 수성궁

오늘 강의에서 읽어볼 애정전기소설은 <운영전>입니다. 운영(雲英)은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전>이라는 제목은 ‘운영의 이야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을 짓는 방식이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 또 <하생기우전>과는 다르지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소설들은 작품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읽어볼 <운영전>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운영전>은 1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조선 중기 정도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전>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이 <운영전>의 작가가 누구인지 추정하는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아직 <운영전>의 작가가 누구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전>은 조선 초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안평대군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소설의 리얼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던 전기소설에는 전부 허구적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운영전>과 다른 애정전기소설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영전>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성궁(壽成宮)은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옛집으로, 서울 서쪽의 인왕산 아래에 있다. 이곳은 산천이 수려하며,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을 하고 있다. 그 남쪽에 사직단(社稷壇)이 있고, 동쪽에는 경복궁이 있다.

우선 안평대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평대군은 조선의 왕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융(李瑢)이라고 하고요. 1418년에 태어나서 1453년에 사망했습니다. <운영전>에는 이렇게 조선 전기에 실존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점이 일단 흥미롭지요. 소설의 리얼리티를 높여주는 인물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살아 있을 때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늘 독서를 하며 학업을 닦았고 시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붓글씨를 아주 잘 써서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그림이나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예술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안평대군은 당대에 이름난 문인 사대부들을 불러서 함께 시를 짓거나, 문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고도 합니다.

안평대군은 왕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만 안평대군이 왕과 함께 대궐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열세 살에 대궐을 나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왕자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수성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운영전>은 안평대군의 집인 수성궁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습니다. 수성궁은 서울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는 수성궁 동쪽에 경복궁이 있다고 했고, 남쪽에 사직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복궁과 사직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 소개

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의 대궐입니다. 조선의 임금이 거처하시던 가장 큰 궁궐이죠. 지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光化門)과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근정전(勤政殿)입니다. 근정전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거행하던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경복궁은 누구나 관람을 할 수 있죠.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한 번쯤은 둘러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유물입니다.

사직단도 국가적인 의식을 거행하던 곳입니다. 토지를 관장하는 신과 곡식을 관장하던 신께 제사를 올리던 제단인데요. 조선은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토지신과 곡식신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올려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사직단의 모습이고요. 사직단에서 제사를 올리던 의식을 재현한 모습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직단도 지금 서울 종로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평대군이 살던 수성궁이 어디쯤에 있었을지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서울의 지도입니다. <수선전도>(首善全圖)라는 지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도 속에 경복궁과 사직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 오른쪽에 붉은 색으로 길쭉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곳이 경복궁이고요. 지도 아래 쪽에 붉은 테두리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사직단입니다. 사직단 북쪽으로 인왕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에 파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두었는데요. 안평대군의 집은 파란 동그라미 부근에 있었을 겁니다.

실제 안평대군의 집터는 지금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안평대군이 살던 집은 없어졌고요. 다른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혹시 사진 속의 바위에 ‘무계동’(武溪洞)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이시나요? 안평대군이 서예가로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안평대군이 직접 쓴 글씨를 저 바위에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안평대군의 서예 작품이 많았을 텐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수성궁에는 왕자인 안평대군의 시중을 드는 궁녀(宮女)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궁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궁녀는 조선왕조 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의 시중을 들었던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궁녀들은 채 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궁궐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궁녀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궁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궁녀들을 나인(內人)이라고 하고요. 나인들이 15년쯤 경력을 쌓으면 상궁(尙宮)으로 승진을 합니다. 혹시 조선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다면, 궁녀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수성궁에 있던 궁녀들은 젊은 궁녀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어느날 궁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재주를 내리시매 어찌 남자에게만 넉넉하고 여자에게는 인색하게 하셨겠느냐? 지금 세상에 문장으로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그만그만한 수준이어서 우뚝 뻗어난 이가 없구나. 너희들은 분발하도록 해라!”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 여성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요. 궁녀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이었는데요.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너희 같은 여성도 문장을 잘 지을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받고 문장을 짓는 훈련을 하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글을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평대군은 궁녀 중에 나이가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열 명을 뽑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열 명 안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우선 열 명의 궁녀에게 <소학>(小學), <대학>(大學), <논어>, <맹자> 같은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한시를 궁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교육을 한 결과 궁녀들은 모두 수준 높은 한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행동을 아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군은 열 사람 모두를 매우 아껴서, 항상 궁중에 가두어 기르며 다른 사람과는 마주하여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외부인들이 혹 저희들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분부를 내린 적도 있으니까요. ‘궁녀가 한 번이라도 궁궐 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음에 해당한다.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 또한 죽음에 해당한다.’”

안평대군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궁녀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궁녀는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왕이나 왕자에게 선택되어 후궁(後宮)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궁녀는 혼인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안평대군은 유독 궁녀들을 통제만 한 것 같습니다.

어느날 안평대군의 명령으로 궁녀들이 모여서 시를 한 수씩 지었습니다. 운영의 시에 “바람 맞으며 홀로 서러워 하니 / 날아가 무산(巫山)에 떨어지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안평대군은 이 구절을 문제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독 운영의 시만은 서글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이거늘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엄하게 캐물을 일이지만 시 짓는 재주가 아까워 그냥 덮어두기로 한다.”

운영이 지은 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운영이 지은 시의 화자는 미인입니다. 그 미인이 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러워한다는 내용인데요. 왜 여인은 혼자 있는 것을 서러워할까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오는 무산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무산과 관련된 고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양대(陽臺)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회왕의 꿈에 무산(巫山)의 여신이 나타났고, 회왕과 무산 여신은 꿈속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무산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운영의 시 속에서 미인의 마음은 무산으로 날아갑니다. 운영의 시에는 사실 무산의 여신처럼, 남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안평대군은 이것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궁녀들 중에서도 유독 운영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이 어떤 남성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의심을 한 거죠. 운영에게는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요? 작품을 더 읽어가면서 운영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운영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제 운영의 진심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수성궁의 궁녀 중에 자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란은 몰래 운영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 시집가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야. 네가 사모하는 이는 어떤 사람이니? 네 모습이 날로 예전만 못해지는 게 보기 안쓰러워 진심으로 묻는 것이니 숨기지 마.”

자란의 질문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녀는 한 남성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궁녀는 사실 왕이나 왕비에게 예속된 존재지요. 운영이나 자란은 모두 안평대군에게 예속된 존재이자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상하게 운영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란에게 운영은 고백을 합니다.

“궁궐에 사람이 많으니 누가 엿들을까 싶어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어. 지금 이렇게 정성스레 물으니 어찌 감히 숨기겠니?”

운영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숨기고 있었던 마음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가을, 노란 국화가 갓 피어나고 단풍잎이 시들려던 때였지. 대군께서 홀로 서재에 앉아 궁녀에게 먹을 갈게 한 다음, 흰 비단 한 폭을 펼쳐서 시 10수를 쓰고 계셨어. 그때 아이 종이 밖에서 들어와 ‘김진사(金進士)라는 젊은 선비가 뵙기를 청합니다’하고 아뢰더라. 대군이 기뻐하며 ‘김진사가 왔군!’ 하시고 맞이하게 하셨어. 베풀을 입고 가죽 띠를 두른 선비가 빠른 걸음으로 공손히 들어와 계단을 오르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았어. 대군이 계산 자리에 와서 절을 하고 앉는데, 얼굴과 몸가짐이 신선 세계의 사람이었어.”

운영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김진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운영은 김진사를 처음 본 순간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는 얼굴과 행동이 신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신선같다는 표현은 조선시대에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원래 궁녀들이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었지요? 그런데 이때만 큼은 궁녀들을 김진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곁에 있던 궁녀들과 얼굴을 마주했지만, 대군은 진사가 나이 어린 선비인지라 마음속으로 만만히 여기고는 우리더러 자리를 피하라 하지 않으셨어. (...) 대군께서는 금련(金蓮)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용(芙蓉)에게는 거문고를 타게 하고 보련(寶蓮)에게는 통소를 불게 하셨어. 비경(飛瓊)에게는 술을 따르게 하시고 나에겐 벼루 시중을 들게 하셨어. 그때 나는 나이 어린 여자로 낭군을 한번 보고는 낮이 나가버렸고, 낭군 또한 나를 돌아보며 웃음을 머금고 자주 눈길을 보냈지.”

안평대군은 김진사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궁녀들과 김진사를 한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또 궁녀들을 시켜서 김진사를 대접하게 했지요. 운영은 김진사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합니다. 김진사 또한 운영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김진사는 운영에게 눈길과 웃음을 보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장면에는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이 시작되는 순간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운영전>은 한국 고전소설 중에서도 감정이나 상황을 특히 섬세하게 묘사하는 소설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진사에게 시를 짓게 합니다. 김진사의 시는 역시 뛰어났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진사의 글재주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칭찬합니다. 안평대군 같은 사람이 극찬을 할 정도이니, 김진사의 글재주는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이 재자(才子)와佳人(佳人)이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남자 주인공은 재능이 뛰어난 재자로, 여자 주인공은 외모가 아름다운佳人으로 설정이 되지요. 김진사는 말 그대로 재자였습니다. 외모가 신선처럼 맑고 아름다운데다가 글재주가 대단하니까 재자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김진사는 서예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김진사에게 붓글씨를 써보라고 합니다. 김진사가 붓글씨를 쓸 때 운영과 김진사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이 <운영전>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군이 이번에는 초서(草書)를 쓰게 하셨어. 진사가 붓을 휘둘렀는데, 그만 먹물이 잘못 튀어 내 손가락에 작은 먹점이 묻게 되었지. 나는 그걸 영광으로 여겨 닦아 없애지 않았어. (...) 나는 이때부터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는 것이 줄었으며 마음이 답답하여 모르는 사이에 옷과 허리띠가 헐렁해졌단다.”

김진사가 붓글씨를 쓸 때 먹물이 튀었고, 그 먹물 방울이 하필이면 운영의 손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연애를 시작할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을 쏟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요. 운영은 먹물 방울이 자기 손가락에 묻은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게 되지요.

운영은 김진사를 생각하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상사병(相思病)이 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은 궁녀로서 주인인 안평대군에게 예속되어 있었고, 자유롭게 바깥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를 그리워하며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죠.

운영은 김진사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시를 써서 김진사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안평대군은 종종 김진사를 수성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 궁녀들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은 숨어서 몰래 김진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영은 대담하게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이 장면이 <운영전>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이미 다하여 손님들이 모두 취했을 때입니다.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엿보니 김진사 역시 제 뜻을 알고 모퉁이를 향해 앉아있더군요. 저는 봉한 편지를 구멍 사이로 던졌습니다. 김진사는 편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평대군이 주최한 잔치에 김진사가 참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안평대군은 궁녀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잔치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을 때, 운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벽에 구멍을 뚫어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김진사도 운영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운영의 편지를 주워서 집으로 갔으니깐요.

지난 강의에서 한국 애정전기 소설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애정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운영전>에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이 먼저 김진사에게 편지를 보내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의 감시를 피해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성, 애정에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진사의 마음을 확인해볼까요? 김진사는 운영이 던진 편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편지를 뜯어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운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도 운영을 처음 보고 난 뒤로 운영을 계속 그리워했습니다. 운영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영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을 겁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했지만, 김진사는 운영에게 편지를 전할 수도 없었고 운영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운영은 수성궁 안에 갇혀 사는 궁녀였으니깐요.

그렇지만 운영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한 김진사는 운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궁궐에 드나들던 무당을 통해 운영에게 편지를 전하기로 한 것이죠. 김진사는 무당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무당은 수성궁으로 가서 운영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김진사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김진사의 편지를 한 번 읽어볼까요.

한 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낮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편지를 미처 열어 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절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한 지경입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시어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김진사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김진사 또한 운영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늘 운영이 있는 서울 서쪽의 수성궁을 생각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영의 편지를 받았으니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영을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김진사는 병에 걸립니다. 신이 도우셔서 한 번이라도 운영을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운영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여러분 김진사의 편지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운영전>은 조선시대에 한문으로 쓰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쓰인 애정 소설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 묘사가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김진사라는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아주 섬세하게 또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전>의 매력입니다.

편지를 읽고 김진사의 사랑을 확인한 운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운영과 김진사는 만날 수 없는 사이였으니깐요. 운영은 김진사를 생각하며 바보처럼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진사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시를 지어서 안평

대군의 의심을 받은 거지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 4.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악인 특(特)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진사와 운영은 신분이 다릅니다. 김진사는 상층인 양반이고 운영은 평민입니다. 게다가 운영은 궁녀로서 안평대군이라는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었지요. 운영은 깊은 궁궐에 갇혀 사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영전>에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우선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전>에서 운영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물은 바로 궁녀 자란(紫鸞)입니다. 운영은 김진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김진사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무당을 통해 답장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수성궁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운영이 궁궐 밖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야만 했는데요. 자란은 운영이 무당을 만날 수 있도록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자란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궁중 사람들이 해마다 추석이면 탕춘대(蕩春臺) 아래 시냇가에서 빨래하며 술자리를 벌인단다. 올해는 그리로 가지 말고 소격서동(昭格署洞)에서 놀자고 해서, 오가는 사이에 그 무당을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은 계책일 거야.”

우선 탕춘대와 소격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곳이 탕춘대 부근인데요. 산 아래로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아 보이지요? 탕춘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있던 평평한 바위 이름입니다. 아쉽지만 탕춘대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소격서동은 지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습니다. 삼청동도 당시에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탕춘대와 소격서동은 모두 서울 종로구에 속해 있지만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자란의 말을 다시 살펴보면요. 궁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궁궐 밖으로 나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수성궁의 궁녀들은 탕춘대에 가서 빨래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란은 탕춘대가 아닌 소격서동으로 외출을 해서 무당을 만나보자고 말합니다. 소격서동으로 가야만 운영이 무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란은 다른 궁녀들을 설득합니다. 운영이 김진사를 그리워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던 다른 궁녀들은 운영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결국 궁녀들은 추석에 소격서동으로 놀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드디어 추석이 되어 궁녀들은 수성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영과 자란은 함께 무당을 찾아 갑니다. 운영은 무당에게 김진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당이 김진사 집으로 사람을 보냈고, 김진사는 무당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운영과 김진사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서로 마주 보고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기쁨, 그리고 그동안 서로의 마음에 쌓인 그리움과 슬픔, 이런 감정들로 얼마나 감정이 복잡했을까요. 하지만 운영은 곧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김진사에게 미리 써온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운영은 김

진사에게 밤을 틈타 수성궁 서쪽 담장을 넘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말합니다.

김진사는 다음 날 밤, 담장을 넘어 수성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란은 계속해서 운영을 도와주었습니다. 자란은 몰래 수성궁에 들어온 김진사를 맞이해 줍니다. 또 운영과 김진사를 위해 술과 음식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운영과 김진사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김진사는 매일 밤 운영을 찾아와 밤을 함께 보내고 새벽에 돌아갔습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서 비밀스런 만남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성궁 담장 안쪽에 쌓인 눈에 발자국이 남아서, 김진사가 수성궁에 들어오는 것을 궁녀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비밀스런 사랑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안평대군이 수성궁 안의 비해당(匪懈堂)이라는 건물에 좋은 시를 적어서 걸어두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해당에 대한 시를 지었지만, 안평대군의 마음에 드는 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은 김진사에게 시를 부탁했습니다. 김진사는 수성궁으로 와서 비해당에 대한 시를 지었지요. 김진사의 시는 역시 훌륭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진사의 시를 몹시 칭찬하면서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담장 넘어 몰래 멋스러운 노래를 훔치네”라는 구절인데요. 안평대군은 이 구절을 읽고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진사는 사실 매일 수성궁의 담장을 넘어 운영을 만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운영의 주인은 원래 안평대군 아니겠습니까. 김진사는 몰래 수성궁의 담장을 넘어 안평대군으로부터 운영을 훔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는 비밀로 지켜져야 할 일을 시에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총명한 안평대군이 의심을 하지 않을 리 없겠지요.

안평대군의 의심을 받게 된 김진사는 운영과 함께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은 자매와 같은 자란에게 도망칠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자 자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되더니 스스로 재앙을 앞당기려는 거니? 한두 달 사귀었으니 만족할 만도 한데, 담장을 넘어 달아나겠다고 사람이 차마 할 짓이니? (….) 더구나 하늘과 땅이 하나의 그물 속에 들어있는데, 하늘 위로 오르거나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니? 만일 잡히면 그 재앙이 네 몸에만 그치겠어?”

자란은 사랑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운영에게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만일 운영이 김진사와 도망을 친다면 안평대군이 크게 노할 것이고, 안평대군은 운영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말이지요. 안평대군은 조선의 왕자입니다. 아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궁녀 운영을 찾아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도망을 친다면 수성궁의 다른 궁녀들도 무사할 리가 없겠지요. 다른 궁녀들은 운영의 도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란은 운영과 김진사의 계획이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자란은 운영이 나이가 들어서 안평대군의 운영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안평대군이 운영을 자유롭게 놓아주면 그때 김진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라고 조언해줍니다. 자란은, 사랑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은 운영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영의 비밀스런 사랑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어느날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시를 짓게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이 지은 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글이 날로 훌륭해져 내 마음이 무척 기쁘구나. 그러나 다만 운영의 시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뚜렷하구나. 전에 읊은 시에서도 살짝 그런 생각이 보이더니만 지금 또 이러하니 네가 따르려는 자가 대체 누구냐? 얼마 전 김진사가 지은 글에 이상한 글귀가 있어 의심스럽던데, 혹시 네가 김진사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냐?”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운영의 시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김진사의 시에는 담장을 넘어 몰래 누군가를 만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운영은 주인의 의심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억울하지만 죽어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다면 죽겠다고 하면서 난간에 수건을 걸어 목을 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운영을 도운 사람은 자란이었습니다. 운영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안평대군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결국 자란은 운영의 목숨까지 구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뒤로 김진사는 수성궁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수성궁에 갔다가는 운영과의 사랑이 탄로날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때 김진사의 하인 특(特)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상사병으로 맺힌 원한 때문에 (...) 천금 같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단 말입니까? 이제 계책을 부리면 궁녀를 취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없는 때에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숨으로 입을 틀어막은 뒤에 엮고 나오면 누가 감히 뒤쫓겠습니까?”

특은 김진사의 상사병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깊은 밤에 수성궁 담을 넘어 들어가서 몰래 운영을 엮고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특은 주인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같지요? 사실 특은 김진사가 몰래 수성궁에 들어가서 운영을 만나는 데에도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다.

추석날 무당의 집에서 운영이 김진사에게 수성궁 담을 넘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김진사는 그날 밤에 당장 수성궁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성궁의 담장이 너무 높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크게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특이 김진사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는 “진사님께서도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읊습니다. 특이 울자 마음이 동요된 김진사는 사정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원래 유능하고 술수가 많은 특은 김진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특은 김진사에게 사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접을 수 있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았습니다. 접은 사다리를 펴면 아주 높은 담장에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가 길었고요. 특은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김진사가 수성궁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은 김진사에게 가죽 버선을 주었습니다. 그 가죽 버선을 신으면 걸어도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와 가죽 버선은 남들에게 들리지 않고 수성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김진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죠. 김진사는 특의 도움을 받아 수성궁 안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특은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 같지요? 그런데 사실 특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의 속셈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은 비밀스런 사랑입니다. 김진사는 운영을 만나지 못하면 깊은 병이

들 것 같았지만, 운영을 몰래 만나는 것이 안평대군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김진사에게 특은 운영을 몰래 빼내서 도망을 치라고 권합니다. 김진사는 특의 계책을 운영에게 말하고, 김진사와 운영은 도망을 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진사와 운영이 만일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운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옷과 비단, 또 보석을 미리 수성궁 밖으로 옮겨 놓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생각을 특에게 전했고요. 특은 운영의 보물을 수성궁 밖으로 옮깁니다. 운영이 갖고 있던 보물은 양이 아주 많았는데요. 특은 김진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보물을 진사님 댁에 쌓아두었다가는 큰 주인님께서 의심하실 것이요, 저의 집에 쌓아두면 이웃 사람들이 의심할 게 틀림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 산속에 구덩이를 파서 깊이 묻어 놓고 단단히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특은 운영의 보물을 김진사 집에 두었다가는 큰 주인님, 즉 김진사의 아버지가 의심을 할 거라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김진사에게 갑자기 보물이 생겼다면, 김진사의 아버지가 이를 알아채고 이 보물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겠죠. 그럼 곧 김진사와 운영의 관계가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진사의 아버지가 아들과 궁녀의 사랑을 허락할 리 없습니다. 궁녀 운영은 양반 김진사에 비해 신분이 낮았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조선 시대에 신분이 다른 남녀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는 것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나 신분이 다른 남녀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은 운영의 보물을 자신의 집에 쌓아두어도 의심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특은 하인이죠. 신분이 천한 사람입니다. 김진사와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김진사 집안을 위해 일하는 하인이었는데요. 하인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갖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훔친 것이라고 의심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은 산속에 구덩이를 파서 재물을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특의 말에 일리가 있죠? 김진사도 특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피가 이렇게 깊고 제 친구가 이렇게 많으니, 천하에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직접 긴 칼을 들고 밤낮으로 그 자리를 뜨지 않을 테니, 제 눈을 뽑아갈지라도 이 보물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며, 제 발을 잘라갈지라도 이 보물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염려 폭 놓으십시오.”

특은 산속에 보물을 숨겨두고, 자신이 밤낮으로 보물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도적이 와서 자신을 위협하더라도 절대 보물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김진사를 안심시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특은 아주 믿음직한 하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특은 산속에 보물을 숨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운영과 김진사를 산속으로 유인한 뒤에 김진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영과 보물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진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운영과의 사랑을 지속하는 일에만 골몰해서,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은 김진사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운영에게 자란은 충고를 했습니다. 현실을 알려주고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왔지요. 자란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진정으로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반면 특은 사랑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진 주인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악인이었습니다.

어느날 특은 스스로 옷을 찢고, 자기 코를 때려서 코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피를 온몸에 칠한 뒤에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특은 김진사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한 것처럼 분장을 하고 운영의 보물을 도둑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김진사는 며칠 뒤에 강도 사건이 특이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특의 집으로 찾아가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운영의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은 이미 운영의 보물을 빼돌려 모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사는 운영과의 비밀스런 사랑이 탄로 날까봐 특이 보물을 빼돌렸다고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은 김진사의 약점을 또 이용합니다. 김진사가 자신을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는 거죠. 특은 김진사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헛소문을 냅니다. 또 특은 수성궁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보았다는 헛소문도 퍼뜨립니다. 이 헛소문은 결국 안평대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수성궁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방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의 보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지요. 결국 특이 퍼뜨린 헛소문을 계기로 해서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몹시 화가 나서 운영, 그리고 운영과 함께 지내던 네 명의 궁녀를 잡아 벌을 내립니다. 이 궁녀들이 죽을 때까지 곤장을 치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이라는 악인 때문에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안평대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 5. 사랑의 비극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알고 몹시 화가 나서 운영을 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함께 지내던 궁녀들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운영은 수성궁 밖의 남성을 만나지 말라는 안평대군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궁녀들은 운영의 사랑을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비롯한 궁녀들은 주인인 안평대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녀들에게 과연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궁녀들은 마지막으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궁녀 은섬(銀蟻)은 남녀의 정욕(情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궁궐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죽을 처지에 놓였으니, 저희들은 죽어서도 땅속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은섬은 궁녀에게도 정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궁녀도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은섬은 자신의 본성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은섬이 안평대군에게 예속된 궁녀였기 때문입니다. 은섬은 주군인 안평대군의 엄포가 두려워서 스스로 정욕을 억누르고 궁궐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은섬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죽을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억울할 겁니다.

수성궁의 궁녀들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궁녀들이 신분이 낮기 때문입니다. 주인인 안평대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섬의 말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정욕이 있지만 신분이 낮기 때문에 정욕을 억누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자란 또한 궁녀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한탄을 합니다. 이전에 자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성궁의 궁녀 열 사람은 원래 하늘의 선녀였지만 잘못을 해서 인간 세계에 유배를 온 것일 거라고 말이죠. 궁녀들은 깊은 궁궐에 갇혀 있으니 새장 속의 새와 같은 신세라고도 말했습니다. 새들도 음양의 이치를 알아 서로 짝을 사귀는데, 궁녀들은 궁궐 깊숙한 곳에 갇혀 지내며, 계절이 바뀌어도 늘 외로이 청춘을 보내다가 한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신세라고 자란은 말했습니다. 수성궁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했으면, 자신들이 벌을 받아 인간 세계로 내려온 선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란 또한 인간의 본성인 정욕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운영이 김진사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처지의 궁녀로서 운영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 운영의 사랑을 도와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란은 안평대군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은 어찌하여 운영에게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김진사처럼 빼어난 인물을 수성궁 내당(內堂)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군께서 하신 일이며, 운영에게 베풀어 시중을 들게 한 것 또한 주군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 운영이 하룻밤 사이에 아침 이슬처럼 홀연히 스러지고 나면, 주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 한들 무슨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만, 김진사로 하여금 운영을 얻게 하여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積善)이 더이상 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란은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에 안평대군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진사를 수성궁에 초대해서 김진사와 운영을 마주치게 한 사람은 바로 안평대군이니까요. 그리고 자란은 안평대군에게 왜 궁녀 운영의 사랑을 금지하는지 묻습니다. 또 자란은 운영이 죽고 난 뒤에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 한들, 죽은 운영을 살릴 수도 없으니 운영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안평대군께 청합니다. 자란의 말은 조목조목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안평대군을 설득하고 있어요. 안평대군은 자란의 말을 듣고 화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만 가두어 두고 나머지 궁녀들은 풀어주었습니다. 자란은 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자란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날 밤 운영은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더이상 사랑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운영은 목숨을 끊어 자신의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자결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김진사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운영의 혼령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하인 특을 다시 부릅니다. 껌씹기 짝이 없는 나쁜 하인이었지만, 운영과 김진사 사이의 사정을 잘 아는 하인이 특 말고는 없

였겠지요. 김진사는 특을 절로 보내서 운영을 위한 불공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처럼 나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리는 없지요. 특은 절에 가서도 나쁜 짓을 했습니다. 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입니다.

나중에 김진사는 특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직접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다음 생에는 운영과 부부로 살게 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진사의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얼마 뒤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운영이 죽고 난 뒤에 김진사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어느날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김진사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영과 김진사 모두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지요. 대신 두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죽은 뒤에 천상의 신선이 되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사는 때때로 인간 세계에 내려와 수성궁을 다시 찾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평대군은 죽었고 수성궁은 황폐해졌습니다. <운영전>은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사가 수성궁 터에서 유영(柳泳)이라는 선비를 만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는 설정을 보여줍니다. 유영이 수성궁 터에 유람을 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설정입니다. <운영전>은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액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 <운영전>을 살펴보았습니다.

## 6.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 <운영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전>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소재로 한 애정전기소설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전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안평대군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현실성을 높인 애정전기소설인데요. 조선 궁녀의 억압된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에 비해 리얼리티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던 <이생규장전>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에 장애를 가져온 사건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여자 주인공이 죽었고, 여자 주인공을 그리워하던 남자 주인공도 결국 생을 마감했지요. 전쟁이라는 아주 비일상적인 사건이 사랑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조선의 사회 현실입니다. 물론 <운영전>은 사실이 아닌 허구, 즉 소설이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이라는 주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궁녀의 처지였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높은 신분의 주인에게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운영은 사랑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비극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운영전>을 뛰어난 소설로 평가합니다.

<운영전>은 현실성을 높인 애정전기소설이지만, 초현실성과 환상성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이 초현실성과 환상성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운영과 김진사가 죽은 뒤에 신선이 되었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 유영이라는 선비를 만났다는 구성이 <운영전>의 환상성과 초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운영전>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자란과 특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사랑의 방해자이자 악인인 특이 등장하면서 소설이 아주 풍부한 구성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 구조가 한층 복잡해졌지만, 그래서 소설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전>에는 남녀 주인공의 감정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 <운영전>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운영전>(雲英傳)은 17세기에 지어졌으며, 작가가 밝혀져 있다. (O/X)

정답: X

2. 궁녀 자란(紫鸞)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인물이다. (O/X)

정답: O

3. 김진사의 하인 특(特)은 김진사의 사랑을 도와주었으나, 사실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O/X)

정답: O

4. 특이 퍼뜨린 헛소문을 계기로 하여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O/X)

정답: O

5.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가 발각되자 안평대군은 운영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지내던 궁녀들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였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안평대군(安平大君)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대로 교육 받고 훈련하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글을 잘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② 궁녀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어떤 경우에도 외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았다.

③ 운영과 김진사가 지은 시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운영(雲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평대군이 특별히 선발하여 교육시킨 열 명의 궁녀 중 하나였다.

② 김진사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도해가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③ 안평대군의 강요에 의해 끝내 목을 매달아 자결하였다.

정답: ③

3. 다음 중 <운영전>(雲英傳)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초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안평대군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② 주인공의 사랑을 진정으로 돕는 조력자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방해자가 동시에 등장한다.

③ 조선사회 현실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소설로, 초현실성과 환상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운영전>의 공간적 배경은 안평대군의 집인 ○○○이다.

정답: 수성궁(壽成宮)

2.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가 발각되어 함께 처벌받게 된 궁녀들은 남녀의 ○○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정답: 정욕(情慾)

3. <운영전>은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사가 수성궁 터에서 유영(柳泳)이라는 선비를 만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는 설정으로,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액자구조

#### 나. 토의 (45분)

1) <운영전>의 어떤 대목에서 특히 남녀 주인공의 감정이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2) <운영전> 속 궁녀들의 발화 속에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3) <운영전>의 어떠한 설정, 요소, 장면들이 작품 전체의 비극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 다. 과제 (45분)

지난 강의에서 다룬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전>과 <이생규장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십시오.

■ 참고자료

박희병·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궁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안평대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KBS 역사스페셜 - 조선시대 궁녀는 전문직이었다 ([영상 보기](#))

## <5차시> 한국의 애정전기 3 - 주생전

### ■ 학습목표

1. <주생전>의 작가 권필에 대해 알아본다.
2. <주생전>에 그려진 세 주인공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주생전>에 반영된 현실에 대해 알아본다.
4. <주생전>·<이생규장전>·<운영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주생전>의 창작 배경
3. 주생과 배도의 사랑
4. 주생과 선화의 사랑
5.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
6.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에 대한 첫번째 강의에서는 전기소설의 특징, 그리고 그중에서도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전기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기소설’(傳奇小說)은 ‘기이한 것을 전하는 소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하는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전기소설은 중국 당나라 때 쓰이기 시작했고, 한문으로 문학을 창작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된 소설 장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소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재자(才子)와佳人(佳人)으로 설정된다는 점 말씀드렸었지요? 재자는 재주가 뛰어난 남성, 특히 글재주가 뛰어난 남성을 말하고,佳人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정전기소설은 아무래도 기이한 일을 전하는 소설이라는 뜻의 전기소설에 속하기 때문에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나타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을 다룬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알려진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을 읽어보았지요. 그리고 한국 애정전기소설을 다룬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운영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두 작품은 애정전기소설답게 초현실성과 환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여자 주인공 최씨가 홍건적(紅巾賊) 침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씨의 혼령이 다시 살아생전의 최씨 모습으로 나타나서 남편 이생과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죽어서 혼령이 된 아내와 살아 있는 남편이 사랑을 계속한다는 설정에서 초현실성과 환상성이 나타났습니다. <운영전>은 어땠나요? 운영과 김진사는 사랑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 죽은 뒤에 천상에서 신선이 되었지요?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사가 추억이 깃든 공간인 수성궁에 가끔 내려와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에도 초현실성과 환상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 애정전기소설은 현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생규장전>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소재로 활용되었죠? 홍건적의 침략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홍건적은 중국 원나라에서 일어난 반란군인데요. 이 홍건적이 원나라의 진압에 쫓기게 되자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1361년에 고려를 침략한 홍건적이 소설 속에서 최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운영전>은 어땠습니까? 물론 주인공 김진사와 운영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전>에서는 실존했던 인물이 작품에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자 안평대군(安平大君)입니다. 여자 주인공 운영은 안평대군을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김진사와의 사랑이 안평대군에게 발각되자, 결국 운영은 자결을 하고 말았죠.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비극으로 만든 원인을 안평대군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평대군 한 사람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전>은 현실성을 가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잠깐 복습을 해 보았고요. 오늘의 강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인 <주생전>(周生傳)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생전>은 조선 중기에 한문으로 창작된 애정전기소설입니다. <이생규장전>이나 <운영전>과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주생전>을 읽어볼 겁니다.

<주생전>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애정전기소설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주생전>은 <이생규장전>이나 <운영전>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생전>의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주인공이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모두 주인공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생전>에는 한 명의 남자 주인공과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흥미롭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생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배도, 그리고 선화라는 두 사람의 여자 주인공이 만들어 가는 사랑 이야기인 <주생전>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2. <주생전>의 창작 배경

<주생전>은 ‘주생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주생은 주씨 성을 가진 젊은 남성을 뜻하는 말

이죠. 이 소설도 <운영전>과 같이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작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운영전>을 떠올려 보면, <운영전>에서는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자 주인공 운영이었지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운영의 이름을 따서 소설의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생전>은 주생이라는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생의 이야기가 소설로 창작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주생전>의 창작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작가와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고전소설 중에는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생전>은 작가가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권필(權韜)이라는 분입니다. 권필은 조선시대의 문인(文人)입니다. 신분은 양반이고요. 1569년에 태어나서 16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권필은 당대에 시인으로 유명했습니다. 한시(漢詩)를 아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주집』(石洲集)이라는 문집(文集)을 남겼습니다.

권필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필은 성격이 자유분방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해서 벼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벼슬을 하고 출세를 하고 싶어했지만, 권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권필은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문학작품으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光海君)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필은 광해군에게 벌을 받는데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배지로 가던 길에 권필은 사망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사망한 것인데요. 권필이라는 작가의 생애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권필이라는 작가의 생애와 <주생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권필의 생애나 성격보다 중요한 것은 권필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권필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인 1592년에 왜국(倭國), 바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일으킨 전쟁을 말합니다.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지리적 조건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이 명나라, 즉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궁극적으로는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우선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가 얽힌 전쟁입니다.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8년까지 무려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동아시아 3국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막대했습니다.

1592년에 일본이 일으킨 이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조선에서는 임진년에 왜군이 침략해서 난리를 일으켰다는 의미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분로쿠(文祿)·게이초(慶長)의 역(役)’이라고 합니다. 분로쿠는 1592년에서 1596년 10월까지 일본에서 쓰던 연호(年號)이고요. 게이초는 1596년 12월부터 일본에서 쓰던 연호입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으로 ‘분로쿠·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역’(役)은 전쟁을 의미하는 한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쟁을 ‘만력(萬曆)의 역(役)’이라고 부르는데요. 만력은 중국 명나라의 신종(神宗) 임금 때 쓰던 연호지요. 신종 임금의 재위 기간은 1573년에서 1620년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만력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 쓴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

다. 이 전쟁은 사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죠. 일본은 무려 20만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1592년 4월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4월 14일에 처음으로 조선의 부산성을 공격했는데요. 일본군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조선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의 수도인 서울을 점령하는 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니다. 조선의 피해는 정말 막심했습니다. 물론 조선 사람들은 열심히 일본군을 막았습니다. 조선 각지에서 민간인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의병(義兵)이 조직되어서 일본군에 맞섰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바다에서 일본 수군(水軍)을 무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는 어려웠는데요. 결국 조선은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생전>의 주인공인 명나라 사람 주생이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 권필이 우연히 주생을 만나게 됩니다. 주생은 권필에게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권필은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생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주생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권필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나는 마침 볼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그곳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 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펍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주생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밤에 불을 밝히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踏莎行) 한 편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았다. (...) 나는 그 노랫말에 담긴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여러 번 간절히 물었다. 이에 주생이 그 전말을 알려 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이다.

권필이 주생을 만난 것은 1593년의 일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죠. 이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견을 와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권필이 1593년에 전쟁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개성에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권필이 개성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필은 조선 사람이고 주생은 명나라,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 말이 통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한문으로 글을 잘 짓는 문인(文人)이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글을 써서 필담(筆談)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밤에 주생은 <답사행>이라는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주생이 지은 노래 가사에는 외로움과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듣고 권필이 주생에게 물은 것이죠.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런 노래를 지었는지, 또 왜 병이 들었는지를요. 이 질문에 대한 주생의 대답을 듣고 나서 권필은 <주생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주생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지금까지 <주생전>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생전>을 읽으면서 주생의 사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 주생과 배도의 사랑

먼저 <주생전>의 주인공 주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생의 이름은 주희(周檜)입니다. 대대로 중국의 전당(錢塘)에 살았다고 합니다. 전당은 지금 중국의 항저우(杭州)입니다. 주생의

부친은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생은 사대부(士大夫)에 속합니다. <주생전>은 주생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를 잘 지었다. 열여덟 살에 태학(太學)에 들어가서는 동급생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 또한 작지 않았다.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한시를 잘 지었다고 하지요. 열여덟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태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태학은 명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을 말합니다. 태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생은 왜 태학에 입학했을까요? 과거 시험을 보아서 벼슬을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주생의 부친도 지방에서 낮은 벼슬을 했는데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는 것은 명나라 사대부의 꿈이었습니다. 주생은 워낙 글재주가 뛰어났으니까 과거 합격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생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태학에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연거푸 과거에 낙방하자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속의 사람이란 티끌 속에 갇들어 사는 가녀린 풀잎과 같을 따름이야. 명성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 티끌 속에서 골몰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서야 되겠는가!”

그 뒤로는 마침내 과거 볼 생각을 완전히 끊어 버렸다.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몇 번이나 보았지만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과거 시험 보는 일을 그만 두기로 합니다. 과거 합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의 인생은 이 넓은 세상 속의 작은 풀잎과 같다고 말하면서요. 주생은 과거 합격에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덧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그만둡니다.

그다음에 주생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작은 배 한 척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삽니다. 작은 배에 잡화를 싣고 강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학에 다니며 공부만 하던 사대부가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명나라에서는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주생은 어느 날 전당(錢塘)에 도착했습니다. 전당은 바로 주생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당에는 주생이 어린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주생은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주생의 어린 시절 친구 중에 배도(裴桃)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생과 배도는 어린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배도는 기녀(妓女)였는데요. 재주와 미모가 전당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주생은 배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배도는 아주 정답게 주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주생은 배도에게 시 한 편을 지어줍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배도는 그대로 있구나라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배도는 주생의 시를 보고 감탄합니다.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난 선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도는 주생에게 결혼을 했는지 묻습니다. 주생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배도는 주생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권합니다. <주생전>에서 이 대목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께선 배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 드릴게요.”

배도는 주생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주생 역시 배도의 고운 자태에 흠뻑 반하여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배도는 주생이 지은 시를 보고, 주생에게 반하게 됩니다. 배도는 아마도 글재주가 뛰어난 선비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배도가 주생에게 좋은 짝을 구해 준다고 했지요? 그 좋은 짝은 바로 배도, 자신인 것 같습니다.

주생도 배도를 보고 반했습니다. 주생은 배도의 미모에 반해서 배도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주생은 배도가 지은 시를 보게 되는데요. 배도 역시 시를 잘 지었습니다. 기녀는 주로 사대부 남성에게 유희를 제공하던 여성들을 말하죠. 기녀는 유희의 자리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또는 악기 연주를 하기도 했지만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손님인 남성 사대부들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술자리의 흥을 돋우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최고의 기녀였던 배도는 한 시를 잘 지었습니다. 배도가 지은 시를 본 주생의 마음이 <주생전>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주생은 배도의 미모에 반했던 데다 배도의 빼어난 시까지 보고는 마음을 온통 빼앗겨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하얗게 재로 변하였다. 차운시(次韻詩)를 지어 배도의 마음을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각을 모으며 고심했지만 끝내 시를 짓지 못했다.

주생 역시 시를 잘 짓는 여성, 그러니까 자신과 한시로써 통할 수 있는 여성을 찾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자신과 취향이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생은 시를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배도의 시가 훌륭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시를 잘 짓는 아름다운 여성 배도에게 반해버리고 만 것이죠. <주생전>에서는 배도에게 반해버린 주생의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재처럼 변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각적인 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생은 차운시를 지어서 배도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한시에는 정해진 운자(韻字)가 있습니다. 시를 쓸 때 이런 한자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미리 정해두는 것인데요. 어떤 시와 같은 운자를 써서 지은 시를 차운시라고 합니다. 주생은 배도의 시와 같은 운자를 써서 시를 짓고, 그 시를 배도에게 보여준 뒤에 배도의 반응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했지요. 한시를 통해서 배도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주생전>에서는 한시가 남녀 주인공이 애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던 다른 애정전기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생기우전>이나 <이생규장전>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상대방이 지은 한시를 보고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죠. 또 한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정 전기소설에서는 한시가 애정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이 시를 짓는 솜씨가 훌륭한 인물들로 설정이 되는 것 같고요.

<주생전>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배도에게 보낼 차운시를 짓지 못해서 고심하던 주생은, 밤이 되어 배도의 방으로 가 봅니다. 배도는 혼자 앉아서 노랫말을 짓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생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배

도의 방으로 들어가 노랫말을 마지막 부분을 지어줍니다. 배도는 주생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주생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배도의 할아버지는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벼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신분이 평민으로 강등되었고 그 이후로 집안이 가난해졌습니다. 게다가 배도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배도는 결국 기녀가 된 것입니다. 배도가 원해서 기녀가 된 것이 아니라, 집안이 가난했고 자신을 지켜줄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녀가 된 것이었죠. 배도는 정절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말합니다. 기녀는 남성 손님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다 주생을 보고 배도는 영원히 주생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배도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서방님의 훌륭한 풍채와 빼어난 재주를 보니, 제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잠자리 시중을 들고 영원히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방님께서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신 뒤에 제 이름을 기적(妓籍)에서 빼내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제 소원은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도는 주생의 외모와 글재주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생을 모시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죠. 그리고 주생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오르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적에서 빼 달라고 말이죠. 기적은 기녀의 이름을 등록해 놓은 명부를 말합니다. 전근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기녀는 국가나 지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던 사람들이었고요. 한 번 기녀로 등록이 되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기녀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죠.

그래서 배도는 주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평민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배도가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주생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도는 주생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주생이라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사정이나 속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도에게 주생은 자신의 사정과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생은 배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성 앞에서 감동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배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배도는 기녀입니다. 주생에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 달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주생이 나를 그냥 기녀로만 여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겠죠. 주생은 자신의 사랑을 밝은 달에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제 주생과 배도의 사랑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짝을 찾은 두 주인공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생전>에서 주생과 배도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다른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의 신분이 어땠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생기우전>과 <이생규장전>에서 두 남녀 주인공의 신분은 모두 사대부층, 또는 귀족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의 집안이 여자 주인공

의 집안에 비해 한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분은 사대부층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이었어요. <운영전>에서는 어땠습니까? 남자 주인공은 사대부였지만, 여자 주인공은 평민 출신의 궁녀였지요? 남자 주인공은 지배계층이었지만, 여자 주인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현하는 데에 신분의 차이가 장애가 되었습니다. <주생전>은 어땠습니까? 남자 주인공은 사대부층으로 지배계층이지만, 배도라는 여성은 평민보다 아래에 있는 기녀 계층입니다. 남녀 주인공의 신분의 차이가 <운영전>에 비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가 주생과 배도의 사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주생전>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 4. 주생과 선화의 사랑

주생과 배도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주생은 배도에게 빠져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배도의 집에 머물습니다. 온종일 배도와 함께 비파를 연주하고 술을 마시며 웃고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배도를 찾아옵니다. 당시 전당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성이 노씨(盧氏)이고, 승상(丞相) 벼슬을 지냈습니다. 승상은 명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집안은 최고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죠. 승상이 사망한 뒤에 그 부인은 아들, 딸과 함께 살았는데요. 연회를 여는 것을 즐겼습니다.

연회에는 춤과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승상의 부인은 연회를 열 때면 기녀인 배도를 불러서 춤과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배도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승상 부인댁의 하인이었는데요. 배도에게 부인의 댁으로 와서 춤과 노래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배도는 명문가 부인의 부름을 거절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배도는 부인 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도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던 주생은 배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부인 댁의 대문 밖에서 주생은 배도를 기다렸는데요. 한참을 기다려도 배도가 나오지 않자 주생은 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몰래 숨어 들어간 주생은 마침내 배도가 있는 방을 발견하는데요. 배도는 부인, 그리고 부인의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주생은 부인의 딸을 보게 됩니다. 부인의 딸을 본 주생을 <주생전>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부인의 곁에는 열네댓 살쯤 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구름처럼 풍성한 검은 머리에 두 뺨은 취한 듯 연분홍색을 띠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을 옆으로 돌릴 때면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달 같고, 어여쁘게 웃음 지을 때마다 생기는 보조개는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모습 같았다.

소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요? 주생의 눈에 비친 소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생은 배도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런 주생이 다른 여자를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생은 지금 대체 어떤 마음인 걸까요? 주생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소녀의 사이에 앉은 배도의 모습은 봉황의 곁에 선 올빼미만도, 진주 곁에 놓인 조약돌만도 못해 보였다.

주생은 구름 너머로 낮이 날아간 듯, 하늘 위로 마음이 날아다니는 듯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일었다.

주생은 소녀를 보고는 너무도 기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생의 흥분과 환희를 <주생전>의 작가 권필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름 위로 낮이 날아간 듯, 하늘 위로 마음이 날아다니는 듯”하다고 서술하면서 주생의 마음에 일어난 엄청난 동요를 잘 표현했습니다. 소녀에게 빠져버린 주생은 소녀와 배도를 비교합니다. 주생의 눈에 소녀는 봉황과 진주로 비춰졌습니다. 반면에 배도는 올빼미와 조약돌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봉황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황은 상상 속의 새죠. 봉황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서롭고 아름다운 새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할 만큼 고귀한 새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주생은 소녀를 봉황에 비유합니다. 또 아름답고 귀한 보석인 진주에 비유합니다.

이제 주생의 눈에 배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생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일평생 단 하나의 사랑을 했습니다. 또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생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하나가 아닙니다. 주생은 두 번의 사랑을 합니다.

주생의 첫 번째 사랑은 끝났습니다. 이제 주생의 마음은 온통 소녀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생은 일단 소녀에 대한 사랑을 숨깁니다. 주생은 소녀를 본 일을 배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자는 척을 합니다. 소설이 점점 재미있어지는데요. 주생은 자는 척을 하다가 배도가 돌아오자 승상 부인 댁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소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죠. 배도는 소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가 끝난 뒤 부인에게서 다른 기녀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그 댁 따님 선화(仙花)의 방에 저만 따로 남게 하시더니 작은 술상을 또 베풀었기에 조금 늦게 됐어요. (…)

선화는 자(字)가 방경(芳卿)이에요. 나이는 이제 막 열다섯이 되었지요. 용모와 자태가 곱고 우아해서 속세의 사람이 아닌 듯해요. 노랫말도 잘 짓고 자수도 잘하니 저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녀는 바로 부인의 딸 선화였습니다. 선화는 나이가 열다섯 살이고 외모가 고왔으며 게다가 우아했습니다. 그런 자태에 주생이 마음을 빼앗긴 것이겠죠. 선화는 노랫말을 잘 짓는다고 했는데요. 이 노랫말도 물론 한문으로 짓는 시의 일종입니다. 선화는 외모가 아름답고 한문으로 된 시를 잘 짓는 여성인 거죠. 애정전기소설의 여성 주인공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의 일부를 주생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노랫말을 듣고 주생은 선화의 글재주에 감탄합니다. 그렇지만 배도에게 내색을 하지는 않았죠. 선화를 보고 난 뒤 주생의 마음이 어땠는지 <주생전>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생은 선화를 본 뒤로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식어 버렸다. 말을 주고 받을 때에도 억지로 웃음 지으며 기뻐하는 척할 뿐 마음속엔 온통 선화 생각뿐이었다.

이 대목을 보시고, 사랑이 저렇게 쉽게 변하다니! 또 사랑이 식은 것을 배도에게 숨기다니! 하면서 주생을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생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화에 대한 주생의 사랑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주생전>을 계속해서 읽어보

했습니다. 선화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국영(國英)입니다. 부인은 주생이 글을 잘 짓는 사대부라는 것을 알고, 주생을 아들 국영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주생에게는 선화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주생은 속으로 아주 기뻐했습니다. 선화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생은 국영의 집으로 가서 국영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배도는 주생이 국영의 집, 다시 말해서 선화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하기로 했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주생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주생은 국영의 집에 3만 권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독서와 공부를 위해 국영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배도를 설득합니다. 사실 주생의 진짜 의도는 국영의 집에 거처하면서 선화를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생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배도는 주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주생을 보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도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도가 좀 안타깝습니다.

주생은 국영의 집에 들어갔지만, 열흘 동안 선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선화의 가문은 명문가이고 예절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집에 있다고 해도 선화가 가족이 아닌 주생을 만나볼 수는 없었죠. 남녀가 유별한 것이 귀족의 예절이었습니다. 주생은 결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본래 선화를 만나보기 위해서였건만, 지금 좋은 봄날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차라리 깊은 밤에 선화의 방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 안 되면 죽기밖에 더하겠어?’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며 애를 태우느니 차라리 선화의 방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몰래 선화의 방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화를 만나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조금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생은 몇 개의 담장을 넘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드디어 선화의 방 앞에 도착합니다. 선화는 노랫말을 읊고 있었는데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주렴 밖에서 그 누가 문을 밀치나 / (...) / 누군가 했더니 /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네.”

노랫말을 살펴보면, 선화는 자신의 방 앞에 누군가 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죠? 주생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바람소리라 하지 마오 / 진짜 님이 오셨으니.”

선화는 주생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척하고 방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주생은 선화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아직 사랑이 깊어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남녀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바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 속의 설정입니다. 현실이 그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화와 주생은 동침을 하면서 지극한 기쁨을 느낍니다. 새벽이 되어 주생은 선화의 방에서 나오는데요. 선화는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사랑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주생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생과 선화의 사랑은 남자 주인공 주생이 주도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생이 깊은 밤에 몰래 선화의 방에 뛰어들어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생과 선화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한시(漢詩)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화가 지은 노랫말에 주생이 화답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생과 선화는 비밀스런 만남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선화는 어머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남몰래 주생과 사귀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선화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몸은 늘 근심과 함께 살아가지요. 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게 되지만 바라고, 만나고 난 뒤에는 헤어질까 두려워해요. 그러니 여자의 몸이 어디 간들 근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서방님께선 남의 집 처녀를 엿보는 잘못을 범하셨고 저는 부정하게 남자를 만나는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하루아침에 불행한 일이 생겨 우리의 일이 드러나고 만다면 친척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고, 마을에서도 천시당하겠지요. 그리고 나면 서방님과 손잡고 평생을 함께하고자 한들 어찌 그리될 수 있겠습니까?”

선화는 주생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를 함께 했지요? 전근대에 중국이나 한국 여성들에게는 정조 관념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선화는 주생과 잠자리를 함께 한 일이 들통나서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주생은 선화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내대장부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소? 중매를 통해 혼약을 맺고 모든 예를 갖추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테니 걱정할 것 없소.”

주생은 정식으로 모든 절차를 갖추어 선화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하죠. 선화는 비로소 안도를 합니다. 선화는 반으로 쪼갠 거울과 부채를 주생에게 정표로 주지요. 이후로 주생과 선화는 밤마다 비밀스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밤에 만났다가 새벽에 헤어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생의 사랑은 온전히 선화만을 향해 있지요. 배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생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으니, 배도가 의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생은 배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선화는 주생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뒤지다가 예전에 배도가 주생에게 써주었던 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배도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배도의 시가 적힌 종이에 검게 먹칠을 해 버립니다. 그다음 선화는 자신이 쓴 시를 주생의 가방에 넣어둡니다. 선화의 질투가 앞으로 어떤 사건을 불러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주생전>을 살펴보겠습니다.

## 5.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

지금까지 주생과 선화가 어떻게 사랑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생이 처음에는 배도를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변해서 선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배도는

주생과 이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도는 주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생전>에 그려진 사랑은 주생, 배도, 선화 세 사람의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삼각관계가 된 것입니다. 세 주인공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될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화의 어머니인 부인이 잔치를 열어서 배도를 집으로 부릅니다. 배도가 선화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배도는 우연히 주생의 가방을 열어보았는데요. 자신이 예전에 주생에게 써 주었던 시에 먹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배도는 그것이 선화의 소행임을 알아차리죠. 배도는 화가 나서 선화가 주생에게 써 준 노랫말을 몰래 챙겨둡니다. 이제 배도가 선화와 주생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배도는 이제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요? <주생전>의 한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가 천천히 물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영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해서 그렇지.”

“처남을 가르치자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생은 무안해져 얼굴과 목덜미가 벌겍게 되었다.

주생은 배도에게 선화와 관계의 문제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국영을 가르친다는 것은 핑계이고, 선화를 만나기 위해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다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도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주생 앞에 던지며 말했다.

“담을 뛰어넘어 정을 통하고, 담장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몰래 만나는 것이 군자(君子)가 할 일입니까? 들어가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아뢰렵니다.”

배도가 몸을 일으키자 주생은 허둥지둥 배도의 몸을 꺼안았다. 주생은 그간의 일을 사실대로 말한 뒤 머리를 숙이고 애걸했다.

“그대는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면서 나를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려 하는가?”

배도는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돌아가세요. 그러지 못하겠다면 서방님이 이미 약속을 저버렸는데, 제가 맹세를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장면 어떠십니까? 마치 오늘날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주지 않나요? 연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도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배도는 주생에게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내놓습니다. 배도는 주생과 선화가 몰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게 된 거죠. 배도는 주생과 선화가 몰래 사랑에 빠진 일을 선화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당황한 주생은 배도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걸하지요.

주생의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은 지금 배도에게 선화와 사랑을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생은 배도에 대한 신의(信義)를 저버렸습니다. 배도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면,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닐까요? 주생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을 좇을 뿐, 의리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배도는 여전히 주생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생이 애원을 하자 마음이 약해지

니까요. 배도는 주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생은 배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배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속상해 하고요.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듭니다.

얼마 후에 선화의 동생 국영이 병들어 죽고 맙니다. 국영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국영의 죽음은 주생에게 더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이상 선화의 집에 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국영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선화의 집에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배도가 병에 걸립니다. 주생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배도는 죽음을 앞두고 주생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제가 죽은 뒤 선화를 아내로 맞으시고, 서방님이 자주 오가는 길가에 제 뼈를 묻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죽어도 산 것과 다를없을 거예요.”

배도는 죽어가면서도 주생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주생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배도의 죽음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생은 배도의 장례를 치러주고 결국 전당을 떠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멀리서 선화의 집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고는 배를 타고 전당을 떠납니다.

전당을 떠난 주생은 친척인 장노인(張老人)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가 임진년,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생은 선화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날로 초췌해졌습니다. 장노인이 그 이유를 물었고, 주생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장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진작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는 노승상(盧丞相)과 성씨가 같아 대대로 집안끼리 잘 알고 지냈다. 내가 혼사를 추진해 보마.”

주생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장노인은 자기 아내가 선화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이니, 주생과 선화의 혼사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장노인은 그 다음날 하인을 전당으로 보내 혼사를 의논하게 합니다.

그러면 선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선화는 주생과 헤어진 뒤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선화의 어머니는 주생 때문에 선화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주생과 선화의 인연을 이어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생이 이미 떠나버려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노인이 주생과 선화의 혼인을 청한 겁니다. 부인이 선화와 주생의 혼사를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요. 선화의 집에서는 1592년 9월로 혼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제 주생과 선화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화는 주생에게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변하지 않은 사랑을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주생은 선화와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결혼할 날짜를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화에게 답장을 썼지요. 선화에게 보낼 편지를 써놓고 아직 보내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강의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지요? 1592년 4월에 일본군이 조선의 부산을 침입했는데요. 일본군이 북쪽으로 진격해 오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은 지성으로 명나라를 섬기는 나라이니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기로 합니다. 만일 일본군이 계속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조선이 무너지고 명나라의 국경을 넘어온다면, 명나라 입장에서도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명나라 황제는 이여송(李如松)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가서 왜적을 토벌하라고 합니다. 조선으로 가게 된 명나라 장군 중에 주생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생을 부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생은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온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황해도 개성의 어느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요. 개성의 여관에서 <주생전>의 작가 권필을 만납니다. 주생이 권필에게 들려준 사랑 이야기가 바로 소설 <주생전>이 된 것입니다. 주생은 권필에게 배도, 그리고 선화와 주고받은 시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생과 배도, 선화의 시를 보고 권필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주생전>이라는 소설로 창작한 것이죠.

작가 권필은 <주생전>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생은 나이가 스물일곱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았다.

주생은 외모가 그림처럼 수려했다고 하지요. 게다가 시를 짓는 재주가 아주 훌륭했으니 재자(才子) 중의 재자입니다.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이 될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주생은 이전에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과는 다릅니다. 한 여인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생은 처음엔 배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배도를 배신하고 선화를 사랑했습니다. 주생이 배도와 헤어진 뒤에 선화를 사랑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주생은 배도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도를 여전히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선화를 사랑했습니다. 배도에게 사랑은 주생 뿐이었는데, 주생은 배도를 배신했습니다. 배도가 죽으면서 결국 주생과 선화의 사랑만이 남게 되었지만, <주생전>은 세 사람의 사랑, 즉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애정전기소설과 아주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주생, 배도, 선화의 관계는 어찌 보면 현대인의 삼각관계 같습니다. 현대의 드라마나 영화, 노래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과 배신의 형태 같지요. 다시 말해서 주생, 배도, 선화의 사랑은 현실 속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애정전기소설은 단 하나의 사랑,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을 그려냈는데요. 이와 달리 <주생전>은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6.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권필의 <주생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주생전>은 주생, 배도, 선화라는 세 사람의 사랑과 이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한국 애정전기소설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있었던 단 하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려내는데요. <주생전>은 다릅니다. <주생전>은 세 남녀 사이의 사랑과 이별, 즉 삼각관계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이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던 한국 애정전기소설과는 달리 <주생전>에는 초현실성과 환상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생전>에는 천상의 신선이나 귀신 같은 초현실적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랑과 이별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진왜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생전>은 상당히 현실성이 강화된 애정전기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생전>에는 사랑의 낭만성만이 남은 것이죠.

여러분께 주생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나 태학(太學)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였다. (O/X)  
정답: X
2. 주생과 배도는 어린 시절에 전당(錢塘)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다. (O/X)  
정답: O
3. 주생은 조선에 와서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다. (O/X)  
정답: O
4. 주생은 임진왜란 때 자원하여 명나라 구원병으로 참전하였다. (O/X)  
정답: X
5. 주생과 권필은 필담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작가 권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권필은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권필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다.  
③ 권필은 <주생전>을 지어 자신의 문집인 <석주집>(石洲集)에 수록하였다.  
정답: ①
2. 다음 중 주생과 배도의 사랑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생은 소설을 지어서 배도에게 마음을 전달하였다.  
② 주생은 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③ 배도는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주생의 행복을 빌었다.  
정답: ①
3. 다음 중 주생과 선화의 사랑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화는 주생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노랫말을 읊었다.  
② 선화는 반으로 쪼갠 거울과 부채를 주생에게 정표로 주었다.  
③ 주생은 친척 장노인의 도움으로 선화와 결혼식을 올렸다.  
정답: ③
4. 다음 중 주생·배도·선화의 삼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선화는 주생과 배도의 관계를 알고 주생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

② 선화는 배도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배도의 시가 적힌 종이에 검게 먹칠을 했다.

③ 주생은 배도와 선화 사이에서 결국 배도와의 사랑을 선택했다.

정답: ②

5. 다음 중 <주생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주생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 한문으로 창작된 애정전기소설이다.

② <주생전>은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을 잘 보여준다.

③ <주생전>은 <답사행>(踏莎行)이라는 노래에 담겨 있는 사연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③

###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권필은 주생을 ○○의 여관에서 만나 그의 사연을 듣고 <주생전>을 지었다.

정답: 개성

2. <주생전>에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 세 가지 중 ○○○만 남아있다.

정답: 낭만성

3. 배도는 주생에게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 신분을 ○○ 신분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다.

정답: 기녀 - 평민

### 나. 토의(30분)

주생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과 달리 일평생 단 하나의 사랑을 하지 않고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였다. 주생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토의해 봅시다.

### 다. 과제(60분)

권필의 <주생전>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애정전기소설이다. <이생규장전>이나 <운영전>과 <주생전>을 비교하는 글을 써 봅시다.

■ 참고자료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권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임진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KBS 역사저널 그날 - 임진왜란 원군 요청, 명의 선택은? ([영상 보기](#))

## <6차시> 사랑과 자유 - 기생의 사랑

### ■ 학습목표

1. 조선의 기생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 <소를 탄 여자>를 감상하고 주인공인 평양 기생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기생 황진이의 삶과 사랑에 대해 알아본다.
4. 기생 황진이와 계랑의 시조를 감상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평양 기생의 사랑 - <소를 탄 여자>
3. 황진이의 사랑
4. 기생의 사랑 노래
5.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번의 강의를 통해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주생전>이라는 소설을 함께 감상했던 것 기억하시죠? <주생전>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배도(裴桃)라는 기생(妓生)이었습니다. <주생전>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도는 중국 기생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전문학 작품 중에는 기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 문학 작품이 많습니다. 기생이 지은 시도 여러 편이 전해지고요. 기생은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특수한 여성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기생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기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 작품들과 기생이 지은 시를 몇 편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생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죠? 기생은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기녀(妓女)라고도 부릅니다. 기생은 지금은 없지만요. 전근대 시기에 잔치나 큰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흥을 돋우는 일을 했던 여성을 말합니다. <주생전>을 다시 떠올려볼까요? <주생전>의 여자 주인공 배도는 기생이었지요? 배도는 승상의 부인이 여는 잔치에 불려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도는 주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면 자신의 이름을 기생 명부에서 지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배도는 왜 주생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전근대 시기에는 국가가 기생 명부를 만들고, 기생을 모두 명부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주생전>은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중국 명나라에서도 기생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전근대 한국에서 기생은 국가가 특별하게 관리하던 계층이었습니다.

전근대 한국에서 기생은 신분상으로는 천민(賤民), 즉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는데요. 기생이라는 신분은 세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일 경우 그 딸은 당연히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생이 아들을 낳으면 천민인 노비가 되었고요. 이때 아버지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아서 천민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생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나라인데요. <고려사>(高麗史)라는 역사서에 보면 11세기 초에 고려에는 기생들을 가르치는 교방(敎坊)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방에서는 기생들에게 춤과 노래, 또 음악 연주 등을 가르쳤는데요.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큰 행사에 기생들을 동원해서 춤과 노래를 공연하게 했습니다. 또 왕조시대에는 왕이나 왕자, 공주를 위해 잔치를 여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잔치에도 기생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음악 연주나 가무(歌舞) 공연만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도 했는데요. 고려의 제32대 임금인 우왕(禑王)은 기녀에게 푹 빠져서 정치를 게을리했다고 합니다. 밤이면 기생들을 불러놓고 유희를 즐겼다고 하네요. 또 일부 고위 관리들이 아름다운 기생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생은 이렇게 신분과 지위가 높은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기생은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기생은 국가에 의해 관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천민 신분이었구요. 조선시대에도 기생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을 배워서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을 위해 공연을 했죠. 기생은 주로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노는 자리에 가서 흥을 돋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던 기생과 지방 관청에서 관리하던 기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생을 관리하는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더이상 국가에서 기생을 관리하지 않게 됩니다. 기생 제도가 폐지된 것이죠.

앞서 기생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을 배워서 공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기생 중에 시를 잘 짓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신분이 높은 남성들과 주로 어울렸으니까요. 신분이 높은 남성들의 취향에 맞춰서 시 짓는 법도 배우고 그림 그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생은 한편으로 고급 예술을 전수하는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화가인데요. 신윤복은 기생이 잔치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또 남성들이 유희를 즐기는 자리에서 기생이 악기 연주를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신윤복은 기생의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기생은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은 신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천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서 자유롭게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였습니다. 유교적 원리에 따라 국가 체제가 마련되었구요. 조선 사람

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결혼 역시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양반 신분인 유학자(儒學者)들은 유교 경전(經典)인 <소학>(小學)을 중시해서, 남녀 관계도 <소학>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은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선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은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다가 결혼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남녀칠세부동석은 양반, 중인, 평민 계층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었습니다. 기생에게는 이러한 규범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니다. 기생은 유교적인 규범 같은 것은 지킬 필요도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생은 남성의 요구에 언제나 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기생은 남성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남성과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남성을 골라서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곤 거죠. 조선시대의 문학 작품 중에는 기생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바람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자유로운 사랑을 꿈꾸는 기생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고전문학에는 기생의 사랑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저와 함께 감상해보시겠습니다.

## 2. 평양 기생의 사랑 - <소를 탄 여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소를 탄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문으로 쓰인 단편 서사인데요. 이륙(李陸)이라는 분이 이 작품을 지었습니다. 이륙은 조선 초기의 인물입니다. 물론 신분은 양반이고요. 1438년에 태어나서 149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륙은 누군가로부터 어느 평양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를 탄 여자>라는 작품을 지은 것 같습니다.

<소를 탄 여자>라는 작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박온(朴溫)이라는 사람이 평양(平壤)에 갔다가 대동강(大同江) 근처에서 소를 타고 가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평양은 지금 북한의 수도죠. 평양은 조선시대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지요. 박온은 대동강 가에서 소를 타고 가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은 40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고왔습니다. 박온은 그 여인이 왜 소를 타고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노인도 아닌 여인이 걸어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소를 타고 갈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왜 소를 타고 가는지 물었습니다. 여인은 “저는 본디 평양의 기생입니다. 젊은 나이에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타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한다고 하니 여인의 처지가 안타깝지요? 여인은 사실 발가락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양의 기생이었던 여인은 어쩌다가 발가락을 모두 잃게 된 것일까요? 평양 기생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꽤 미모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손님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동찰방(大同察訪)은 한 번도 가까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동찰방이 새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은 강씨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

에 오시는 찰방은 놓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지요.”

앞에서 조선시대에 기생은 국가에서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기생이 있었고, 지방 관청에서 관리하던 기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은 평양 관아에 소속된 기생이었습니다. 지방 관아에 소속된 기생들도 물론 높은 신분의 관원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으로 부임해 오는 관원들은 대부분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부임을 합니다. 그렇게 부임해 온 남성 관원들의 시중을 들고, 남성 관원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지방 관청의 기생들이 담당했는데요.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 평양 기생은 외모가 아름다워서 여러 관원들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동찰방이라는 관직을 맡은 남성은 모셔보지 못했다고 했죠. 대동찰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동역(大同驛) 역장입니다. 대동역은 평양 부근에 있었던 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기차가 없었죠? 조선시대의 역은 기차 정류장이 아니고요.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공문이나 물품 같은 것을 말에 실어서 전달을 했지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고속도로 같은 간선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도로 중간중간에 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에서는 공문을 전달할 때 쓰는 말을 관리했습니다. 찰방은 역을 관리하는 역장을 가리키는데요. 대동찰방이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는 대동역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평양 기생은 새로 부임하는 대동찰방과 꼭 잠자리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정을 나눌 상대를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기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제 조선시대에 평민 이상의 신분에 속한 여성은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남녀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있었지요. 부모님이 정해진 상대와 결혼을 해야했지요. 반면에 기생은 내가 어떤 남성과 사랑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인 평양 기생이 기생의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과 사랑을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때마침 대동역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바라보니 대동강 동쪽 언덕에 말이 달려 먼지가 일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새로 부임한 대동찰방의 행차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뱃속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걸으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 작은 체구에 붉은빛이 도는 수염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용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던 까닭에 그에게서 시선을 잠시도 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대동역장이 등장했습니다.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이 온다는 말만 듣고도 몹시 동요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던 대동역장이니까요. 창자가 뒤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사실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동역장의 외모는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감상했던 문학 작품의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외모가 출중하고 글재주가 훌륭했었죠? 그런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평양 기생에게 대동역장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대동역장이라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래서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을 모시게 됩니다. 밤이 되어 대동역장과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밤새도록 잠만 자고 제게 말 한마디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그랬지요. 저는 혼자 속으로 제 외모가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한스러운 생각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사흘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야 그분은 저를 불러서 드디어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도록 저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를 지경이었답니다.”

평양 기생은 꿈에 그리던 대동역장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역장은 기생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기생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고 하죠. 평양 기생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나?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지? 기생이 옆에 있는데 어째서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지 않지? 이런 걱정들을 했겠죠. 기생은 걱정을 하느라 사흘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이 간절하게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대동역장은 기생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양 기생은 드디어 간절하게 원하던 남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밥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평양 기생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대동역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인데요. 모친에게 병환이 생겨서, 대동역장은 휴가를 얻어 본가에 갔습니다. 대동역장이 평양에 없는 사이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은 기생이죠? 평양 관아에 소속된 기생입니다. 관청에서 지시를 하면 기생은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이때 서울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대감 한 분이 평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러 평양에 온 것인데요. 평양 관아에서는 이 기생에게 대감을 모시라는 명을 내립니다. 새로 모시게 된 대감은 나이가 많았지만, 대동역장보다 훨씬 관직도 높고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대감은 이 기생을 아주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인 평양 기생은 마지못해서 대감을 모실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대동역장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어느날 기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에 이 늙은이가 불행하게도 너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면 네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이 기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너와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마음은 어떠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평양 기생은 대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감께서 돌아가신다 한들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감이 돌아가시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대답을 한 겁니다. 평양 기생의 마음에는 오직 대동역장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랑에 너무나 깊이 빠져버려서 평양 기생은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국가에 예속된 존재이자,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인 기생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것입니다.

감히 일개 기생이 신분도 높고 관직도 높으며 연세도 높은 대감께 무례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생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규범을 지킬 필요도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기생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여성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생에게는 신분이 높은 남성을 극진히 모셔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남성 관원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기생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런 기생이 양반 대감의 질문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더구나 대감은 이 평양 기생을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대감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이 기생

이 무사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평양 기생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기생은 평양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평양 관아에서 형벌을 내립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소를 탄 여자>의 배경이 된 시대는 조선 초기입니다. 신분제 사회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분이 높은 관원을 화나게 한 기생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은 매를 맞았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아서 발가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평양 기생은 매를 맞은 뒤에 그 후유증으로 1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기생은 소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평양 기생이 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사건은 기생을 처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생을 관리하던 평양 관아의 관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노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대동역장 또한 해고되었습니다. 기생이 사랑에 푹 빠져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평양 기생은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대동역장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 같은 미천한 기생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본래 사랑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랑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노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 기생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대동역장을 사랑하다가 처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자유를 꿈꾸다가 벌을 받은 기생의 이야기 <소를 탄 여자>를 감상해보았습니다.

### 3. 황진이의 사랑

다음으로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 짐작하셨습니까? 바로 황진이(黃眞伊)입니다. 황진이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천민이다 보니 출생 기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6세기에 살았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학자 중에 서경덕(徐敬德)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서경덕은 1489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경덕은 당대에 아주 저명한 학자였는데요. 황진이가 젊은 시절에 서경덕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황진이가 16세기에 살았던 기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진이는 황해도 개성(開城)에서 활동한 기생입니다. 개성에는 유명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박연폭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경덕이라는 학자, 그리고 기생 황진이입니다. 이 정도로 황진이는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황진이가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황진이에 관한 일화가 많이 전해집니다.

황진이는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소박한 옷을 입었지만 워낙 타고난 자태가 고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황진이는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이덕형(李德炯)이라는 양반 사대부가 황진이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덕형은 황진이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덕형은 황진이의 친척에게서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덕형의 글에 보면 황진이의 노래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황진이가 용모를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소리가 탁 트였으면서도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아 하늘의 구름까지 올라가 닿을 듯했다. 가락이 맑고 고와 보통의 노래 솜씨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황진이의 노래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싶습니다. 노랫소리가 맑고 고운 데다, 호흡이 아주 길어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황진이의 노래 솜씨를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또 황진이는 기생이기는 했지만, 성격이 고상했습니다. 방탕하게 노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선비들과 교유하는 것을 좋아했고 문학에 대한 교양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직접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황진이가 당대의 저명한 학자인 서경덕을 찾아간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황진이와 서경덕의 일화는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이 인품이 고결하고 학문 수준이 매우 높은 학자라는 말을 듣고, 서경덕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시험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기생이었죠.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서 서경덕이라는 학자를 유혹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성은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황진이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서경덕을 유혹해 보려고 한 겁니다.

황진이는 <대학>(大學)이라는 유교 경전을 들고 서경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경덕에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제가 학문에 뜻이 있어서 선생님께 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서경덕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밤이 되면 여성으로서 서경덕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경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일화는 황진이와 서경덕 두 사람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배포가 큰 인물로 그려지죠. 서경덕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를 유혹해 보겠다는 생각을 평범한 기생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출나고 비범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죠. 서경덕은 황진이 같은 미인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다. 오히려 황진이를 제자로 여기고 글을 가르쳐 주었죠. 서경덕이라는 학자의 비범함을 이 일화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황진이와 서경덕은 개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황진이는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주도하는 기생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유몽인(柳夢寅)이 지은 <어우야담>(於于野談)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몽인은 1559년에 태어나서 162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진이보다 조금 후대의 인물이죠. 유몽인은 높은 관직을 두루 역임한 관리이기도 하고,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지은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우선 <어우야담>이라는 책 제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담’은 한국 고전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한문으로 쓰인 짧은 서사물입니다. 야담은 대부분 조선의 양반층이 썼습니다.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양반층이 야담을 썼는데요. 양반층의 작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서사의 양식으로 구성해서 한문으로 기록한 작품을 야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지만, 들은 이야기를 서사물로 구성을 할 때 작가의 창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작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야담은 소설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유몽인의 작품 중에도 소설에 가까운 작품들이 있는데요. 황진이에 대한 작품은 사실의 기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우야담>에 실린 황진이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이와 이사종(李士宗)이라는 남성의 계약 동거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전관(宣傳官) 이사종(李士宗)은 노래를 잘 불렀다. 일찍이 임금의 명을 받아 송도(松都)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 천수원(天壽院) 시냇가에 말을 세우고 쉬다가 모자를 벗어 배 위에 올려놓고 드러누워 노래 몇 곡을 소리 높여 불렀다. 황진이는 마침 갈 곳이 있어 나왔다가 역시 천수원에서 쉬고 있었다.

이사종은 선전관(宣傳官)이라고 했지요. 선전관은 무관(武官)의 한 관직입니다. 임금을 곁에서 호위(護衛)하거나 임금의 명령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관직입니다. 이사종은 당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개성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송도는 개성을 말합니다. 이사종은 개성 동쪽에 있는 천수원이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원’(院)은 교통의 요충지에 설치했던 공간인데요. 여행객들이 길을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사종은 천수원에서 쉬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때마침 황진이도 천수원에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우연히 이사종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의 다음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진이는 노랫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다가 혼자 말했다.

“이 노래는 솜씨가 범상치 않구나. 결코 시골구석의 노랫가락이 아니다. 서울에서 풍류(風流)를 즐기는 사람 중에 이사종이라는 이가 당대의 명창이라고 하더니, 그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탐문해 보았더니 과연 이사종이었다. 이에 즉시 자리를 옮겨 이사종과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날을 함께 지냈다.

황진이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이는 노래를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황진이가 대단한 명창이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대단한 명창의 노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마도 이사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은 이사종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최고의 예술가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가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사종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황진이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일반적인 여성이 가족도 아닌 남성에게 말을 붙인다든지, 남성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당대 최고의 가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6년 동안 동거하도록 하지요.”

황진이는 그 다음날 바로 이사종의 집에 3년 동안 먹고 살 재산을 옮겨 놓았다. 이사종의 부모와 처자식의 생계까지 모두 황진이가 맡았다. 그리고 황진이는 직접 작업복을 걸치고 아내의 도리를 다했으며, 이사종의 집에서는 조금도 돈을 쓰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3년을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이사종의 집에서 황진이 일가를 먹여 살렸다. 모든 것을 황진이가 이사종의 집에 했던 것과 똑같이 보답하였다. 3년을 다 채우자 황진이는 “이제 이미 서로 약속을 다 지켰고 기한도 찼습니다.” 하고 드디어 작별하고 떠났다.

황진이는 대뜸 이사종에게 6년 동안 동거를 하자고 합니다. 말하자면 계약 동거입니다. 이것은 황진이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가수에 대해 동거를 하자는 말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황진이의 모습을 보면 현대의 여성 예술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황진이는 자유분방했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와 살아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대담한 애정 표현이죠. 물론 황진이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애정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황진이는 또 상당히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사종과 동거를 하면서 3년 동안 이사종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지요. 또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헤어질 때는 정말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한 기한이 되었으니 이제 이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떠났다고 하지요. 황진이의 행동을 보면, 오늘날의 아주 자의식이 강한 여성 예술가의 행동이라고 해도 별로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황진이는 이렇게 특별한 여성이었고, 또 특별한 기생이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아주 빼어나고요.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대담했습니다. 노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 잘 지었는데요. 잠시 후에 황진이가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죠. 거리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성이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받았습시다. 황진이가 죽은 뒤에도 황진이에 대한 글이 여러 편 쓰였고요. 황진이의 삶과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 또 영화가 여러 번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황진이를 소재로 한 현대소설도 있습니다.

황진이는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기생으로서 대담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유분방하게 사랑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선 시대에 이런 여성도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의 사랑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 4. 기생의 사랑 노래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기생의 사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을 감상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생의 사랑 노래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기생이 지은 시조 가운데서, 사랑 노래 두 편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時調)이고요. 다른 하나는 계량(桂娘)이 지은 시조입니다. 시조는 한국 고전문학의 한 장르인데요. 한국 고전문학에만 있는 고유한 장르입니다. 시조는 한글로 지은 시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세 줄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수가 45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기생은 천민이었지만 양반 사대부 남성들과 어울려야 했지요? 양반 남성들은 연회를 열어 노는 자리에서 시를 지어 흥을 돋우고는 했습니다. 양반 남성들이 즐기는 연회에는 기생이 함께했지요. 이때 시를 지을 줄 아는 기생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생들도 시 짓는 법을 배우고 실제 시를 창작했습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기생이었죠. 황진이는 시조도 여러 편 지었고, 한시도 여러 편 지었습니다. 황진이가 지은 시조 중에 사랑을 표현한 시조가 세 편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시조를 한 번 읽어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굵이굽이 퍼리라

동짓달은 음력으로 11월을 말합니다. 양력으로는 12월에서 1월이 되겠지요. 한겨울입니다. 동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러니 동짓달에는 밤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황진이는 기나긴 동짓달 밤의 일부를 잘라내겠다고 말합니다. 밤을 잘라서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겠다고 합니다. 춘풍은 봄바람을 뜻하는데요. 겨울과 봄은 상당히 대조적이죠. ‘서리서리’는 무언가를 둥글게 말아 놓은 모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긴 밤의 일부를 잘라서 이불 밑에다 둥글게 말아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겨울밤의 일부를 베어서 봄밤에 붙여가지고 봄밤의 길이를 늘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겨울밤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기나긴 밤을 말합니다. 황진이는 길고 지루한 밤의 일부를 잘라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밤에 붙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른님’은 사랑하는 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밤의 길이를 늘리고 싶다는 내용의 시조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또 솔직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황진이는 기생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긴 밤을 잘라 짧은 밤에 붙여서, 짧은 밤의 길이를 늘리겠다. 참신한 발상이지요? 황진이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시를 통해서도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시조는 계량의 시조입니다. 계량은 전라북도 부안에서 활동한 기생입니다. 호가 매창(梅窓)이고요.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진이보다는 조금 후대의 인물이죠. 계량은 살아생전에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고, 가야금 연주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를 잘 짓고, 또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아서 유명해졌는데요. 허균(許筠)과도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계량은 한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계량이 지은 한시를 모아서 <매창집>이라는 시집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계량이 지은 시조입니다.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秋風)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은 오락가락한다

시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화우’는 배꽃이 흠날리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나무 꽃잎이 비처럼 흠날리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죠. 배꽃이 흠날리는 봄에 계량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계량은 연인을 그

리워하며 그도 나를 생각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인은 계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모양입니다. 연인과 나 사이의 거리가 천 리나 되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별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잘 느껴지시나요. 이 시조는 계랑이 유희경(劉希慶)이라는 시인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유희경은 1545년에 태어나서 163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신분은 천민으로 낮았지만 한시를 잘 지었습니다.

계랑의 시조 또한 기생이 지은 시조이기 때문에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는 보통의 평범한 여성이 연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체가 몹시 어려운 일이었죠. 기생은 사회적으로 수많은 제약을 받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여성 계층이었죠. 그래서 남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문학작품을 통해 스스로없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와 계랑이 지은 사랑 노래 두 편을 함께 감상해보았습니다.

## 5. 요약 및 정리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기생의 사랑이 그려진 문학 작품을 감상해보았습니다. 기생은 전근대 시기에 잔치나 큰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흥을 돋우던 일을 했던 여성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감상한 작품들은 조선시대의 기생을 소재로 했거나, 조선시대의 기생이 지은 작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생은 신분상으로는 천인이었고요. 국가에 예속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 중인, 평민 여성은 남성들과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웠죠.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규범을 지켜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이외의 남성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은 이 규범에서 예외적인 존재였죠. 기생에게는 오히려 수많은 남성들과 가까이 지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남성과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감상해 보았던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이 그러했죠.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인 평양 기생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대동역장을 사랑했습니다. 대동역장을 너무도 깊이 사랑한 나머지, 기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가락이 모두 뽑히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조선시대에 기생은 본래 사랑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랑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기생이 사랑의 자유를 꿈꾸다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에 대한 일화를 감상해보았습니다. 황진이는 특별한 여성이었고, 또 특별한 기생이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아주 빼어났고요.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대담했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으로서 대담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유분방하게 사랑을 했지요. 이 점이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생이 지은 사랑 노래 두 편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기생은 사실 남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여성 계층이었죠. 그래서 남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문학작품을 통해 스스로없이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감상한 두 편의 시조에는 기생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기생은 전근대 시기에 잔치나 큰 행사에서 노래, 춤, 악기연주 등을 통해 흥을 돋우는 일을 했던 여성을 말한다. (O/X)

정답: O

2. 기생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위치에 있었으나, 지나치게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O/X)

정답: X

3. <어우야담>(於于野談)은 유몽인(柳夢寅)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서사 양식으로 구성해 한문으로 기록한 야담집으로,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 (O/X)

정답: O

4. 기생은 남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문학작품을 통해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기생의 시조를 보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O/X)

정답: O

5.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의 만남이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기생의 경우에는 신분적 조건으로 인해 제약이 많았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기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근대 한국에서 기생은 국가가 특별하게 관리하던 계층으로, 기생 명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② 기생은 신분 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賤民)에 속했으나, 자식에게까지 신분이 세습되지는 않았다.

③ 기생은 신분이 높은 남성들의 취향에 맞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등, 고급 예술을 전수하는 계층이기도 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소를 탄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륙(李陸)이 지은 한문 단편 서사로, 어느 평양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글이다.

②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과 사랑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③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이 휴가를 떠난 동안 모시게 된 양반 대감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하게 매를 맞았고, 결국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정답: ②

3. 다음 중 황진이(黃眞伊)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6세기에 살았던 인물로, 황해도 개성(開城)에서 활동한 기생이다.

②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노래와 시에 능했으며, 거리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유분방한 여성이었다.

③ 개성의 유명한 학자 서경덕(徐敬德)을 유혹하여 시험해 보고자 했으며, 서경덕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정답: ③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은 기생들에게 춤과 노래, 음악연주 등을 가르치던 기관으로, 이곳에서 훈련된 기생들을 동원해 각종 국가행사에서 공연을 하도록 했다.

정답: 교방(教坊)

2. 황진이는 천수원에서 ○○○의 빼어난 노랫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6년간의 계약 동거를 제안했다.

정답: 이사종(李士宗)

3. ○○은 전라북도 부안에서 활동한 기생으로 호가 매창(梅窓)이며, 시를 잘 지어 허균(許筠) 등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았고, <매창집>이라는 시집이 간행되기도 했다.

정답: 계랑(桂娘)

#### 나. 토의 (45분)

기생은 신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천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일반 여성들에 비해 자유롭게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의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문학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 다. 과제 (45분)

본 강의에서 다룬 문학작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각 작품들이 '기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사랑에 관해 어떠한 점들을 알게 해주는지, 또 그것이 당시 일반 여성들의 사랑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서술해 보십시오.

## ■ 참고자료

유몽인 지음, 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태학사, 2012.

임형택·고미숙 엮음, 『한국고전시가선』, 창비, 1997.

조광국, 『한국문화와 기녀』, 월인, 2004.

기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서경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KBS 역사의 라이벌 - 서경덕과 황진이 ([영상 보기](#))

## <7차시> 춘향전 - 사랑, 인간의 권리

### ■ 학습목표

1. 조선시대 신분제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2.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3. 춘향의 기생 아닌 삶에 대한 의지를 이해한다.
4. 춘향에게 사랑은 인간 권리의 실현임을 이해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춘향전>의 역사
3.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4.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5. 춘향의 저항과 사랑의 완성
6. 춘향 사랑의 의미
7.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좌에서는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춘향(春香)과 이몽룡(李夢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춘향전>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춘향전>을 읽어 보았을 겁니다. 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소재로 쓰였습니다. <안녕 자두야>라는 아동용 만화영화에서 춘향의 이야기를 다룬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남녀노소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의 서사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판소리 형식, 소설 형식, 장편 시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로 만들어진 작품을 <춘향전>

이라고 부르고요. 판소리 형식의 작품은 <춘향가>라고 부릅니다. 판소리에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노래 가(歌) 자를 붙여서 춘향에 대한 노래라는 뜻으로 <춘향가>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소설 <춘향전>은 한글로 된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한문으로 된 작품도 있습니다. 장편 시 형식의 춘향 이야기는 모두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소설과 판소리 장르로는 계속해서 만들어졌고요. 영화, 희곡, 창극(唱劇), TV 드라마 등으로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300년 전쯤 창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말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한국인들에게 300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죠. <춘향전>은 어쩌서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춘향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사랑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과 여자 주인공인 춘향은 신분이 다르지만 사랑을 이룹니다. <춘향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사회의 신분 구성을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있고요. 그 아래에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포함된 양반 계층이 있습니다. 양반은 원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문관 집단, 그리고 군인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 집단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양반은 어쨌든 조선 시대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양반 아래에는 중인(中人) 계층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들이 중인이었고요. 중인 아래에 평민(平民)이 있습니다. 평민은 농사를 짓거나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賤民)이 있습니다. 기생이나 노비가 천민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춘향전>의 주인공은 신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의 신분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인 춘향의 신분은 천민입니다. 춘향이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춘향의 어머니는 월매(月梅)라는 기생입니다. 춘향의 아버지는 이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춘향의 아버지가 양반으로 설정된 작품이 있는 반면에, 춘향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춘향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모법(從母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조항인데요. 자식의 법적인 신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춘향 아버지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춘향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고 천민입니다.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고 천민이지만, 춘향의 의식 속에서 춘향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춘향은 기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으로 설정된 작품들에서 춘향은 자신을 보통의 여성으로 생각합니다. 춘향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작품들에서도 춘향은 누군가의 첩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기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생은 주로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노는 자리에 가서 흥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또 국가에서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특수한 계층이기도 했고요. 또 기생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기가 몹시 어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기생이 한 남

성과 결혼을 해서,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은 신분이 기생이고 천민이지만, 기생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기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인 춘향이 양반 신분의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결국 사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춘향전>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조선과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문학 속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춘향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해 드렸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의 춘향과 가장 높은 신분의 이몽룡이 만들어 간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춘향전>의 역사

<춘향전>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춘향전>의 역사라는 말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좌에서 감상한 작품들은 한문으로 쓰인 작품이 대부분이었지요? 한문은 일반적으로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사용하던 문자입니다. 우리가 감상해보았던 작품의 작가 중에는 양반 남성들이 많았죠? 김시습이나 신광한, 권필, 유몽인 같은 사람들은 모두 양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는 하층민들이 만들어낸 장르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도 처음에 하층민이 창작해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하층민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또 판소리 <춘향가>도 계속해서 공연이 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로, 드라마로, 음악극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춘향전>은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1754년에 유진한이라는 선비가 지은 장편의 한시가 있는데요. 아주 길이가 긴 한시입니다. 제목이 <가사 춘향가 이백구>(歌詞春香歌二百句)입니다. 유진한은 원래 충청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라도에 가서 당시에 판소리로 공연이 되던 <춘향가>를 듣고, 그 <춘향가>의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유진한은 판소리 <춘향가>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1750년대는 조선시대죠. 지금처럼 신문이나 TV가 없었죠. 인터넷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유진한도 충청도의 고향에 있을 때는 판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라도에 여행을 가서야 판소리 <춘향가>를 직접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춘향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유진한이 기록을 남긴 덕분에 우리는 지금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3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754년 이전에 판소리 <춘향가>가 공연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300여 년 전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판소리로도 공연이 되었지만요. 소설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으로 베껴 쓰거나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소설을 생산해 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소설 <춘향전> 가운데 지금 전해지는 것이 3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춘향전>이 생산되었던 것이죠.

조선후기에 나온 소설 <춘향전>은 그 특징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울에서 인쇄한 경판본(京板本)과 전라도 전주에서 인쇄한 완판본(完板本)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춘향의 아버지가 양반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들과 춘향의 아버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작품들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20세기가 되면 <춘향전>이 신문에 연재가 됩니다. 또 20세기가 되면 한국에도 근대적인 인쇄기술이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춘향전>이 출판이 됩니다. <춘향가> 공연의 방식도 다양해지는데요. 전통적인 판소리의 방식으로 공연이 되었지만, 창극(唱劇)의 형식으로도 공연이 됩니다. 판소리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판소리 공연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명창(名唱) 한 사람이 춘향 역할도 하고 이몽룡 역할도 하고, 춘향의 어머니 월매 역할도 하지요. 반면 창극에는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춘향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고, 이몽룡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는 거죠. 판소리 <춘향가>가 음악극으로 변모를 한 겁니다.

20세기의 <춘향전>을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 <춘향전>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0세기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춘향전>은 모두 16편에 이릅니다. 1920년대부터 <춘향전>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에 제작된 <춘향전>이 최초의 춘향 영화입니다. 감독은 하야카와 고슈(早川孤舟)라는 일본인이었고요. 이 영화는 무성영화였다고 합니다. 1935년에는 이명우 감독이 영화 <춘향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입니다.

그 이후에도 <춘향전> 영화는 계속해서 만들어졌고요. 1961년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두 편의 영화 <춘향전>이 개봉을 했습니다. 하나는 흥성기 감독의 <춘향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인데요. 두 영화 모두 당시로서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고요.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첨단 영화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영화죠. 두 영화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지만, 흥행 성적은 달랐습니다.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이 흥행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75일 동안 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극장에 갈 수 있고, 관객이 천만 명이 넘는 영화들도 여러 작품 있지만, 극장이 별로 없었던 1961년에 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은 대단한 흥행이었습니다.

흥성기 감독의 <춘향전>과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모두 한국 영화의 고전으로 인정을 받아서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한국고전영화”(Korean Classic Film) 채널에서 누구나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영화 <춘향전>은 계속해서 만들어졌는데요. 2000년에 개봉된 영화 <춘향뎐>이 주목됩니다. 임권택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손꼽히는 명감독이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칸영화제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영화”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는 TV 드라마로 여러 번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KBS에서 2부작으로 제작한 드라마 <춘향전>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김희선이라는 배우가 춘향 역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도 유튜브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춘향전>은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판소리 <춘향가>가 공연되고 있고요. 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자세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3.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는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춘향은 남원 기생 월매의 딸이고요. 이몽룡은 남원 부사(南原府使)의 아들이었습니다. 벼슬이 높은 양반의 아들이니 도련님입니다. 원래 이몽룡은 서울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남원이라는 지방의 지방관으로 부임을 해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이몽룡은 경치 구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춘향전> 이본에서 이몽룡이 경치를 구경하러 나가는 날을 단오(端午)로 설정을 합니다. 단오는 한국의 명절인데요.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겠죠. 초여름이고 풀과 나무들이 푸릇푸릇한 계절입니다. 단오 풍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젊은 여성들은 단오에 그네를 타습니다. 여성들이 단오에 그네를 타는 풍습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오래된 풍습이죠. 그리고 단오에 남성들은 밖에 나와서 씨름을 하죠. 단오는 젊은 남녀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그네 타고 씨름하면서 놀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도령이 경치 구경을 하러 나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도령이 간 곳은 바로 광한루(廣寒樓)입니다. 광한루는 실제로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누각이죠.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건축물입니다. 여러분께서 광한루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한루는 사방이 트여있는 건물입니다. 광한루에 올라가면 남원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는 지금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이몽룡은 광한루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경치에 대한 소감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그네 타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장면을 <춘향전>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도령이 이리저리 구경하여, 산천도 구경하며 글귀도 생각하다가, 문득 녹음(綠陰) 간 어떤 한 미인이 그네 뛰는 모양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급히 방자(房子) 불러 묻는 말이,

“저 건너 저것이 무엇인고?”

방자 대답하되

“어디 무엇이 보이나이까?”

“저 건너 보이는 것이 무엇인고? 아마도 선녀가 하강하였나보다.” (경16)

도령은 그네를 타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황홀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여인을 보고 낮이 나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인인 방자에게 저 여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방자는 저 여인이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이 몽룡은 춘향이 기생의 딸이라면 춘향도 기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몽룡은 양반으로서

당연한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방자를 시켜서 춘향을 데려오게 합니다. 춘향은 신분이 천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몽룡의 명령을 따르죠.

그래서 춘향이 광한루에 와서 인사를 올립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가까이에서 보고 더욱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절세미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몽룡은 그런 미인을 보고 푹 빠져버린 겁니다. 더구나 춘향과 이몽룡은 열여섯 살로 나이가 같았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춘향전>은 이몽룡과 춘향의 만남을 청춘남녀의 사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춘향에게 나랑 인연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이몽룡은 아예 백년가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춘향은 이몽룡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양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했지만, 이몽룡을 직접 보고 춘향은 사실 마음속으로 감탄을 합니다. 이몽룡을 슬쩍 보니까 만고의 영웅호걸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기상(氣像)도 씩씩하고 활달해 보였습니다. 또 관상을 보니까 훌륭한 신하가 될 것 같아 보였어요. 춘향도 이몽룡이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양반이고 춘향은 천민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신분의 격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춘향은 이몽룡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녀의 몸이 비록 창가(娼家) 여자이오나, (….) 남의 별실(別室) 되지 말자 맹세하였사오니 도련님 분부가 이려하시나 이는 봉행(奉行)치 못하리로소이다.” (경16)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춘향전>은 한글로 쓰인 작품입니다. 한글 <춘향전>이지만 작품에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요. ‘창가’는 기생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춘향은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그 신분을 물려받아서 기생입니다. <춘향전>은 수백 종의 버전(version)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버전에 따라서 춘향의 신분에 대한 설정이 좀 다른데요. 춘향의 법적인 신분이 원래 기생이고 천민인 것은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국가에 돈을 많이 바치거나, 자기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서 기생 신분을 벗어난 것으로 설정을 한 버전이 있고요. 이몽룡과 인연을 맺은 뒤에,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생 신분을 벗어난 것으로 설정한 버전이 있습니다. 춘향의 신분 문제는 <춘향전>을 창작하는 사람에게나 감상하는 사람에게나 모두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춘향의 신분이 법적으로는 기생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은 기생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실’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별실은 정실부인이 아니고요. 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생이 한 남성의 정식 아내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은 나는 첩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몽룡에게 나를 기생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아내로 삼을 것이 아니라면 인연을 맺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뒤에 춘향은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인연을 맺은 뒤에 남원 부사의 임기가 끝나서, 도련님이 서울로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몽룡은 원래 서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임명이 되어서 따라온 것인데요. 남원 부사는 지금으로 치면 남원 시장이죠.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부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지방관의 임기는 만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다른 관직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은 남원에서 2년밖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향이 이몽룡이 서울로 돌아간 다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도련님은 서울로 가서 좋은 집안의 양반 여성과 결혼

을 할 텐데, 결혼한 뒤에 나를 생각이나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신체는 개밥에 도토리처럼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춘향은 걱정을 합니다. 춘향은 자신과 이몽룡이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몽룡의 사랑을 자꾸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몽룡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결국 춘향은 이도령과 연인이 되기로 하는데요. 이때 이몽룡에게 증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서를 써 달라고 하죠. 이 증서는 불망기(不忘記)라고 부르는데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춘향이 증서를 요구하고, 이몽룡이 증서를 써주는 모습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춘향이 증서를 써 달라고 하자, 이몽룡은 춘향의 치마폭에다가 붓글씨로 증서를 써 줍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춘향과 이몽룡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춘향이 이몽룡의 얼굴을 보고 속으로 감탄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춘향도 사실 이몽룡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몽룡과 연인이 된 것이죠. 신분의 차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춘향은 이몽룡과 사랑을 하기로 합니다. 사랑은 역시 빠져드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춘향전>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될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 4.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춘향과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춘향의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는데요. 이몽룡은 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왜 이리 가지 않느냐는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큰 소리로 춘향이 보고 싶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꾸중을 듣는데요. 이몽룡은 아버지께 “책을 보고 싶다고 외친 것입니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댁니다. 이몽룡은 양반이지만 아직 열여섯 살이라서 그런지 좀 미숙하고 치기 어린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 기억하십니까?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도 젊고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었습니다만, 이몽룡처럼 철없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은 이렇게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서 이몽룡은 춘향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감상했던 많은 작품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춘향과 이몽룡은 만난 첫날에 동침을 하는데요. 사실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는 부분은 상당히 에로틱합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하는 판소리 한 대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라는 구절은 두 사람의 에로틱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죠. <춘향전>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원앙새가 물 위에서 노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고 연평도 바다에 얽혀 있는 그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두 두 사람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깊어져만 갑니다. 청춘 남녀의 깊고 깊은 사랑이 <춘향전>에는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깊고 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예견된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몽룡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몽룡은 아버지의 승진 소식을 듣고 춘향의 집에 와서 엉엉 읍니다. 좀 전에 이몽룡

이 철없는 소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아버지께서 승진을 하셔서 서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춘향은 그러면 나도 서울에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춘향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몽룡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을 사또께는 못 여쭙고 대부인(大夫人)께 여쭙으니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의 자식이라 부친 따라 지방에 왔다가 기생 작첩(作妾)하여 데려간단 말이 앞길에도 괴이하고 조정에 들어가 벼슬도 못한다더구나. 어쩔 수 없이 이별이 될 수밖에 없다.” (완84)

여기서 대부인은 이몽룡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이몽룡은 아버지께는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머니께 춘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춘향이라는 기생을 서울로 데려가도 될지 여쭙는 것이죠. 이몽룡의 어머니는 화를 크게 내셨죠. 지방관으로 부임하신 아버지를 따라와서 기생을 첩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어린 양반이 기생과 사귀었다는 소문이 나면, 앞길을 망치고 벼슬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양반 남성이 기생과 어울린다는 것은 당시에도 망신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은 본래 유흥을 위한 존재죠. 양반 남성들이 술자리를 가질 때 그 자리에서 흥을 돋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적인 요구를 한다면 응해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몽룡의 어머니는 양반 신분이죠. 그러니 기생을 천한 여성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이몽룡이 기생 춘향을 데리고 서울로 간다면, 사람들은 이몽룡을 공부하는 안 하고 기생과 유흥을 즐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이몽룡의 어머니는 이 점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몽룡은 춘향을 데리고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춘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향은 신분제도의 문제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던 기생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격차라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몽룡과 연인이 된 기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순하게 이별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춘향은 입고 있던 치마를 찢고, 머리카락도 쥐어뜯고, 거울도 던져 버리면서 이별에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춘향은 자신을 버리고 가는 이몽룡을 원망합니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죠. 연인이 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이몽룡입니다. 춘향은 그때에도 이별이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몽룡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서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춘향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춘향은 정말 슬프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이몽룡은 사실 맹세를 저버린 거죠.

그리고 춘향은 이별의 원인이 결국 신분의 차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애고애고 내 신세야. 모질도다 모질도다, 도련님이 모질도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 양반 독하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존비귀천(尊卑貴賤) 원수로다. (….) 여보 도련님, 춘향 몸이 천하다고 함부로 버리셔도 그만인 줄 알지 마오.” (완84)

춘향은 존비귀천이 원수라고 말합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나누는 이 세상이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춘향은 자신의 신분이 천민이지만 함부로 버려도 그만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춘향전>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죠. <춘향전>의 주제는 신분제의 문제가 개입된 사랑입니다.

이도령이 서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도령에게 왜 춘향을 버리느냐고 따져 묻죠. 월매는 이몽룡을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을 행했을 때 뿐인데, 춘향을 왜 버리느냐고 따집니다. 모든 <춘향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춘향전>에는 월매가 춘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월매는 딸이 남편과 헤어져 혼자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퍼부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 춘향은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춘향이 이몽룡을 따라 서울에 가서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춘향은 남원에 남아서 이도령이 다시 찾아올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이별의 슬픔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영화 <성춘향>에서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또 평등한 사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랑인지 이별 대목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도령의 상경(上京)이 정해진 뒤에 춘향과 이도령은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몽룡은 장가도 들지 않은 젊은 양반 남성이 기생을 첩으로 삼은 일이 알려지면 집안 제사에 참석도 못 한다고 하면서 춘향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자신이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춘향과 이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춘향 역시 신분의 격차 때문에 이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도령이 자신을 속였다고 울먹입니다. 그러자 이도령은 자신의 사랑은 한 인간에 대한 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몽룡의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몽룡: “춘향아, 네가 모르는 소리. 당초에 우리가 서로 인연을 맺은 것은 내가 양반의 자식이라는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너와 꼭 같은 일개 인간의 신분에서 맺어진 것이다. 그런 내가 너를 속이고 너를 버리려고 하다니 정말 천벌 받을 소리 말아라.” (신상옥, <성춘향>)

이몽룡은 춘향과 사랑을 시작할 때 양반 신분의 남성으로서 기생 신분의 여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평등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춘향이 말을 하는데요. 춘향은 자신이 남원 부사의 아들이자 양반인 이도령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이몽룡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춘향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춘향: “서방님, 나도 그러하였소.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것은 사또 자제 이몽룡이가 아니었소. 양반도 아닌, 글방 도령님도 아닌, 서방님만을, 서방님만을 좋아서 사랑하였고 모든 것을 바쳤던 거요.” (신상옥, <성춘향>)

보시다시피,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평등한 두 남녀의 순수한 애정으로 표현합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는 격차가 있죠. 그렇지만 춘향과 이몽룡이라는 두 사람의 사랑은 상호 평등한 관계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화 <성춘향>은 1961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여성들은 비녀를 꽂고 남성들은 갓을 쓰고 등장을 해요. 또 조선시대의 관청 건물이 등장을 하고, 등장인물들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영화는 조선후기라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현대적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 그 자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 <성춘향>은 신분제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신상옥 감독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그런 사랑,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영화 <성춘향>이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관객들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에 대한 신상옥 감독의 해석에 공감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다시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1961년에 나온 영화이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요. 굉장히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영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감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5. 춘향의 저항과 사랑의 완성

지금부터는 춘향이 이별한 뒤에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리고 결국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령의 아버지가 승진을 해서 남원 부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새로운 남원 부사가 임명되었는데요. 그 이름은 변학도입니다. 변학도는 남원에 부임을 한 뒤에 곧바로 기생을 점검합니다. 조선시대에 기생은 모두 국가나 지방 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생은 원래 공적으로 관리하던 집단입니다. 변학도는 남원 부사로 부임을 하자마자 관청에 소속된 기생들을 모두 불러서 점검을 하는데요. 여기서 변학도가 유희를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탐하는 양반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학도는 기생 점검을 한 뒤에 왜 춘향이 기생 명단에 빠져 있는지 묻습니다. 남원의 아전은 춘향이 속량(贖良)을 해서 기생 명부에 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춘향전>에는 춘향이 “대비정속”(代婢定贖)을 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대비정속”은 속량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나라에 돈을 바치거나, 혹은 자기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관청에 바치고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일부 <춘향전>에서는 “월매는 기생이지만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춘향의 신분이 이미 평민인데 변학도가 평민 여성을 기생으로 여기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는 종모법(從母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춘향의 신분은 기생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춘향의 신분을 두고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전>은 역사 기록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더구나 작가도 알 수 없고요. 버전도 여러 가지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에 나타난 설정이나 표현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법과 제도를 있는 그대로 <춘향전>에 적용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은 문학이지 사실(事實)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춘향전>은 역사서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어쨌든 <춘향전>에서 춘향은 이미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도령을 위해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학도는 춘향을 여전히 기생으로 여깁니다. 기생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춘향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남원 부

사는 남원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원 땅 안에서 변학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춘향은 결국 잡혀옵니다.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守廳)을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춘향에게 자신의 잠자리 시중을 들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이 그 명령을 따를 리가 없죠. 춘향이 광한루에서 이도령과 인연을 맺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춘향은 이도령에게 나는 기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첩(妾)으로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직 이도령이라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던 춘향입니다. 그런 춘향이 다른 남성의 잠자리 시중을 들 리가 없겠죠. 아무리 남원의 최고 권력자가 명령을 한다고 해도 춘향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춘향은 변학도에게 저항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춘향의 말은 <춘향전>의 이본 중에 하나인 『남원고사』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글로 쓰여 있지만 참 어렵죠? 표기를 한글로 했지만, 실은 한자어가 많아서 고전소설 <춘향전>을 원문 그대로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춘향은 남원 부사 변학도에게 이런 논리로 저항을 합니다. 사또는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 신하인데, 만약에 난세(亂世)가 닥쳐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반역을 피하는 세력이 점령을 한다면 투항을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투항을 해서 다른 임금을 모시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죠? 이러한 반역 행위는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춘향은 충성심 있는 신하가 한 사람의 임금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도 이도령이라는 남편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녀는 두 사람의 남편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 말은 전통이 있는 말입니다. 원래 중국 한(漢) 나라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충신불사이군, 열녀불경이부”는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춘향은 이런 원칙을 근거로 해서 저항을 합니다. 나는 열녀로서 두 남편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왜 나를 위력으로 겁탈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저항을 하는 거죠. 춘향은 ‘보아하니 사또는 충성심이 없는 신하이시군요, 그런 사또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또 다른 버전의 <춘향전>에서는요. 춘향이 신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변학도에게 “충효열녀(忠孝烈女) 상하(上下) 있소”라고 말하는데요. 충, 효, 열과 같은 윤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지키는 것이냐는 말이지요. 신분이 낮은 나도 ‘열’이라는 윤리, 그러니까 한 남성만을 사랑하고, 그 남성을 위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열’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윤리죠.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부과한 의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춘향의 행위를 해석해 보면요. 춘향은 성적 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학도는 춘향의 저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감히 충성심 없는 신하라고 욕하다니. 변학도는 화가 났습니다. 변학도는 양반 관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양반 관료에게 저항을 하는 춘향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립니다. 춘향은 매를 맞으면서도 저항을 하죠. 이 상황에서 춘향은 <집장가>(執杖歌)를 부릅니다. <집장가>는 매를 맞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장가>는 아주 슬프고 아픈 노래이지만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맞고 나서는 ‘일’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면요.

‘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일시일각에 변하리까?”

‘이’자로 아뢰리다. “이부불경(二夫不更) 이내 심사, 이도령만 생각하니” (…)

넷째 날을 붙여놓으니, “사대부 사또님은 사기사(事其事)를 모르시오? 사지를 찢어서 사대문에 걸더라도 가망 없고 안 되지요.”

한 대를 맞고 나서 춘향은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두 대를 맞고 나서는 다시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네 대를 맞고 나서는 “사대부(士大夫)이신 사또가 어떻게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줄 모르십니까”라고 말하고요. “내 팔과 다리를 찢어서,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해서 내 시체를 사대문에 걸어 놓는다고 해도 사또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집장가>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를 ‘딱’ 치니, “오매불망(寤寐不忘) 우리 낭군 잇을 가망이 전혀 없소.” (…)

여덟째 날을 붙여 놓으니, “팔도감사 수령님네 치민(治民)하러 보내셨지, 위력공사(威力公事) 웬일이요?”

다섯 대를 맞고 나서는 “남편 이도령을 자나 깨나 잇을 수 없다”고 말하고요. 여덟 대를 맞고 나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조선은 여덟 개의 도(道)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8도입니다. 도(道)는 큰 규모의 행정 구역이고요, 나라에서 한 도를 관장하는 관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감사(監司)라고 합니다. 8도의 감사나 지방관에게는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남원 부사 변학도를 보세요. 지방관으로 임명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업무가 기생 점검이었습니다. 또 춘향에게 잠자리 시중을 들라고 명령했죠.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위압적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기생을 가까이하고 유희를 즐기는 지방관은 좋은 관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세금으로 잔치나 벌이는 지방관이니, 좋은 관리일 수가 없죠.

춘향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동정을 보냅니다. 남원의 피지배층 백성들은 춘향의 처지를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사실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지방관들이 백성들의 재물이나 곡식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학도 역시 부정부패가 심한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학도에게 저항하는 춘향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춘향은 매를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힙니다. 변학도는 자기 생일날 크게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춘향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이 낮은 백성이 양반 관리를 능욕하는 일은 사실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야만 신분제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춘향은 감옥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몽룡이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어서 남원에 내려오죠.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의 관직입니다.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관의 공적이나 비리를 조사하던 관직입니다. 또 지방 백성의 어려움을 조사해서 임금님께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방관의 잘못을 탐문 수사할 수가 있었겠죠.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에 내려왔지만,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숨겼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춘향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학도의 생일 잔

치에 등장을 해서 변학도의 죄를 응징하고 춘향을 구해내죠. 굉장히 통쾌한 결말입니다.

결국 이몽룡과 춘향은 재회를 하고요. 춘향은 이도령의 정식 아내가 됩니다. 춘향은 변학도의 핍박에 저항해서 결국 사랑을 완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양반의 정식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말은 실제로 있기는 어렵죠. 춘향과 같은 피지배층의 꿈을 담은 판타지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춘향이 보여준 사랑의 의미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춘향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 춘향 사랑의 의미

‘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문학 작품의 보편적 주제가 되죠. 그런데 춘향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향의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사랑의 성취 과정에 신분제도가 결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춘향이 보여준 사랑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죠. <춘향전>이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해져 오면서 조금씩 변화된 측면들이 있는데요. 춘향 사랑의 의미는 신분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신분제 사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실제 사회의 제도였을 당시에는요. 춘향의 사랑에 나타난 저항성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에 <춘향전>은 기생 춘향이 자신을 핍박하는 양반에게 저항을 해서 사랑을 성취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남원고사>는 <춘향전>의 한 버전이고, 1860년대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남원고사>에서 춘향은 이도령을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물론 <남원고사>에서도 춘향이 이도령을 찾아간 것은 아니고요. 이몽룡이 춘향을 부른 겁니다. 그렇지만 춘향은 이몽룡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은 인간으로서 근원적이며 순수한 감정의 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남원고사>가 만들어진 때는 1860년대입니다. 아직 조선 시대였고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춘향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조선 후기에 기생은 여러 명의 남성이 공유하는 여성이었고요. 또 남성의 성적인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사실 불가능한 계층이었습니다. 또 기생은 사실 천민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대를 받을 만큼, 신분제 사회의 최하위에 있는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생은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생이 한 사람의 남성과 독점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문제였을 겁니다. 보통의 기생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였던 겁니다. 춘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부정합니다. 춘향에게 사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은 사랑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몽룡에게 증서를 요구합니다. 이 증서는 이몽룡과 춘향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또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는 이몽룡과 춘향의 약속을 증명해주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단 하나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94년이 되면 신분제라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를 한국의 근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세기에 들어 창작된 <춘향전>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말씀드리면요. 1912년에 이해조(李海朝)가 지은 <옥중화>(獄中花)가 있고요. 1925년에 이광수가 지은 <일설춘향전>(一說春香傳)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신분제가 폐지된 후에 창작된 작품들이죠. 그렇다 보니 신분제에 대한 생각이 그리 첨예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일설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과 인연을 맺을 때 신분 문제를 투철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설춘향전>에서는 이몽룡이 편지를 보내 고백을 하고요. 춘향이 답장을 보내면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서사적으로 보면 <남원고사>보다 세련된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설춘향전>은 춘향이 이도령을 직접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장면을 소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춘향의 사랑에 담긴 순수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원고사>를 보면 춘향이 이도령을 흘깃 보고 반하게 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있는데요. 이 장면이 <일설춘향전>이나 <옥중화>에는 없습니다. 또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의 작품이다보니까요. 춘향이 이도령에게 사랑을 느끼고 인연을 맺어 가는 과정에 춘향의 자기 신분에 대한 부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춘향의 사랑은 한 사람의 여성과 한 사람의 남성 사이의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보편적인 애정 서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춘향의 사랑에서 신분의 부정을 통한 인간 권리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조선후기의 <춘향전>에서 춘향의 사랑은 신분의 문제가 개입된 사랑이었습니다. 계층의 문제로, 또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춘향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억압하는 지배권력에 저항을 했죠. 그 과정에서 현실 전복적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 춘향의 사랑은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근대의 <춘향전>은 두 남녀가 애정 성취 과정에 나타난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사랑을 이루는 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애정서사로 변모를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춘향전>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 전복적 성격은 축소가 됩니다.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은 <춘향전>을 보편적인 애정서사로, 다시 말해서 멜로 드라마로 잘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그려냈다고 말씀 드렸지요? 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결혼한 남녀의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춘향의 이몽룡을 위해 정절을 지킨 것은 아내의 도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몽룡 또한 춘향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과 다시 만나기 위해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성춘향>에서는 변학도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사랑을 지킨 춘향을 이몽룡이 칭찬해 줍니다. 춘향의 행동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여성의 저항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근대 이후에 춘향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사랑으로 해석되었는데요. 그래서 춘향 또한 기생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여성에 가까워집니다. 또 그러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춘향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춘향의 사랑에 담긴 의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7. 요약 및 정리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녀노소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춘향전>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춘향은 전라도 남원 기생 월매의 딸이고요. 이몽룡은 남원 부사(南原府使)의 아들이었습니다. 춘향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었지만, 춘향의 의식 속에서 춘향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춘향은 기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인 춘향이 양반 신분의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결국 사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춘향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하층민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300년 전인 18세기 초에 창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등장해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의 서사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판소리 형식, 소설 형식, 장편 시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20세기에 들어서는 소설과 판소리뿐만 아니라 영화, 희곡, 창극(唱劇),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춘향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강의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깊고 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해서 서울로 가면서 춘향과 이몽룡은 이별을 하죠. 새로 부임한 남원부사 변학도는 춘향에게 잠자리 시중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춘향은 한평생 이몽룡만을 사랑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춘향은 변학도의 꾀박에 저항을 하고 결국 사랑을 완전하게 이룹니다.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양반 이몽룡의 정식 아내가 됩니다. 신분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말은 실제로 있기는 어렵습니다. 춘향과 같은 피지배층의 꿈을 담은 판타지적 결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또 춘향의 사랑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문학 작품의 보편적 주제가 됩니다. 춘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부정합니다. 춘향에게 사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춘향의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사랑의 성취 과정에 신분제도가 결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조선 후기의 <춘향전>에서 춘향의 사랑은 신분의 문제가 개입된 사랑이었습니다. 계층의 문제로, 또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춘향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억압하는 지배권력에 저항을 했죠. 그 과정에서 현실 전복적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제 폐지된 이후에 춘향의 사랑은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근대의 <춘향전>은 두 남녀가 애정 성취 과정에 나타난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사랑을 이루는 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애정서사로 변모를 해 갑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하층민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O/X)

정답: O

2. <춘향전>의 모든 이본에서 춘향의 아버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O/X)

정답: X

3. 춘향은 변학도에게 저항한 죄로 매를 맞으면서 <집장가>라는 노래를 불렀다. (O/X)

정답: O

4. 춘향은 열녀로서 남편을 위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를 근거로 변학도에게 저항했다. (O/X)

정답: O

5. 근대에 들어 춘향전은 보편적인 애정 서사에 가까워진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시대에는 판소리 형식, 소설 형식, 장편 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② 소설 형식의 <춘향전>은 모두 한글로 지어졌으며 수백 종의 버전이 있다.

③ 판소리 형식에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어 <춘향가>라고 부른다.

정답: ②

2. 다음 중 판소리 <춘향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진한은 전라도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판소리 <춘향가>를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 춘향가 이백구>라는 한시를 지었다.

② 전통적인 판소리 공연에서 <춘향가>는 한 명의 창자가 여러 인물의 역할을 맡아 노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③ 20세기 이후 판소리 <춘향가>는 전통적인 방식이 사라지고 여러 명의 창자가 등장하는 창극의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정답: ③

3. 다음 중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이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춘향은 이도령과 만날 때 신분격차를 자각하고 있었다.

② 이도령은 미래를 걱정하는 춘향을 위해 먼저 불망기를 써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③ 춘향과 이도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이도령의 부모는 크게 화를 내며 둘을 갈라놓았다.

정답: ①

4. 다음 중 <춘향전>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하야카와 고슈 감독의 <춘향전> 영화는 1923년에 제작된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이다.

③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이별 장면에서 신분 격차 문제를 부각했다.

③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은 2000년에 개봉된 후에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칸영화제에 진출했다.

정답: ③

5. 다음 중 춘향의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춘향은 자신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지만 별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② 춘향의 변학도에 대한 저항은 부패한 관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춘향은 양반의 정식 아내가 되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 신분제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 ③

####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춘향과 이도령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이다.

정답: 광한루

2. 이도령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왔다.

정답: 암행어사

3. 조선후기에 나온 소설 <춘향전>은 서울에서 인쇄한 ○○○과 전라도 전주에서 인쇄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경판본 - 완판본

#### 나. 토의(30분)

조선후기에 창작된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몽룡과의 이별에 저항하는 장면과 변학도의 핍박에 저항하는 장면에 반영된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다. 과제(60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의 서사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창작된 <춘향전>과 근대 이후에 창작된 이해조의 <옥중화>나 이광수의 <일설춘향전>, 또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 등을 비교하면서 <춘향전>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참고자료

김지윤, 「춘향서사의 전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서울대 도서관 원문 보기](#))

정하영, 『춘향전』, 신구문화사, 2006.

신상옥 감독(1961), <성춘향> ([영상 보기](#))

임권택 감독(2000), <춘향뎐> ([영상 보기](#))

KBS 추석특집 드라마(1994), <춘향전>([영상 보기](#))

## <8차시> 야담 속의 사랑

### ■ 학습목표

1. 야담 장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2. 야담에 반영된 사회상을 이해한다.
3.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이 나타난 야담 작품을 감상한다.
4. 야담 속 사랑이야기의 특징을 알아본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환처> - 내시 아내의 사랑
3. <청상> - 청상과부의 사랑
4. <천변녀> - 평민 소녀의 사랑
5.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역사서에 실려있는 이야기나 주로 소설 속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야담(野談) 속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담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야담은 문학 장르의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인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르인데요. 형식적으로 보면 한문으로 쓰인 짧은 서사물입니다. 이전의 강의에서 읽어보았던 소설 중에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은 단편 소설에 속하는데요. 야담은 그 분량이 이런 단편 소설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야담이 한문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야담은 대부분 조선의 양반층이 썼습니다.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양반층이 야담을 썼는데요. 양반층의 작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서사의 양식으로 구성해서 한문으로 기록한 작품을 야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지만, 들은 이야기를 서사물로 구성을 할 때 작가의 창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작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야담은 소설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야담이 세상에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야담에는 당시의 세태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백성들이 바라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담은 조선의 지배층이 한문으로 지은 작품들인데, 오히려 백성들의 바람이나, 민간의 동향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읽어볼 야담 작품들도 당시 백성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야담 속의 사랑은 신분제라는 사회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은 왕조 국가입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1392년에 건국해서 1910년까지 지속되었던 나라죠. 이성계의 자손들이 대대로 조선의 왕을 지냈습니다.

조선 사회의 신분 구성을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있겠고요. 그 아래에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포함된 양반 계층이 있습니다. 양반은 원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양반에서 ‘양’(兩) 자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반’(班) 자는 원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큰 집단에서 나누어져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문관 집단, 그리고 군인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 집단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반은 어쨌든 조선 시대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양반 아래에는 중인(中人) 계층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들이 중인이었고요. 중인 아래에 평민(平民)이 있습니다. 평민은 농사를 짓거나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賤民)이 있습니다. 기생이나 노비가 천민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사회의 신분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야담에는 조선 후기의 신분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분제와 관련한 당대의 현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중인이거나 평민, 나아가서 천민까지도 신분 상승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이용해 신분 상승에 성공한 평민들도 등장하고요. 반대로 신분은 양반이지만 가난해서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원래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가 되면 신분제도가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현실이 야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평민들의 소망이 야담에는 반영이 됩니다. 평민들도 더이상 지배계층에 순종하면서 욕망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평민들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평민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또 어떤 평민은 진정한 사랑을 찾습니다. 특히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 있어서는 사랑을 성취하는 평민이 중요하겠습니다. 평민은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야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의 욕망을 긍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욕망을 버리고 유교적인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보통 사람의 순수한 욕망을 나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나타납니다. 이런 욕망에 대한 긍정이 야담에는 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읽었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재자(才子)와佳人(佳人)으로 설정되었었죠. 남자 주인공은 글재주가 빼어나고 여자 주인공은 아름다웠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신분은 모두 양반이거나 사대부여서, 신분이 높았지요. 여자 주인공들은 양반도 있었고 공녀도 있었고, <주생전>의 배도 같은 기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 주인공들은 모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한시를 잘 짓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담의 주인공들은 재자가인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신

분이 평민인 경우도 많아서, 주인공의 신분이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재자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야담 속의 사랑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수업에서 소개할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담은 한문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야담 중에서 흥미로운 작품들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들은 <이조한문단편집>(李朝漢文短篇集)과 <한문서사의 영토>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야담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2. <환처> - 내시 아내의 사랑

지금부터 읽어볼 작품은 <환처>(宦妻)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임매(任邁)입니다. 물론 양반 남성입니다. 임매는 1711년에 태어나서 17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후기의 인물이지요. 임매는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거주했고, 집안이 꽤 명문가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수준 높고 세련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매는 <잡기고담>(雜記古談)이라는 야담집을 남겼습니다. <환처>는 물론 이 <잡기고담>이라는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환처>라는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에는 따로 제목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자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고려해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환처>라는 제목은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내시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내시는 환관(宦官)을 가리키는데요. 내시는 전근대 왕조 국가에서 임금의 시중을 들던 남성이지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시는 거세를 합니다. 남성으로서 성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시에게도 아내는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내시의 아내가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부터 감상해보시겠습니다.

주인공 여성은 원래 신분이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외숙모가 이 여성을 길러 주었는데요. 외숙모는 이 여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열여섯 살 때 내시에게 시집 보냅니다. 내시와의 결혼은 여성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작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시는 혼인한 첫날부터 아내의 옷을 벗긴 뒤에 아내의 몸을 만졌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어렸고, 처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으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 여성은 성적 욕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의 행동이 아주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내시는 거세를 했기 때문에 아내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죠. 이 여성은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서 내시와 동침을 할 때면 원한과 분노가 가슴에 차올라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비단이불에 맛있는 음식이 넘쳐난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허름한 집에서 진짜 대장부와 함께 반쪽짜리 이불을 덮고 나물만 먹는다 해도, 그야말로 인생의 지극한 즐거움이 아닌가. 내 몸은 아직 처녀이니, 다른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절개를 잃었다 할 수 있겠는가.

이 여성은 내시에게 시집가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도망칠 결심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진짜 남자 대장부와 함께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결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처녀였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정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도망칠 결심을 했지만, 진짜로 도망을 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일 도망을 치다가 붙잡힌다면 죽은 목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성의 괴로움은 더 심해졌겠죠. 결국 여성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백 년을 살아간들 무슨 낙이 있겠는가. 비록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들 이런 집에서 생으로 말라 죽는 것보다 어찌 통쾌하지 않으랴.

이 여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시의 아내는 불행으로부터 탈출하기로 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죽더라도 내시의 아내로 괴롭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행복과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준비합니다. 비단과 보석, 은 같은 귀중한 것들을 챙겨서 짐을 미리 싸 놓고요. 내시가 숙직을 하러 궁궐로 들어가서 집을 비운 날, 담장을 넘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큰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서 여성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생각합니다. 여성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비록 처녀지만 머리에 비녀를 꽂았으니 누가 나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는가. 첩밖에 될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정실부인의 질투를 받기 마련이라. 이런 일은 내가 결코 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할까?’

이 여성은 혼인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처녀의 몸이었죠?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절차를 이미 치른 적이 있어서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머리카락을 묶어서 올리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이 머리 모양이 기혼 여성임을 표시해주었죠. 이 여성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총각인 남성의 정실부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혼한 남성의 첩이 되자니, 첩이 되는 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신분이 평민이었죠. 천민이나 기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첩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여성이 상당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고민 끝에 길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남성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남자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용모가 깨끗했고, 나이도 여성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성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진 배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님의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뒤를 따라 가면서 여성은 스님에게 어느 절에 사는지, 부모님은 살아 계신지 등등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마지못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스님은 여성이 뒤따라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모르는 여성이 자꾸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더욱이 조선시대에 스님에게는 여성을 가까이하면 안 된다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금욕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절대 스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걸으면 따라 걷고, 스님이 뛰면 따라서 뛰고, 스님이 쉬면 따라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스님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3일을 걸어서 스님이 원래 살고 있던 절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은 숲속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스님 옆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님이 한번 절간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을 것 아닌가. 지금 이 틈을 타서 역지로 혼사를 맺지 않으면 일이 영영 이뤄질 수 없겠다.’

이 여성은 스님이 절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혼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손목을 꼭 잡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서 놓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스님을 타이릅니다.

“스님, 앉으세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중노릇하기가 정말 좋나요? 나와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 내 보따리 속에 수백 냥의 재물이 있으니 스님은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는 게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작품에서 애정은 전적으로 여인이 주도합니다. 이 여성의 판단력, 그리고 애정을 실현하기까지의 추진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성의 판단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여주인공과는 상당히 다르지요? 애정전기소설의 여자 주인공들은 오직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마저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처>의 여자 주인공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을 이룹니다. 이승에서, 즉 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도 하는 겁니다. 애정전기소설 속의 사랑이 낭만적이었다면, 야담 속의 사랑은 현실적입니다. <환처>의 여자 주인공이 스님에게 나와 결혼하면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 사랑이 현실적인 사랑이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님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하고 구도(求道)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스님들이 구도를 하기 위해서 스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스님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면 일단 식사와 의복이 해결되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던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을 스님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환처>에 나오는 스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처>에 나오는 스님은 구도를 위해서 스님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스님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고 묻자 눈물을 흘렸던 거죠. 자기 신체가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스님은 눈물로 여인의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림으로써 스님으로 사는 게 좋지 않다는 표현을 한 거니까요. 여인은 그런 스님의 모습이 안쓰럽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끌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님의 몸을 꼭 끌어당겼습니다. 스님은 정욕(情慾)을 느꼈고, 두 사람은 교합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바로 <환처>라는 작품이 남녀의 정욕, 특히 여성의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야담이라는 문학 장르는 보통 사람들의 욕망, 평민의 욕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여인과 스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환속을 한 셈이죠. 두 사람은 스님의 본가로 함께 갑니다. 스님의 집으로 가서 여인은 스님의 노모에게 인사를 하죠. 며느리가 왔다고요. 그런데 노모는 걱정을 합니다. 스님이 살았던 절에서, 그동안 스님이 먹었던 밥값과 스님

이 입었던 옷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몹시 걱정을 합니다. 이런 노모의 반응은 스님의 본가가 원래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게다가 스님의 노모는 절에서 돈을 벌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곧 절에서 빚 독촉을 할 텐데, 무슨 수로 빚을 갚을지 노모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나섭니다. 여인은 재물을 이용해서 스님의 노모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짐 꾸러미 속에서 좋은 옷을 한 벌 꺼내서 노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 짐 속에는 상당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의 스님이 와서 갚으라고 하더라도 제가 다 상대할 겁니다.”

노모는 이 말을 듣고 옷을 받은 뒤에, 여인을 며느리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혹 누군가는 노모의 태도를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재물이 있다고 하니까 며느리로 받아들이는군 하면서요. 그렇지만 노모가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노모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재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노모의 태도는 재물이나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 먹고 계절에 맞는 옷을 갖춰 입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돈과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민의 물질에 대한 절실한 욕망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스님과 여인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작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석양이 되어 나는 부엌에 들어가 비로소 새색시의 직분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 이날 밤에 그와 더불어 밤이 다하도록 정답게 지냈다. 그는 난생처음 맛보는 인생의 즐거움에 거의 미칠 듯이 기뻐했다.

이 부분은 여인의 시점에서 서술된 것인데요. 여인은 이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남편과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내지요. 남편은 스님으로 살면서 그동안 여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욕망을 억제해 왔겠죠. 남편은 아내를 얻어 사랑을 나누게 되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환처>는 보통 사람들의 욕망을 긍정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어 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 <환처>는 이런 보통 사람의 소박한 욕망과 보통 사람의 사랑을 긍정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다시 여인과 스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보통 남자가 입는 옷을 마련해 줍니다. 갓도 씌워주고요. 이제 남편은 어엿한 신랑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편에게 절에 가서 작별을 고하고 오라고 합니다. 남편은 절에 가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스님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그 절에서는 그동안 스님이 쓴 비용을 내놓으라고 댁달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 집까지 찾아와서 댁달을 합니다. 절에서 빌려 간 돈도 당장 갚으라고 협박을 하죠. 이때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인은 스님에게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썩 물러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스님의 뺨까지 때리는데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여인의 행동이 상당히 과격하고, 스님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고 생각

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스님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던 조선 시대에 창작된 것입니다. 또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스님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이 되겠죠.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작품을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스님을 쫓아낼 정도로 대담한 사람입니다. 배짱이 아주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이만큼 대담한 여성이었기에 내시의 집을 탈출해서 스님을 만나 혼인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인과 남편은 그 후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낳았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인과 남편은 50년 이상 해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잡기고담>에 실려있는 야담인 <환처>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여성 주인공의 성격이 돋보이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어 내시에게 시집가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내시의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스님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환속시키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운명을 극복했지요. 스스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사랑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혼인, 경제적 풍요, 자손의 번창. 이런 것들은 바로 조선시대 평민의 꿈이었습니다. <환처>는 평민의 소박한 꿈과 사랑을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나아가서 여성의 성적 욕망까지도 긍정을 하고 잘 표현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사랑을 이루어낸 여인의 이야기 <환처>를 감상해보았습니다.

### 3. <청상> - 청상과부의 사랑

다음으로 읽어볼 작품은 <청상>(靑孀)입니다. <청상>은 <청구야담>(靑邱野談)이라는 책에 실려있습니다. <청구야담>이라는 책 제목에서 ‘청구’는 조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구야담』이라는 책 제목은 ‘조선의 야담 모음집’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청상>이죠. 원래 <청구야담>에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재상이 홀로된 딸을 안타깝게 여겨 궁핍한 무관에게 맡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제목이 길기 때문에 보통은 줄여서 <청상>이라고 부릅니다. ‘청상’은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상과부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결혼과 재혼이 자유롭지만, 조선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재혼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있었는데요. 남자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만일 아내가 일찍 죽어서 사별을 했다면 재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재혼을 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평생에 한 번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면, 그 여성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했고, 다른 남성을 만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여성에게만 남편에 대한 정조를 의무화했죠.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성은 평생 과부로 혼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도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재상의 딸이었어요. 재상은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여인의 신분은 당연히 양반이었지요. 아버지가 재상이니 최고 명문가의 규수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지냈는데요. 여인의 아버지인 재상이 어느 날 슬퍼하는 딸의 모습을 보

게 됩니다. 작품의 한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재상이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랫방에서 딸이 곱게 단장을 하고 있었다. 거울을 앞에 놓고 바라보다가 이내 거울을 던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재상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재상은 사랑방으로 나와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짧지만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인은 시집간 지 1년도 안 돼서 과부가 되었다고 했지요? 조선 시대에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 여성은 말 그대로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곱게 단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젊고 아름다운 자신을 사랑해 줄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인은 자기 신세가 너무 원통해서 거울을 던지고 읍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물론 과부가 되었다면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사회의 규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상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규칙을 더욱 잘 지켜야 했겠죠. 그렇지만 딸이 과부가 되어서 서글퍼하는 모습을 보니 재상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딸이 가여웠습니다. 딸의 서글픈 마음을 아버지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재상의 집에 젊은 무관(武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재상의 수하에서 일을 하던 무관이었습니다. 그 무관은 젊고 건장했지만, 집도 없고 아내도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좀 가난했던 겁니다. 재상은 무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상은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고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자네 신세가 지금 곤궁한데, 나의 사위가 되어주지 않으려나?”

그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찌 그런 분부를 하시는지요. 소인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닐세.”

그러고는 상자 속에서 은화(銀貨) 주머니를 꺼내주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튼튼한 말과 가마를 빌려 오늘 밤 파루(罷漏)가 친 뒤에 우리 집 뒷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게. 절대로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되네.”

재상은 무관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청상과부가 된 딸을 무관에게 다시 시집보내겠다는 말이지요. 재상은 딸이 평생 혼자서 자기 운명을 한탄하면서 살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딸에게 새로운 남편을 찾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일을 하던 무관을 사윗감으로 정합니다.

무관은 재상의 제안을 듣고 당황하죠.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재상이 사위가 되어 달라고 하니 어안이 병병했을 겁니다. 물론 재상의 딸이 과부라는 것을 무관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관은 가난해서 아내를 얻을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관에게는 살 집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재상이 사위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 무관은 재상의 부탁에 응합니다.

재상은 무관에게 가마와 말을 빌려 파루(罷漏)가 친 뒤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파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밤에 통행금지제도가 있었습니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서울의 성문을 닫았고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종을 쳐서 통행금지 시각을 알렸습니다. 새벽 4시쯤에 종을 쳐서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일을 파루라고 합니다. 파루를 알리는 종이 친 뒤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은 파루가 친 뒤에,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무관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관은 반신반의하여 우선 은화를 받아 물러났다. 그리고 재상의 말대로 가마와 말을 준비해 뒷문에서 기다렸다.

그날 밤이 깊어서 어두운데 재상이 딸을 데리고 나와 가마에 타게 한 다음, 무관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

“지금 곧장 함경도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나의 집에 발을 디딜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무관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가마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 먼 길을 떠났다.

무관은 어쨌든 말과 가마를 빌려서 재상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면 아직 캄캄하고, 사람들이 별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겠죠. 이렇게 이른 새벽에 재상은 딸을 데리고 나와 가마에 태웁니다. 그리고 무관에게 함경도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재상은 앞으로 절대 다시는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딸과 무관을 함경도로 보냅니다. 함경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재상의 집은 아마도 서울이었을 텐데요. 아주 먼 곳으로 딸과 무관을 보냅니다. 재상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딸이 재혼한 사실을 알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여성은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것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재상의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딸이 재혼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재상은 더이상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벼슬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인의 재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상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진행이 되는데요. 재상은 무관을 사위로 삼아서 딸과 사위를 아주 먼 함경도로 보낸 다음에,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상은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손수 장사를 치릅니다. 재상은 가족들에게도 딸이 재혼한 일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딸의 행복을 위해서 재상은 이런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어서 함경도에 갑니다. 함경도에 도착해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자기 가족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어떤 부인이 와서 암행어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인은 바로 암행어사의 누이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누이가 살아서, 아들을 돌이나 낳고 살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부인은 남동생에게 아버지가 꾸뻬던 일을 말해줍니다. 암행어사가 보았던 어린아이는 바로 조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상의 딸은 무관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재상의 딸에게 행복이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 볼까요. 재상의 딸에게 행복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을 낳아 오손도손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재상의 딸이라는 최고 상류층 여성에게도 남편이 없는 삶은 불행이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삶은 비극입니다. <청상>이라는 야담은 이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함경도라는 외딴곳으로 가서 상류층의 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재상의 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재상은 아버지로서 딸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아버지 아닌가요? 딸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 딸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아버지라니,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딸의 행복한 삶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아버지는 끝내 비밀을 지킵니다. 아들이 함경도에서 돌아와 누이를 만났던 일을 말하려고 하자,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딸의 재혼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청상>이라는 야담 작품에서도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을 <청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상>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재상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재상은 조선 사회에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죠. 조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상은 조선 사회의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사람이겠죠. 원래는 과부가 된 딸이 평생 혼자 살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재상은 딸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딸의 사랑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재상은 인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딸을 재혼시킨 겁니다. 물론 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딸을 몰래 재혼시켰죠.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재상은 상당히 융통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당시 사회에 확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상>이라는 작품 속의 재상과 딸은 모두 허구의 인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점점 생겨났기 때문에 <청상>과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은 여인의 이야기이자, 딸의 사랑과 행복을 이루어 준 아버지의 이야기인 <청상>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 4. <천변녀> - 평민 소녀의 사랑

마지막으로 읽어볼 작품은 <천변녀>(川邊女)입니다. 이 이야기도 <청구야담>이라는 야담집에 실려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천변녀>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녀’는 ‘시냇가에 사는 소녀’라는 뜻인데요. 이 작품이 원래 <청구야담>에는 다른 제목으로 실려있었습니다만, 작품의 여자 주인공에 주목을 해서 <천변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시냇가에 살고 있어서 ‘시냇가에 사는 소녀’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여자 주인공에 주목을 해서 작품의 이름을 지었으니,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작품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는 우선 남자 주인공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어느 고을의 읍내에 한 양반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로웠다. 그는 한문을 약간 해독할 수 있어서, 고을의 이방(吏房) 집에 가서 장부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다.

<천변녀>의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이 남성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삶이 고단합니다. 양반이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양반이니까 한문을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방은 지방의 관청에서 사무를 보던 하급 관리입니다. 신분은 중인이었고요. 이방은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주인공 남성은 이방의 문서 작성을 도와주었는데요. 원래 중인은 양반보다 신분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양반 남성이 중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경제력이 없으면 신분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에는 가난 때문에 양반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남성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평민입니다. 시냇가에 집이 있었고요. 이 소녀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정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부모가 친척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녀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소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양반 소년이 이 소녀를 한번 보고 마음속으로 못내 사모하다가, 그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남몰래 소녀의 집으로 가서 처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내 도련님의 뜻을 잘 알아요. 내가 양반과 혼인하는 것이 평민에게 시집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내가 이미 마음으로 허락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서 혼인을 의논하고 좋은 날을 택해 혼례를 올려도 늦지 않으니 우선 기다리세요.”

여기서 소년 소녀의 첫사랑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녀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것을 알고, 평소 좋아하던 소녀의 집을 찾아가 수줍게 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소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뒤에 결혼하자고 말하는 소녀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꽤 아름답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한 말을 살펴보면, 소녀가 상당히 의젓하지요. 영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사랑을 이루자고 소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녀는 부모님이 돌아오신 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혼인 허락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주도합니다.

혼인할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두 주인공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소녀에게 구혼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먼 친척이 소녀의 외모에 반해서 여러 번 혼인을 청했었는데요. 소녀의 집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 친척이 소녀가 양반 소년과 혼인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먼 친척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 간 양반 소년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 친척은 양반 소년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짚더미 속에 소년을 거꾸로 박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너무 심하지요? 소년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소년은 평소에 매일 같이 소녀의 집 앞을 지나갔는데요. 소년이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소녀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던 날에 소녀는 소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년이 보이지 않자 소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가 쪽의 먼 친척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소녀는 그 친척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소년이 이 친척의 집에 갇혀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친척집 사람들은 소년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큰 소리로 변명을 하며 욕설까지 퍼부었다. 소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짚더미를 헤쳐내고 그 안에 처박혀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된 소년을 찾아냈다. 급히 소년을 끌어내어 우선 입속에 박힌 버선을 빼내고,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끈을 풀었다. 그리고 소년을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주인공 소녀의 활약 어떠십니까. 먼 친척은 양반 소년을 잡아다가 손발을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입속에 버선을 쑤셔넣어서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짚더미 속에 거꾸로 박혔으니 소년은 숨을 쉬기도 어려웠겠죠. 소녀는 질식해서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된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었죠. 소녀는 소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녀는 소년을 집에 두고 어머니에게 간호하게 한 다음, 곧바로 관청에 들어가 이 사실을 고발했다. 관청에서는 소녀를 크게 칭찬하고, 소녀의 먼 친척을 잡아들여서 엄하게 벌을 내려 귀양을 보냈다. 또 소녀에게 혼수를 넉넉하게 지급해 주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녀를 칭찬했다고 한다.

소녀는 소년의 목숨을 구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청에 범죄자를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소녀를 크게 칭찬합니다.

이 소녀는 평민이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용감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사랑 고백을 받고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 허락을 받았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에게 문제가 생기자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멋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랑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야담에는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백성들이 바라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천변녀>라는 작품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용감하게 이루어내는 평민 소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천변녀>의 여자 주인공은 신분이 높지도 않고요. 엄청난 미인도 아니고 시를 지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평민 소녀가 만들어가는 사랑은 굉장합니다. 평민 중에서도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멋진 소녀이기에 용기 있게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천변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 평민 소녀가 만들어 간 사랑 이야기인 <천변녀>를 읽어보았습니다.

## 5. 요약 및 정리

이번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야담이라는 문학 장르의 양반층의 작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서사의 양식으로 구성해서 한문으로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담은 세상에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야담에는 당시의 세태가 반영이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백성들이 바라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야담의 주인공들은 재자가인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신분이 평민인 경우도 많아서, 주인공의 신분이 다양해집니다.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는 재자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징은 <환처>와 <천변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평민이었는데요. 두 여성은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처>의 여자 주인공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담장을 넘어 도망을 쳤고요. <천변녀>의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상황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용기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통해 행복도 얻었습니다.

또 <환처>와 <청상>에서는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과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청상>의 여주인공은 대단한 명문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은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였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부유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 여성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딸의 마음을 이해한 아버지가 딸을 재혼시켜 주었습니다. <환처>의 여자 주인공은 행복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내시의 아내가 되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삶은 불행했지요. 그래서 내시의 아내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평생 동안 함께 살면서 이 여성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읽어본 야담 작품들에서는 특히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긍정하는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또 사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타났습니다. 세 작품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요. 물론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극적으로 끝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는 전부 사랑과 행복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은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담 속의 사랑은 애정전기소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야담 속의 사랑은 화려한 배경 위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크게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소박한 사랑과 소박한 행복이 오늘 소개해 드린 야담 작품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작품에는 사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 즉 보통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야담(野談)은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학 장르의 하나로, 양반층의 작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서사 양식으로 구성해 한문으로 기록한 작품을 가리킨다. (O/X)

정답: O

2. 야담에는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당대의 현실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 평민들이 품었던 소망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O/X)

정답: O

3. <환처>(宦妻)에서 애정은 전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며, 사랑을 이뤄가는 현실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이 돋보인다. (O/X)

정답: X

4. <청상>(靑孀) 속 여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재혼한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겨 주변 사람들에게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O/X)

정답: X

5. <천변녀>(川邊女)의 주인공 남성은 양반이지만 가난하여 중인인 이방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환처>(宦妻)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매(任邁)가 편찬한 <잡기고담>(雜記古談)이라는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 ② 내시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탈출하여 자신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진짜 대장부'를 찾아 떠난다.
- ③ 스님은 내시 아내의 협박에 의해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혼인하여 환속한다.

정답: ③

2. 다음 중 <청상>(靑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그녀를 가엾게 여긴 아버지의 주선으로 새로운 남편을 맞게 된다.
- ② 여인은 새로운 남편과 함경도로 떠난 후로 두 번 다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
- ③ 과부가 되어 사랑을 주지도 받지 못하는 삶은 비극이라는 생각,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정답: ②

3. 다음 중 <천변녀>(川邊女)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천변녀’란 ‘시냇가에 사는 소녀’라는 뜻으로, 여주인공에 특히 주목하여 작품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② 질투심에 눈이 먼 소녀의 친척으로 인해 소년에게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위기를 감지한 소녀가 친척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그를 구해낸다.

③ 소녀가 친척의 범죄 사실을 관청에 고발했으나, 관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답: ③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은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합해서 부르는 말로, 더 큰 집단에서 나누어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지배층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답: 양반(兩班)

2. 조선 후기가 되면 보통 사람의 순수한 ○○을 긍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야담에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

정답: 욕망

3. <청상>(靑孀)과 <천변녀>(川邊女)는 ‘조선의 야담 모음집’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책 <○○○○>에 실려 있다.

정답: 청구야담(靑邱野談)

#### 나. 토의 (45분)

1) <환처>(宦妻)에 조선시대 평민들의 어떠한 소망이 담겨있는지, 구체적인 대목을 들어가며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2) <청상>(靑孀) 속 여인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인물인지, 무엇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는지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3) <천변녀>(川邊女)의 주인공 소녀가 사랑을 이뤄가는 방식이 어떠한지,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 다. 과제 (45분)

지난 강의들에서 다룬 애정전기소설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것이 본 강의에서 다룬 야담 속 사랑의 모습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해 보십시오.

■ 참고자료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1, 창비, 2018.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태학사, 2012.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야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 <9차시> - 동아시아 속의 한국 애정서사

### ■ 학습목표

1. 베트남 애정전기소설에 대해 알아본다.
2. <여랑전>과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
3.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4. 일본 애정서사와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차이를 알아본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베트남의 전기소설
3. 죽음보다 깊은 사랑 - <여랑전>
4.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5. 주인과 하인의 비극적 사랑 -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6.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 <아오야 모노가타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운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를 통해서 삼국시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 보았고요. 신라 시대에 창작된 <수이전>이라는 책에 실린 사랑 이야기도 감상해 보았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창작된 애정전기소설도 감상해 보았고요.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도 감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녀의 사랑 이야기와 판소리로 그려진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도 감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외국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과 베트남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전기소설이 창작되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문을 쓰지 않지만, 전근대 시대에 베트남에서 한문을 썼습니다. 베트남 역시 전통적으로는 한자문화권에 속합니다. 한문으로 많은 문학작품이 창작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베트남의 애정전기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창작된 일본 애정서사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의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많지요. 애정서사 또한 한국의 작품들과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동아시아의 애정 서사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국의 애정서사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애정서사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2. 베트남의 전기소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에서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감상해보았습니다.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애정전기소설은 전기소설(傳奇小說) 가운데 특히 남녀의 사랑을 중심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전기소설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전기’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요. 전할 전(傳)자와 기이할 기(奇)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기라는 말은 ‘기이한 것을 전한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전기라는 장르의 기원은 중국 문학에 있습니다. 전기는 중국 당나라 때에 발생을 했습니다. 또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성행을 해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고, 전기소설이라는 장르가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글을 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전파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전기소설이 창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정전기는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전근대 시기에 한문(漢文)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했던 중국, 한국, 베트남 등에서 애정전기가 활발하게 지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전기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또 신라의 문인(文人)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당나라에서 발생한 전기가 자연스럽게 신라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전기소설이 여러 편 창작되었는데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한국의 대표적인 전기소설집입니다. 그런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영향을 준 중국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전등신화>(剪燈新話)라는 전기소설집입니다. <전등신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등신화>의 작가는 구우(瞿佑)입니다. 구우는 1347년에 태어나서 143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시습이 1435년에 태어나서 149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구우는 김시습보다 1세기 전의 인물입니다. <전등신화>는 1378년에 창작이 되었습니다. 명(明)나라 초기에 창작이 된 것이고요. <전등신화>에는 모두 스물한 편의 전기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문인들과 지식인들은 <전등신화>를 애독하였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금오신화>는 중국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오신화>에 중국 작품의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오신화>가 독자적으로 이룩한 성취가 많이 있습니다. 두 소설집을 비교하는 연구가 여러 편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등신화>는 베트남 문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기만록>(傳奇漫錄)이 창작되었는데요. <전기만록>의 작가는 완서(阮嶼)입니다. <전기만록>은 16세기에 창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만록>은 한문 소설집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옛날 베트남에서는 한문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전기만록>에는 전기소설 20편이 수록되어 있습

니다. 이렇게 전기소설은 중국 당나라에서 발생한 장르이지만,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학 장르가 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에서도 전기소설을 한문으로 여러 편 창작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베트남 전기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만록>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제목은 <여랑전>(麗娘傳)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전기만록>에 수록된 20편의 소설 모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 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3. 죽음보다 깊은 사랑 - <여랑전>

<여랑전>은 완여랑(阮麗娘)과 이불생(李佛生)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의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주인공이 여랑이고요. 남자주인공이 이생입니다. 여랑은 완씨염(阮氏琰)의 딸입니다. 완씨는 베트남어 발음으로는 응우옌(Nguyễn)씨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편의상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완씨염은 상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는 이씨 여인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런 설정을 조선시대의 상황과 한 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죠. 특히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규방(閨房)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 장사를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씨염과 이씨는 모두 여성으로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신분이 낮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완씨염은 진갈진(陳渴眞)의 외사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진갈진은 실존 인물이고요. 베트남의 장군입니다. 진갈진의 집안은 당시 베트남에서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14세기에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가능했다는 점을 이 소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완씨염과 이씨 여인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완씨염은 호공동(壺公洞)이라는 곳에 가서 신령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이씨 여인을 만났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씨 여인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러 온 것이었는데요. 이씨 여인은 완씨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둘은 성시(城市)에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약속하지도 않았건만 오늘 똑같이 여기에 왔어요. 혹 신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 자식을 점지해 준다면 꼭 서로 혼약(婚約)을 하도록 합시다. (...) 산신령께 맹세컨대 이 약속을 꼭 지키겠어요.”

이씨는 만일 산신령이 자식을 점지해 주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자기 자식을 완씨염의 자식과 혼인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친한 친구 두 사람이 각각 자식을 낳으면 서로 결혼을 시키자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지 않습니까. <여랑전>에도 이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태기가 있어 완씨는 딸을 낳아 여랑(麗娘)이라 이름 짓고, 이씨는 아들을 낳아 불생(佛生)이라 이름지었다. 장성한 두 남녀는 모두 글을 좋아했다. 부모가 서로 친한 사

이어서 두 사람 또한 왕래하며 스스럼없이 지냈다. 둘은 늘 시를 지어 읊으며 서로 화답했다. 비록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몰래 서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부부나 진배없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완씨와 이씨 여인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산신령이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입니다. 완씨는 딸을 낳아서 이름을 여량이라고 지었고요. 이씨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불생이라고 지었습니다. 완씨와 이씨는 이미 여량과 이생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었죠? 이런 사이이다 보니 여량과 이생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량과 이생은 모두 시 짓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시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에는 남녀 주인공이 지은 시가 여러 편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시들에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베트남 전기소설인 <여량전>에는 한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시 짓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시는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데에 한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량전>에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량과 이생은 사실 정혼을 한 사이죠. 부모가 이들의 결혼을 미리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량과 이생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이였죠.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모두 자유연애를 했는데요. <여량전>에는 남녀주인공의 자유연애 모티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애정전기 소설과 <여량전>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량과 이생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왔죠.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여량이 궁녀가 된 것입니다. 작가 완씨는 베트남의 역사적 사건을 작품에 끌어왔습니다. 여량은 진갈진이 관련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궁녀가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베트남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왕조는 진 왕조(陳王朝)입니다. 그런데 14세기에 들어서 진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실에서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요. 일부 지배층이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왕조나 몰락해 가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트남에서는 호계리(胡季犛)라는 신하가 권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습니다. 완씨염의 사촌인 진갈진을 비롯해서, 진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호계리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렇지만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어서, 진갈진 등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호계리는 진갈진 집안의 여자들을 모두 노비로 삼았습니다. 여량이 진갈진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궁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만록>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가져와서 소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량이 궁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생과 여량은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것이죠. 참으로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심정일 겁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서 그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갑자기 이생의 집 앞에 화려한 수레가 100대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집 난간에 편지가 한 통 던져져 있었는데요. 이생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 바로 여량의 글씨였습니다. 아마도 연말을

맞아서 궁중의 사람들과 궁녀들이 수레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했던가 봅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길에 여량이 이생의 집 앞을 지나간 거겠죠. 그때를 타서 여량이 이생에게 편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아, 저는 얼마나 오래 당신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제 마음을 옛날에 이미 당신께 주었건만 지금 이렇게 헤어져 그리워하고 있군요. (….) 궁궐을 돌아 흐르는 도랑물은 궁녀의 애를 끊는군요. 수심은 쌓이고 쌓여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평소의 소원이 어그러짐을 슬퍼하고 인생을 헛되이 보냄에 쓴웃음을 짓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노라 다짐하지만 다시 만나기란 기약하기 어렵군요.”

여량은 이생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이생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생과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궁녀가 되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생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인 <운영전>을 읽으면서 궁녀의 삶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궁녀는 주군에게 예속된 존재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궁녀가 된 여량의 슬픔이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여량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라건대 당신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셔서 다른 데 장가들도록 하세요. 한때의 사랑으로 평생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립고 보고픈 마음을 어찌 글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을 먼저 전합니다.”

여량은 이생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자신과 이생이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량은 너무도 슬프지만 진심으로 이생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생은 여량의 편지를 보고 상심을 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량과 다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쪽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생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여량의 마음을 생각해서 차마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가 없었다고, <여량전>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국 명나라가 베트남을 침공한 것이데요. 실제로 1406년에 명나라는 군인을 40만 명이나 동원해서 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407년에 당시 베트남의 정권을 잡고 있던 호계리와 그의 아들은 명나라 군대의 포로가 됩니다. 호계리 부자는 명나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베트남은 명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여량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호계리와 그의 아들이 명나라로 붙잡혀 갔으니 여량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량은 호계리와 그의 아들을 모시는 궁녀였죠. 여량 또한 명나라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생은 여량을 구하기 위해 계책을 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군대와 싸워 여량을 구해내기 위해서 베트남 군인이 된 겁니다. 이생은 여량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미 명나라 군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생은 본래 여량을 구하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었죠. 전쟁에서 공을 세우겠다는 뜻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군대에서 나와 여량을 찾습니다.

여량을 찾아다니던 이생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이생은 노파에게 완씨 성의 여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이생이 찾는 여인은 불행하게도 한을 품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전이겠군요. 명나라 군대가 떠날 채비를 할 때 완씨가 다른 두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운명이 기구하여 나라와 집안이 망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명나라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간다면 그곳은 낯선 타향입니다. 고향이 가까운 이곳에서 죽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죽어 외로운 영혼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 뒤 세 사람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명나라 장군이 세 여인의 절개를 동정하여 산등성이에 묻어주었다는구려.”

여량은 명나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자결을 했습니다. 목숨을 끊어서 정절을 지킨 겁니다. 이생은 여량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멀리서 왔소. 꿈속이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찾아와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오.”

그랬더니 여량의 혼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량의 혼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부부의 정을 다하지도 못했건만 기박한 팔자 때문에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지요. (….) 명나라의 침략을 막지 못해 궁녀들은 적에게 몸을 더럽히게 될 것을 걱정했지요. 저는 신세의 기구함을 한탄하고 액운이 거둬 다가옴을 탄식했어요. 끝내 목숨을 끊지 못하고 적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답니다. (….) 당신을 찾아가자니 적군이 지키고 있어 안 되겠고, 명나라로 끌려간다면 고향이 그리워 안되겠더군요. 그래서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여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궁녀가 된 것도 기박한 팔자인데, 명나라 군사에게 정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량은 이생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명나라 군사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명나라로 끌려간다면 고향이 몹시 그리울 것 같아서 수건으로 목을 매 자결을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저항하다가 죽은 <이생규장전>의 최씨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생규장전>에서도 최씨가 혼령이 되어 나타나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죠. <여량전>에서도 죽은 여량의 혼령이 나타나서 남편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여량은 남편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저승으로 떠납니다. 다음날 이생은 여량과 함께 자결한 두 여인의 장례를 정식으로 치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량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생은 아내와 다시 정을 나누고 싶었지만 아내의 모습은 홀연 보이지 않았다. 이생은 마침내 슬픈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 다시는 장가들지 않았다.

이생은 평생 여량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량전>에 그려진 사랑도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

고 이생은 다시 베트남의 군인이 되어서 명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데 상당한 공을 세웠습니다. 명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으니, 명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여러 측면에서 <금오신화>에 수록된 <이생규장전>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자주인공이 외국 군대의 침입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죽은 아내의 혼령이 나타나서 남편과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도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작품이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이생규장전>의 두 주인공은 자유연애를 했지만요. <여랑전>의 두 주인공은 정혼한 사이였죠. 부모가 맺어준 인연입니다. <이생규장전>의 남자주인공은 아내의 혼령이 저승으로 돌아간 뒤에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어 죽죠. 그렇지만 <여랑전>의 남자 주인공은 아내의 혼령이 저승으로 돌아간 뒤에,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명나라 군대와 싸웁니다. <여랑전>은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 부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애정전기소설 <여랑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4.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지금부터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일본에서 창작된 애정서사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야마다 교코(山田恭子) 선생님의 <한국과 일본의 17~19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남녀 애정관계 비교연구>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한국 고전소설은 지은 이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습니다. 작가가 밝혀진 경우를 보면, 작가가 양반 사대부인 경우가 많았지요? <이생규장전>의 작가인 김시습, <하생기우전>의 작가 신광한, <주생전>의 작가 권필은 모두 양반 사대부였습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지어서 황진이 이야기를 남긴 유몽인도 물론 양반 사대부입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문으로 지어졌고요. 네 사람의 작가는 한문으로 글을 짓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작가는 한문으로 소설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한시도 많이 지었고요. 요즘으로 치면 논설문이나 수필에 해당하는 글도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작가들은 대부분 상인 계층이거나 서민 계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일본 애정서사는 모두 일본 고유 문자인 가나로 쓰였습니다. 일본 애정서사의 작가층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근대 일본의 신분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17~19세기의 일본의 신분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상층에는 귀족(貴族)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무사(武士), 그러니까 사무라이 계급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평민(平民) 계급이 있었습니다. 평민 계급 안에서도 차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평민 중에는 농민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장인(匠人)이었습니다. 상인이 평민 중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이 가장 부유했기 때문에 평민 계급 안에서 신분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전근대 시기에 일본의 평민들은 대부분 자기 출신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출신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고전 애정서사와 일본 고전 애정서사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읽어보았던 한국 고전소설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은 양반 신분인 경우가 많

았지요?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조닌(町人) 계층, 다시 말해서 평민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전 서사문학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해서 창작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일본 작품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글재주가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고, 문장을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일본에는 과거 시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계급은 사무라이, 무사 계급이죠. 그런데 사무라이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작가가 평민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라이가 연애 결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드렸고요. 이제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 주인과 하인의 비극적 사랑 -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에서 감상했던 작품들에서, 남녀 주인공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이생이 학교에 가던 길에 최씨를 만났고요. <운영전>에서는 수성궁에서 열린 연회(宴會)에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춘향전>에서는 이몽룡이 그네 타는 춘향을 우연히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요. 한국 고전소설에서의 만남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고전소설, 특히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재자(才子)와佳人(佳人)의 만남으로 묘사했었죠?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상당히 운명적인 만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주인공은 대개 시를 주고 받았습시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시를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서는 이러한 만남의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친척 관계이거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한국 고전소설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특히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만 나타나는 만남이 있는데요. 바로 한 집안의 주인과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사랑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있는 일본 작품을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다모토노 시라시보리>(袂の白しぼり)이고요. 1711년에 쓰인 작품입니다. 작가는 키노카이온(紀海音)이라는 분입니다. 이 작품은 아부라야(油屋)라는 전당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의 외동딸 오소메는 하인인 히사마쓰(久松)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히사마쓰는 전당포에서 7살부터 일을 하면서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히사마쓰가 주인의 딸과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소메와 히사마쓰의 법적인 신분이 다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적인 신분이 평민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가게의 주인과 그 가게에서 일하는 하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차이가 크겠죠. 가게의 하인이라고 해서 천민이나 노비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소메의 아버지인 전당포 주인은 딸이 히사마쓰와 사랑에 빠진 것을 몰랐습시다. 그리고 오소메의 아버지는 오소메가 시집갈 곳을 정해 놓았습니다.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걱정했습니다. 또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관해서 죽음을 택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히사마쓰가 도망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에게 돈을 주면서 “돈이 연명(延命)의 묘약이니 소중히 여기고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히사마쓰와 도망가라고 말은 못했지요. 언젠가 도망을 쳐서 이 돈으로 살아가라는 뜻에서 미리 돈을 준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소메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소메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히사마쓰와 유모들의 옷을 삽니다.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 사랑의 도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소메의 아버지가 오소메와 히사마쓰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고 있으니 발각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겁니다. 오소메의 아버지는 히사마쓰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전당포지요. 전당포 주인인 오소메의 아버지는 히사마쓰에게 전당포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히사마쓰는 창고 안에서 자살을 합니다. 동시에 오소메는 창고 밖에서 자살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주인과 하인이 연애를 하는 것은 범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고전 서사문학 가운데 주인과 하인의 사랑이라는 설정이 등장하는 작품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는 주인의 딸과 남자 하인이 연애를 하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지위가 더 높은 것이죠.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역시 그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대부분 남자 주인공의 신분이 더 높았습니다. <운명전>도 그러했지요. <춘향전>에서도 남자 주인공의 신분이 더 높았습니다. 한국 작품과 일본 작품 사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서는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딸이 연인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에, 제가 <청상>(靑孀)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청상>을 한 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청상>의 여주인공은 대단한 명문가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재상(宰相)이었습니다. 재상은 조선 시대에 가장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공 여성은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였기 때문에 불행했죠. 부유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 여성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딸의 마음을 이해한 아버지가 딸을 자기 휘하에 있던 군인과 재혼시켜 주었죠. 그래서 재상의 딸과 군인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도피를 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죠. <청상>에서는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딸의 사랑에 한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서는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딸의 사랑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딸이 연인과 사랑의 도피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두 작품의 결말은 아주 다릅니다. <청상>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다모토노 시라시보리>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청상>이 보여준 사랑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랑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판타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는 실제 현실의 사회가 좀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사랑이 범죄에 해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의 결말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은 같은 시각에 동반자살을 했죠. 이런 결말은 한국 고전 서사문학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통해 감상해 본 작품 중에서 주인공이 죽음을 맞는 작품들은 여러 편 있었습니다. 먼저 <이생규장전>이 있습니다. 홍건적(紅巾

賊)이 고려에 침략을 했고, 여주인공 최씨는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했었죠? 그 후에 남자 주인공 이생은 아내 최씨를 그리워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운영전>의 주인공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이라는 주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궁녀의 처지였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자결을 했습니다. 운영이 자결을 한 뒤에, 연인 김진사는 운영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자결을 한 것이죠. 한국 고전소설에도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지만, 일본 작품과는 달랐습니다.

일본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일본에서는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것을 정사(情死)라고 부릅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완성할 수 없는 연인이 함께 죽음을 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남녀의 동반자살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정사 사건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사 사건을 일으킨 여성들은 대부분 유녀(遊女)였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당시의 일본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사 사건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18세기에 치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이라는 작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정사 사건을 소재로 해서 문학 작품을 지었는데요. 모두 10편이 넘는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치카마쓰는 조루리(淨瑠璃)라는 인형극의 대본을 많이 썼는데요. 치카마쓰의 작품은 극장에서 물론 공연이 되었고요. 동시에 책으로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치카마쓰의 작품 중에서 특히 남녀가 애정행각 끝에 동반 자살하는 정사 이야기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카마쓰의 작품에서 정사는 남녀의 순수하고 진지한 애정의 결과로 그려집니다. 남녀가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택했다고 본 것인데요. 동반자살을 택한 남녀 주인공은 죽은 뒤에 극락정토(極樂淨土)에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연꽃 위에 함께 태어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다모토노 시라시보리>는 치카마쓰가 쓴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사 이야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소메와 히사마쓰는 오소메의 아버지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이 발각된 이상 처벌은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모습을 작품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의 하얀 얼굴을 보면 두 사람은 하나의 연꽃 위에 같이 앉아 있는 부처와 같다.”

이 작품에서도 정사를 실행한 남녀 주인공을 하나의 연꽃에 앉아 있는 부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는 일본적 불교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사 모티프는 한국 고전 문학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독특한 면모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고전 서사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 6.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 <아오야 모노가타리>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 주인공이 사랑을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생규장전>의 최씨는 이생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시를 먼저 들려주었고요. <운영전>의 운영도 김진사에게 먼저 편지를 건네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야담의 여주인공들도 애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도 이런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아오야 모노가타리>

리>(八百屋物語)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이 바로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입니다. 이 작품은 168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라는 분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야채가게 주인의 딸 오시치입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도 평민 계급이죠.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해서 오시치의 가게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오시치 가족은 절로 피난을 갔는데요. 오시치는 절에서 기치사부로(吉三郎)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고요.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시치와 기치사부로는 편지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렇지만 오시치의 어머니가 딸이 연애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두 남녀는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거센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던 날 밤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오시치는 기치사부로를 찾아갑니다. 기치사부로는 이 만남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시치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도합니다. 오시치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주도하는지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벼락이 심하게 치니 오시치가 “참 무섭네요”라고 하며 기치사부로를 붙잡고 있다. 기치사부로 또한 자연스레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생겨 “당신의 손발이 차갑네요”라고 말하며, 오시치의 몸을 끌어당긴다. 오시치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연애편지를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을 차갑게 만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목덜미를 붙들고 껴안았다.

어떠십니까? 여주인공 오시치가 먼저 적극적으로 애정 행위를 주도하지요. 이어서 두 사람은 동침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저는 <이생규장전>이 떠오릅니다. 여주인공 최씨가 이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랑을 나누었죠. 오시치와 최씨 모두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날이 밝자, 오시치의 어머니가 찾아와 오시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시치와 기치사부로의 만남을 금지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편지를 주고 받지만,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애를 태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요.

어느 겨울 밤에 기치사부로는 상인(商人)으로 변장을 하고 오시치의 집에 찾아옵니다. 오시치는 그 상인이 기치사부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에게 들릴까 봐 오시치와 기치사부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종이에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를 수 없는 사랑의 슬픔이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두 주인공은 이렇게 글로 대화를 나누며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또 헤어집니다. 그 후에 오시치는 기치사부로를 그리워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집에 불이 나서 피난을 가게 된다면 기치사부로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오시치는 건물에 불을 붙입니다. 오시치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치사부로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오시치는 방화죄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고 만 겁니다. 당시에 일본에는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방화죄를 아주 엄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치사부로도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시치의 부모가 기치사부에게 오시치의 유언을 전해줍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스님이 되어서 영혼을 위로해 달라는 오시치의 유언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치사부로는 자결하지 않고 중이 되었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죠. 사랑에 너무 깊이 몰입을 한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 불을 지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오시치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생규장전>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최씨와 이생의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왔었죠? 바로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의 연애를 반대해서 먼 지방으로 아들을 보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최씨는 이생을 그리워하다 상사병이 났고요. 결국 최씨가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생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생규장전>은 흥건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최씨와 오시치는 모두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사랑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여주인공과 오시치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고전 서사문학 작품인 <아오야 모노가타리>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애정서사 세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의 사랑 이야기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여랑전>은 베트남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O/X)

정답: O

2. <여랑전>에서 완씨염과 이씨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러 호공동(壺公洞)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O/X)

정답: X

3.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조닌(町人) 계층이다. (O/X)

정답: O

4.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작품에서 죽은 남녀 주인공을 하나의 연꽃에 앉아 있는 부처에 비유를 하고 있다. (O/X)

정답: O

5. 키노카이온이 창작한 <아오야 모노가타리>는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베트남 <여랑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랑과 이생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라고 생각했다.
- ② 이생은 궁녀가 된 여랑의 편지를 보고 다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 ③ 죽은 여랑은 혼령으로 나타나서 이생에게 다른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하라고 권했다.

정답: ③

2. 다음 중 일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을 걱정해서 딸에게 돈을 주고 히사마쓰와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
- ② 딸의 연애관계를 알게 된 오소메의 아버지는 히사마쓰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 ③ 오소메와 히사마쓰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사랑을 이룰 수 없어 죽음을 택했다.

정답: ①

3. 다음 중 일본 <아오야 모노가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센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던 날 밤에 오시치는 기치사부로에게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 ② 오시치의 어머니가 오시치와 기치사부로의 관계를 금지해서 둘이 편지를 주고받지도 못

하고 직접 만나지도 못했다.

③ 기치사부로는 자결하려고 했지만 오시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이 되어서 오시치의 영혼을 위로했다.

정답: ②

4. 다음 중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들은 대부분 상인 계층이거나 서민 계층에 속한다.
- ② 작품 속에서 무사 계층과 평민의 신분적 격차를 잘 보여준다.
- ③ 남자 주인공의 글재주가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

정답: ②

5. 다음 중 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여랑전>에서 이생은 명나라 군대의 포로가 된 여랑을 구하기 위해 군인이 되어 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 ②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서 오소메와 히사마쓰는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하고 창고 안에서 동반자살을 했다.
- ③ <아오야 모노가타리>에서 기치사부로는 상인으로 변장을 하고 오시치의 집에 자주 찾아갔다.

정답: ①

####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아오야 모노가타리> 이야기에서 오시치와 기치사부는 ○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정답: 절

2. 일본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것을 ○○라고 부른다.

정답: 정사

3. <○○○○>은 중국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베트남 전기소설집이다.

정답: 전기만록

#### 나. 토의(30분)

베트남 <여랑전>과 일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아오야 모노가타리>는 모두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는 사랑 이야기이다. 각각의 작품들의 결말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다. 과제(60분)

베트남 <여랑전>과 일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아오야 모노가타리> 소설 3편 중 하나를 택하여 한국 <이생규장전>과 결연과 이별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태도를 각각 비교해 봅시다.

다.

▪ 참고자료

야마다 교코, 「한국과 일본의 17~19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남녀 애정관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울대 도서관 원문 보기](#))

완서 지음, 박희병 옮김,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돌베개, 2000.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 <10차시> 시와 산문으로 읽는 부부의 사랑

### ■ 학습목표

1. 조선시대의 결혼관과 결혼 풍속을 알아본다.
2. 신혼의 기쁨을 노래한 한시를 감상한다.
3. 부부의 해로를 노래한 한시를 감상한다.
4.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슬픔을 담은 시와 산문을 감상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조선시대의 결혼
3. 신혼의 사랑
4. 해로의 기쁨과 슬픔
5. 사별 뒤의 그리움
6. 요약 및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번의 강의를 통해 한국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감상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부부의 사랑을 소재로 한 시와 산문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지난 시간까지 감상했던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는 삼국시대 역사서에 나온 사랑 이야기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을 감상해보았는데요. 장르로 보면 소설이 많았지요?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드렸고,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도 읽어보았습니다. 또 조선 후기에 등장한 야담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사랑 이야기는 주로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 장르에 속했는데요. 역사책 속에 실린 사랑 이야기는 아무래도 실존 인물의 사랑 이야기였겠지만, 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는 대부분 허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허구적인 소설이라고 해도 현실의 사회와 현실 속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반영하

고 있다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마지막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사랑 이야기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들은 실제 부부 사이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옛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또 자기 남편에 대해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학 작품이 쓰인 시기는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600년 이상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높은 신분은 양반이었고요. 그 아래에 중인(中人)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평민 계층이 있었고, 가장 낮은 계층은 천민(賤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였습니다. 유교적 원리에 따라 국가 체제가 마련되었고요. 조선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결혼 역시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양반 신분인 유학자(儒學者)들은 유교 경전(經典)인 <소학>(小學)을 중시해서, 남녀 관계도 <소학>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은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덟 살에 입학하는 초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입니다. 한국 초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급식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소학>이라는 책에서는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말을 아주 중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은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다가 결혼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겼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는 자유로운 연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은 중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매는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주관을 했죠.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읽어보았던 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 또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많았지요? 이것은 아무래도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꿈이나 바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자유롭게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연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에 대한 바람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 즉 부부의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에서는 우선 조선시대의 혼인 풍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어서 부부의 사랑을 소재로 한 시와 산문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조선시대의 결혼

지금부터는 조선 시대의 결혼 풍속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조선시

대에는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하거나, 자유롭게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이 중매를 통해 결혼할 상대를 구했는데요.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성리학자 윤희(尹鑣)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전적으로 혼자 장가들지 않고 여자는 전적으로 혼자 시집가지 않는다. 반드시 부모를 통하고 중매를 필수로 한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부끄러움을 멀리하고 음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경>(詩經)에 “아내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고해야지. 아내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중매가 아니라면 되지 않는다네”라 하였다.

윤희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중매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매는 결혼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사람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중매를 청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결혼은 단순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인연을 맺는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결혼 풍속은 중국의 유교적 결혼 예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혼례와 똑같지는 않았고요. 조선의 상황에 맞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결혼은 크게 결혼 준비 단계, 결혼식, 결혼식 이후의 의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남녀가 결혼할 나이, 그러니까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이 되면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일가친척들이 결혼 상대를 구하기 위해 의논을 하고, 적절한 상대가 있으면 중매인을 보내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자는 신분이 같은 사람으로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흔히 ‘혼담(婚談)이 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이 결정되면 신랑집에서 신붓집에 신랑의 사주(四柱)를 적은 종이를 보냅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도와 월, 일, 그리고 시각을 뜻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사람의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태어난 시각까지 중시했습니다. 이 사주가 사람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붓집에서는 신랑의 사주를 받은 뒤에, 신부의 사주를 적어서 다시 신랑집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 결혼을 완전히 허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교환하는 것은 정혼(定婚)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교환한 뒤에는 결혼식을 올릴 날짜를 정합니다. 이 과정을 보통 택일(擇日)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식 날짜는 대개 신붓집에서 결정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예물을 보냅니다. 보통 신랑의 집에서 신부에게 예물을 보내는데요. 주로 옷감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조선시대에는 ‘대례’(大禮)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의식이라서 대례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신붓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때 신랑은 보통 푸른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요. 신부는 원삼(圓衫)이라는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은 뒤에 얼굴에 연지를 찍었습니다. 결혼식은 신붓집 마당에서 올리는데요. 신붓집 마당에 병풍을 치고 상을 차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서서 절을 올리죠. 신랑과 신부는 하나의 잔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요. 이것은 남녀의 결합, 그리고 두 집안의 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는 신부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식 이후

에 곧장 신혼여행을 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붓집에서 며칠을 머물고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신부는 신랑의 집, 그러니까 시댁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나고 자랐던 친정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죠. 신부는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친척들께 절을 올리고요. 간단한 의례를 치른 뒤에 신부는 평생 시댁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신부는 가끔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결혼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의 결혼 과정과는 다른 점이 많지요?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부부 생활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이고, 유교의 가르침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강오륜은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칙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규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강(三綱) 중에 부위부강(夫爲婦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오륜(五倫)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는 규범이죠.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 시대에는 남녀의 구별, 나아가서 남녀의 차별이 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들에는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부부들은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작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3. 신혼의 사랑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신혼부부의 사랑이 표현된 한시입니다. 김삼의당(金三宜堂)과 하립이라는 부부가 주고받은 한시인데요. 김삼의당이 아내이고 하립이 남편입니다. 김삼의당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성이 김씨이고, 삼의당은 이 여성의 호(號)입니다. 김삼의당은 조선 후기의 여성 문인입니다. 물론 양반 신분이고요. 17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2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남원에서 태어났고요. 김삼의당은 여성이지만 한문으로 시와 산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품집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 여성이 한문으로 글을 창작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는데요. 김삼의당의 작품집에는 시와 산문이 260여 편이나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삼의당의 남편인 하립이라는 분도 1769년에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양반 신분이고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김삼의당의 시에 두 사람이 결혼한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첫날 밤에 한시를 한 수씩 지어서 주고받았습니다. 이 시에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상당히 길니다.

<같은 마을에 하씨 성을 가진 집이 있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대대로 문학으로 명성을 날렸다. 아들이 여섯인데 셋째가 립이다. 풍채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나 부모님께서 매번 보고 기특하게 여겼다. 매파(媒婆)를 보내 혼인을 약속하고 마침내 혼례를 치렀다. 혼례를 이룬 첫날 밤에 남편이 연이어 절구(絶句) 두 수를 읊고 내가 이에 화답하였다>

시의 제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삼의당이 살던 마을에 하씨 성을 가진 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사는 이웃이죠. 하씨 가문은 가난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하씨 가문 사

람들은 글을 잘 지었습니다. 글재주가 있었던 거죠. 하씨 가문에는 아들이 여섯 명 있었는데, 하립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립은 용모가 준수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삼의당의 부모님도 하립을 기특하게 여겼다고 했지요? 아마 김삼의당의 부모님은 같은 마을에 사는 하립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을 겁니다. 자기 딸과 동갑내기인 사내아이니까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김삼의당의 부모님은 하립을 사윗감으로 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쪽 보아온 아이인데다 외모도 준수하고 글재주까지 있었으니 마음에 들었겠지요. 그래서 매파, 바로 중매인을 하립의 집으로 보내 정혼을 합니다. 이렇게 김삼의당과 하립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의당과 하립은 첫날밤에 한시를 지어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살면서 오랫동안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삼의당은 하립이 글재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립도 자기 아내가 한시를 지을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밤에 신혼부부가 각자 한시를 지어서 서로에게 보여주었겠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의 시를 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지은 시입니다.

“서로 만난 두 사람 광한전(廣寒殿)의 신선이라 / 분명 오늘밤은 옛 인연을 이은 것 / 원래 배필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법 / 세간의 중매는 쓸데없는 짓이라네”

남편은 아내와 자신을 천상의 신선이라고 말합니다. 광한전은 달 속에 있다고 하는 궁전의 이름입니다. 물론 상상의 공간이죠. 광한전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립은 아내와 자신이 하늘이 정해준 부부라고 말합니다. 중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립은 아내와의 결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내 김삼의당이 지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열여덟 선남과 열여덟 선녀가 / 동방화촉(洞房華燭) 좋은 인연 맺었네 / 생년월일 같고 한 마을에 살았으니 / 이날 밤 만남이 어찌 우연이리오?”

김삼의당과 하립은 생일이 같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한 마을에 같은 날 태어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다니, 분명 마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일이 같은 남녀가 열여덟 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 결혼을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의당과 하립은 결혼을 하여 사랑을 이룬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에서 신혼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김삼의당과 하립 부부는 평생을 해로했습니다. 물론 함께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 하립이 과거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삼의당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를 지어서 표현했지요. 집안이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부들이 그러하듯이 이들은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 한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 4. 해로의 기쁨과 슬픔

다음으로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이 표현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부부들은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바랍니다. 백년해로는 백 년 동안 함께 늙어가

겠다는 말인데요. 결혼을 할 때 백년해로하자는 다짐을 하기도 하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면서 오래도록 같이 살아가자는 다짐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부부들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기쁨이 표현된 시 다섯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 어유봉(魚有鳳)의 시입니다. 어유봉은 조선 시대의 문인(文人)입니다. 1672년에 태어나서 17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관직을 역임했고, 당시에 학자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유봉은 일흔이 넘어서 아내에 대한 시를 지었는데요. 어유봉과 그 아내 홍씨(洪氏)가 결혼한 지 이미 50년이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의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9월 8일에 시를 지어 아내에게 주다>입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노랗게 국화가 피어 아름다운 가을에 / 당신이 인간 세상 내려온 것 좋은 인연이었네 /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고 둘 다 백발이 되었으니 / 조강지처(糟糠之妻) 함께할 날 몇 해 남았나”

이 시를 지은 날은 9월 8일이죠. 그런데 음력 9월 8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음력으로 9월 8일이니 양력으로는 10월에 해당하죠. 10월이면 국화가 한창 피었을 때입니다. 국화가 피어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어유봉은 늙은 아내에 대한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아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과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기에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부부가 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또 어유봉은 결혼을 하고 50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아내와 자신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겠죠. 조강지처는 고생을 함께한 아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으니, 아내와 몇 년을 더 같이 살 수 있을까. 어유봉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이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애뜻함이 잘 느껴지는 시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덕무(李德懋)는 아내를 벗으로 여겼습니다. 이덕무는 1741년에 태어나서 179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덕무 역시 문인으로서 시와 산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에 <6월 23일 술에 취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네 / 한탄한들 무엇하나 / (…)/ 세상 물정은 남의 약점을 캐고 / 세상 인심은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네 / 아내는 도리어 아름다운 벗 / 술을 사다 통쾌하게 따라주네”

이덕무의 시는 6월 23일에 지은 것이죠. 한 해가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덕무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벌써 올해도 반이나 지났네. 이런 한탄을 여러분도 종종 하시죠? 이덕무도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캐어 헐뜯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남을 시기하고 의심합니다. 이덕무는 250년 전의 사람인데, 요즘 사람들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헐뜯는 것 같고, 또 나를 시기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을 이덕무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덕무의 마음이 울적하겠죠?

이때 아내가 이덕무를 위로합니다. 술을 사와서 이덕무에게 따라 주면서요. 요즘도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술을 사주면서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덕무의 아내는 이런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덕무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주는 아내야말로 이덕무에게 아름다운 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친구 같은 부부가 있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시는 정약용(丁若鏞)의 시입니다. 한국 역사나 한국 고전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고, 다산(茶山)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라고 알려져 있죠.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공교롭게도 결혼 60주년 기념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결혼 25주년을 기념해서 은혼식(銀婚式)을 하고, 또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금혼식(金婚式)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6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결혼 60주년을 회혼(回婚)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60주년을 많이 기념합니다. 만60세가 되는 생일을 회갑(回甲)이라고 하는데, 회갑 때는 큰 잔치를 열어서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양에서는 연도를 간지(干支)로 표현했지요. 이 간지는 60년을 주기(週期)로 합니다. 그래서 60년을 일종의 시간의 단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6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요? 분명 회혼은 기념하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 시에서 아내와 함께 산 6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60년을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약용의 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결혼 60주년을 기념해>입니다.

“60년 풍상(風霜)의 바퀴 눈 깜짝할 새 굴러왔지만 / 복사꽃 화사한 봄빛은 신혼 때와 같네 / 생이별과 사별(死別)이 늙음을 재촉하나 / 잠깐 슬프고 오래 즐거운 건 임금님 은혜겠지 / 오늘밤 뜻 맞는 대화가 새삼 즐겁고 / 옛날의 붉은 치마엔 먹 흔적이 남아 있네”

부부가 60년을 함께 하는 동안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정약용 부부에게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약용이 벼슬을 하느라 몹시 바빠서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40세 때인 1801년에 유배형을 받아 1818년에야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중년기의 대부분을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에서 보낸 겁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갖은 고생을 했겠지만요. 정약용이 유배지에 가 있는 동안 아내는 자식들을 홀로 기르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풍상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풍상은 바람과 서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비유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생을 가리킵니다. 정약용의 결혼기념일은 2월 22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도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복사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신혼 시절의 복사꽃을 언급한 것입니다. 신혼 때나 지금이나 결혼기념일 무렵에는 복사꽃이 핀다고 말한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약용이 유배형을 받았기 때문에, 정약용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슬픔을 시에서 언급했고요. 그래도 임금님 덕에 유배에서 풀려나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붉은 치마는 정약용 부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 치마는 아내가 시

집을 때 입었던 것인데요. 아내는 유배지에 있던 정약용에게 이 치마를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치마를 보고 아내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겠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미 치마는 낡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4년이 지나있을 때니까요. 정약용은 이 소중한 치마를 뜻깊은 일에 사용합니다. 이미 빛이 바랜 치마를 잘라서 그 천에다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적었습니다. 또 치마를 자른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치마에 먹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흔적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붉은 치마는 정약용 부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결혼 60주년을 기념해>라는 시에서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정약용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다른 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룻밤에 천 송이 꽃이 지고 / 지붕을 맴도는 건 비둘기와 어미 제비 / 외로운 나그네는 돌아가지 못하니 / 언제쯤 안방에서 아름다운 만남 가질까 / 그리워 앓노라 / 그리워 앓노라, 슬픈 꿈속의 그 얼굴”

이 시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은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 시인데요. 먼저 유배지의 외롭고 쓸쓸한 밤 풍경을 읊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들이 하룻밤 사이에 저버렸다고 했고요. 지붕에는 비둘기와 제비만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지금 정약용 옆에는 마음을 나눌 아내가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아내를 다시 만날까, 언제쯤이면 내 집의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시에 썼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슬프지요. 아내가 몹시 그리워서 이런 시를 쓰면서도, 정약용은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반어법을 썼습니다.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을까요. 꿈속에서나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정약용의 처지가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벼슬을 하던 양반이 유배형을 받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유배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노수신(盧守愼)이라는 분도 젊은 시절에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노수신은 1515년에 태어나서 1590년에 생을 마쳤는데요. 153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546년에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해서 노수신은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유배지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장인과 아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입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묶고 부부 되었더니 / 울음을 머금고 영영 이별했네 / 다음 세상은 어찌 될지 알기 어려운데 / 같은 곳에 묻힐지도 기약할 수 없네 / 편지는 눈물로 글자가 번졌고 / 어지러운 필체에 줄도 비뚤비뚤 / 편지 받은 노수신이 가련하구나 / 따라다닐 자식조차 두지 못했으니”

맨 처음에 ‘머리 묶고 부부 되었더니’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옛날에 남자는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고 여자는 머리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기 전에는 머리를 땅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땡기머리를 했는데, 결혼을 하면 머리를 묶어서 틀어 올립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머리 묶고 부부가 되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는데, 노수신 부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노수



부릅니다.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첫 문장은 ‘원이 아버지께 올립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번째 문장은 ‘자네 항상 나에게 이르되’로 시작하죠. ‘자네’는 남편 이응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은 남편을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16세기에는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당신이 항상 나에게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함께 살자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 버리다니!’라고 말하면서 원이 엄마가 슬픔을 토로합니다. 이들 부부는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남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를 어여쁘게 여기면서 사랑할까?’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원이 아버지와 원이 엄마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이 아버지는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원이 엄마는 너무도 슬퍼서 차라리 나도 저승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따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이 엄마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까. 뱃속의 아이를 원이라고 불렀는지, 이미 이들 부부에게 먼저 낳은 자식이 있어서 큰 아이의 이름이 원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응태의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까?’라고 말하고 있죠. 원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이 엄마는 남편을 잃은 서러움을 절절하게 편지에 썼고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출토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에는 이응태의 묘에서 편지와 함께 출토된 또다른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원이 엄마가 마(麻)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지자 원이 엄마는 신발을 엮었습니다. 남편에게 저승에 갈 때 신고 가라고 신발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신발은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출토가 되었는데요. 원이 엄마가 신발을 만든 사연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연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이 엄마가 죽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이인상(李麟祥)의 <아내 제문>입니다. 이인상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고 화가입니다.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이인상의 글씨와 그림 중에 유명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인상은 171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인상은 1732년, 그러니까 스물세 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는 이인상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이 부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57년 1월 2일에 아내가 이인상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인상은 26년을 해로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제문(祭文)을 지었습니다. 제문은 문학 장르의 한 종류인데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보통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읽는 글입니다. 이인상의 <아내 제문>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부인은 나의 아내이면서 / 나의 벗이기도 했지요 / 나의 어리석음 깨우쳐 주고 슬픔을 위로했거늘 / 얼굴빛은 순하고 말씨는 정성스러웠지요 / 아아! 부인이 부지런히 힘쓴 덕분에 / 나는 집안일을 잇을 수 있었습니다 / 굶주려도 책을 팔지 않았고 / 추위도 꽃나무를 때지 않았지요 / (...) / 아아! 여자가 훌륭한 건 / 크게 슬퍼할 일이오 / 지아비가 지혜롭지 못하니 / 누가 그 훌륭한 행실을 자세히 전하겠습니까?”

이인상은 자기 아내를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상의 아내는 아주 지혜롭고 어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인상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진짜 속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이인상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 당신 생각이 옳지 않다고 이인상을 깨우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인상이 지은 글을 비평하기도 했는데요. 이인상이 쓴 글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충고를 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인상의 아내는 좋은 글을 판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상의 아내는 부지런하게 집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인상은 벼슬을 별로 하지 못해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부지런하게 살림을 해서 극심한 가난에 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글을 읽다 보면 당장 먹을 곡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책을 팔아 돈을 마련해 곡식을 샀다는 내용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인상은 아내 덕분에 책을 팔아 곡식을 사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인상은 꽃과 나무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땀 나무가 없다면, 기르던 나무를 베어 땀감으로 써야 했겠죠. 그렇지만 아내 덕분에 그런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인상은 자신의 아내가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인상의 아내는 자식들을 잘 길렀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이인상은 원래 서울에 살았습니니다만, 경상도 어느 고을의 수령이 되어서 집을 떠나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내는 이인상이 집안 걱정을 하지 않고 공무(公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을 혼자서 잘 돌보았습니다. 이인상은 혼자서 집안일을 돌보는 아내를 애뜻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인상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의 훌륭한 행실을 세상에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가난한 자신에게 시집와서 고생하는 아내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진정한 벗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벗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진정한 벗으로 여길 만큼 이인상은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아내 또한 이인상을 진심으로 존중했겠죠. 지금까지 부부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정희(金正喜)의 시입니다.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문인(文人)이고 서예가이지요. 화가이기도 합니다. 김정희는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사(秋史)라는 호를 썼지요.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한국 고전문학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추사 김정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예가이자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김정희는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書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희의 서체를 ‘추사체’(秋史體)라고 부릅니다. 김정희가 그린 수묵화인 <세한도>(歲寒圖)는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김정희는 서예가이자 화가로서, 또 학자로서 아주 명성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김정희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1840년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내를 남겨두고 홀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제주도에 쉽게 갈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너무나 멀고 외딴 섬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제주도에 아내에게 한글 편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이 두터웠다고 하죠. 김정희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반찬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호두나 꽃감을 보내달라는 편지도 썼다고 해요. 부부 사이가 참 가깝고 격의 없어 보이지요? 이렇게 김정희와 아내 이씨는 정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1842년에 김정희의 아내가 죽고 맙니다. 제주도에 유배를 와 있던 김정희는 아내의

임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했을까요. 그래서 김정희는 시를 지어 아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시의 제목은 <유배지에서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다>입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월하노인(月下老人) 데리고 저승에 하소연하여 / 내세에는 부부간 처지를 바꾸어 / 내가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남아 / 당신도 슬픈 마음 알게 하리라”

월하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노인이지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김정희는 자신과 아내의 인연을 맺어준 월하노인을 데리고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부부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고 하죠. 이번 생에서는 아내가 먼저 죽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내가 먼저 죽고 아내는 살아남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번 생에서 겪은 슬픔을 아내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배우자와의 사별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더구나 김정희는 유배지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임종을 지켜볼 수 없었죠. 그래서 아내와의 사별이 더욱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편, 또는 아내와 사별한 뒤에 그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도 그만큼 더 컸을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부부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6. 요약 및 정리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그린 시와 산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했지요. 자유로운 연애가 금기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결혼 상대를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대부분 이렇게 중매로 결혼을 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한평생 해로한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이 이런 부부의 사랑을 증명해 주고 있죠.

김삼의당과 하립이 주고받은 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고요. 어유봉의 시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덕무는 아내야말로 내 참된 벗이라고 했고요. 정약용은 무려 아내와 60년을 해로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쌍의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함께 겪어나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정약용과 노수신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부가 평생 해로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별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원이 엄마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원이 엄마는 남편을 잃은 서러움을 편지에 썼습니다. 이인상과 김정희는 아내와 사별을 했는데요. 이인상의 작품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었고요. 김정희의 시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는 부부유별이라는 윤리가 관철되던 시대니까, 부부 사이가 그리 친밀하거나 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

린 작품들에는 부부의 사랑, 부부 사이의 다정함, 부부 사이의 서로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는 공교롭게도 김수로왕과 허왕후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김정희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통해 함께 읽었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역사서 속의 사랑 이야기도 있었고요.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신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랑에 장애를 가져다주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도 있었지만 비극적이고 슬픈 사랑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씩씩하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도 있었고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을 지킨 춘향의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고, 또 문학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 편 감상해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O/X)

정답: O

2. 삼강(三綱) 중의 부위부강(夫爲婦綱)과 오륜(五倫) 중의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모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도덕 원칙으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O/X)

정답: O

3. 조선시대 양반들은 유배를 떠날 때 항상 부인을 함께 데리고 갔다. (O/X)

정답: X

4. 조선시대에 남편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글은 많지만, 아내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O/X)

정답: X

5. 정약용은 30여 년 전 아내가 시집을 때 입었던 빛바랜 치마를 잘라 그 천에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자식들에게 주었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조선시대의 결혼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혼 상대는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중매를 통해 알아보고 선택했다.
- ② 같은 신분의 집안과 혼담(婚談)이 오간 뒤 결혼이 결정되면, 신랑과 신부의 사주(四柱)를 교환하여 정혼(定婚)의 의미를 새겼다.
- ③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택일(擇日)은 대개 신랑집에서 했으며,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에 옷감이나 음식 등의 예물을 보냈다.

정답: ③

2. 다음 중 강의에서 살펴본 조선시대의 부부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삼의당과 하립은 신혼 첫 날 밤 시를 써서 주고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표현했다.
- ② 이덕무는 아내를 벗으로 여기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 받는 친구로 대했다.
- ③ 김정희는 제주도로 유배가 있는 동안 아내에게 한글 편지를 여러 통 보냈으며,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친히 아내의 임종을 지켰다.

정답: ③

3. 다음 중 이인상(李麟祥)의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인상은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은 글에 대한 비평을 받기도 하며 친밀하게 지냈다.

② 이인상은 26년을 해로한 아내를 위한 제문(祭文)을 지으면서 자신 덕분에 아내의 훌륭한 행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을 자랑스러워했다.

③ 이인상의 아내는 부지런하게 집안 살림을 잘 꾸렸고, 이인상은 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정답: ②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은 남녀 관계에 관한 <소학>(小學)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말을 아주 중시하여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정답: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2. 조선시대에는 결혼식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의식이라고 하여 ‘○○’라고 불렀다.

정답: 대례(大禮)

3.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60주년을 ○○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기념하고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정답: 회혼(回婚)

#### 나. 토의 (45분)

강의 시간에 살펴본 부부간 사랑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조선시대의 부부 생활 혹은 부부간의 애정 표현 방식이 현대와 같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 다. 과제 (45분)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신혼, 해로, 사별이라는 삶의 각 단계와 상황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서술해 보십시오.

■ 참고자료

『한국민속의 세계』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이인상 지음, 박희병 옮김, 「아내 제문」, 『능호집』 하, 돌베개, 2016.

이종묵, 『부부』, 문학동네, 2011.

최지녀 편역, 『정약용 시 선집 - 다산의 풍경』, 돌베개, 2008.

KBS 역사스페셜 - 400년 전의 편지, 조선판 사랑과 영혼 ([영상 보기](#))